

## 장흥동학 역사문화콘텐츠 개발방향 워크숍

---

- 일시 : 2010. 11. 13(토) 15:00~18:00
- 장소 : 장흥군청소년수련관 1층 프로그램실

주최\_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주관\_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 장흥동학 워크숍을 열며

장흥동학의 역사문화콘텐츠 개발 방향과 성격을 모색하는 워크숍에 초대합니다.

지난 2009년 5월 동학농민혁명의 최후격전지 장흥읍 석대들이 국가사적지로 지정되어 11월 동학농민혁명 전국대회를 장흥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장흥동학의 위상을 전국화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석대에 장흥동학 농민혁명기념공원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념공원과 장흥동학유적공간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현재의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일이 우리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이에 장흥동학의 역사문화콘텐츠 개발 방향과 성격을 모색하는 워크숍을 마련 하였습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장흥동학공간의 역사문화콘텐츠 개발에 대한 풍부한 논의를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 장흥동학 역사문화콘텐츠개발방향 워크숍 진행순서

- 사회 : 정행석(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사무국장)

▷ 묵념

▷ 내빈 소개

▷ 인사말\_박행덕(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상임대표)

### ◆ 기초발제

- 사회 : 문충선(문화공간 오래된 숲 대표)

#### 1. 장흥동학의 인물과 사건, 그리고 장소/7

- 위 의 환(향토사학자,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지도위원)

#### 2. 장흥군의 문화유산과 장흥동학역사문화콘텐츠/83

- 장 모 창(장흥군청 학예연구사)

#### 3. 소년뱃사공과 생명신화의 창조-고통이 지나면 노래가 남는다/97

- 임 동 확(시인, 한신대교수)

### ◆ 휴식

### ◆ 자유토론

- 워크숍이 끝난 후 저녁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장흥동학농민혁명의 인물과 사건, 그리고 장소

위 의 환(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지도위원)

## 1. 서론

우리나라의 동학농민혁명사를 관조(觀照) 및 연구하는 방법으로 크게 종교사(宗敎史)인 동학사(東學史)를 주로 하면서 농민의 혁명사(革命史) 다루는 방법과 그 반대로 농민의 혁명사를 주로 하면서 동학의 종교사를 다루는 방법이 있었다. 이 방법은 조선의 성리학사에서 주리론(主理論)과 주기론(主氣論)의 입장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다. 그러나 조선의 성리학사에서도 이러한 이분법적인 방법을 탈피하면서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과 이기일원론(理氣一元論) 등이 나왔듯이 동학의 종교사와 혁명사는 동전의 양면, 새의 좌우 날개, 손바닥과 손등처럼 서로 때려야 뭉 수 없는 문제로 보지만 갑오년의 동학농민혁명의 대미(大尾)는 일본군이 지휘했던 진압군에 대항하는 전투이기 때문에 혁명사가 큰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당시대에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들도 동학의 교리인 인내천(人乃天), 후천개벽(後天開闢), 광제창생(廣濟蒼生), 척양척왜(斥洋斥倭), 제폭구민(除暴救民), 보국안민(輔國安民), 교조신원(敎祖伸冤) 등의 기치에 충실했던 동학교단과보다는 동학 교리의 기치를 받아들여면서도 척양척왜(斥洋斥倭), 제폭구민(除暴救民), 보국안민(輔國安民) 등의 혁명에 더 충실하려는 혁명파가 점차 혁명의 주도권을 잡아나가자 증산교 교주인 강증산은 동학의 교리와 혁명으로는 후천개벽(後天開闢), 광제창생(廣濟蒼生) 등을 이룰 수 없다면서 2차기포 도중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대열을 이탈하면서 증산교를 수립한다. 또한 강증산의 대열에서 오늘날의 원불교 세력이 떨어져 나온다.

동학의 제3대 교주인 손병희에 의해 천도교(天道敎)로 개명되고, 1906년 종교 자유화에 힘입어 동학농민혁명 정신이 천도교에 계승되지만 교단은 신평, 구파, 친일파, 신 종단창단 등의 소용돌이와 일제의 감시 등으로 인해 갑오년의 혁명대의는 큰 물결을 일으키지 못한 항일운동으로 전락한다. 그러나 장흥의 천도교 곧 장흥동학농민혁명의 토벌에서 살아남은 자와 그들의 후예는 이와는 달리 혁명 이후 해방 전후사의 공간까지 50여 년 동안 항일운동에 큰 물결을 계속 유지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싶다.

때문에 본고에서 다룰 “장흥동학농민혁명의 인물과 사건, 그리고 장소” 등에서는 갑오년과 을미년의 대패배로 마무리된 실패한 혁명사에 국한하여 살펴 볼 문제가 아니라 토벌에서 살아남은 자에 의해 다시 부활하여 그들의 후예가 벌인 적어도 50년

동안의 혁명사와 종교사를 동시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본고에서는 지면의 제약과 오늘의 워크숍이라는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1894년으로 제한하여 살펴보기로 하고 후일을 기약해 보고 싶다.

## 2. 장흥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지도부의 인물 소고(小考)

### 2-1. 혁명참여 제 姓氏간의 연원(淵源)

필자는 현재 장흥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515명에 대해 엑셀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간략한 database를 가지고 있다. 이 database는 향후 연구를 통해 더 수정·보완되겠지만 전국에서 500명이 넘는 참여자 database를 가지고 있는 지역은 장흥뿐이다.

장흥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지도부에 대한 소고(小考)는 이 database를 통해 충분히 살펴볼 수 있기에 전적으로 필자가 작성한 database에 의존하여 전개한다.

먼저 참여자의 성씨(姓氏) 관향(貫鄉)인 본관(本貫)을 생략한 성씨(姓氏)에 따른 참여자 수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姜(11명), 高(10), 郭(2), 具(2), 權(1), 金(129), 羅(2), 盧(5), 段(1), 馬(4), 文(21), 朴(55), 方(2), 房(1), 裴(2), 白(20), 邊(6), 徐(2), 宣(2), 孫(16), 申(10), 安(16), 梁(3), 吳(4), 魏(18), 劉(6), 尹(10), 李(74), 任(5), 林(4), 임(1), 張(4), 全(1), 田(1), 鄭(12), 曹(2), 趙(3), 조(2), 朱(1), 蔡(2), 千(2), 崔(17), 韓(3), 許(1), 玄(1), 호(1), 洪(11), 黃(5), 皇甫(1) 등으로 총 47개 姓氏가 참여했다.

이중 지도부로 분류할 수 있는 이방언(李芳彦), 이인환(李仁煥), 이사경(李士京)은 仁川李氏, 문남택(文南澤)은 南平文氏, 김학삼(金學三)은 金海金氏, 백인명(白仁命), 백재인(白在寅), 백좌인(白佐寅)은 水原白氏, 구교철(具敎徹)은 綾城具氏, 강일오(姜日五)는 晉州姜氏, 박광오(朴光五)는 順天朴氏(사육신 박팽년의 후손으로 古實朴氏라고도 부른다)로 이들 지도부 상호간에는 상고(詳考)가 불가능한 구교철을 제외하고는 모두 혈연, 지연, 학연, 혼인 등으로 인한 동학 특유의 연원(淵源)이 연결되고, 모두 상당한 수준의 한학(漢學)을 연마한 재지(在地) 선비층으로 분류된다.

간략히 소개하면 이방언과 김학삼은 재고종간 친척이고, 김학삼은 처가가 방촌으로 魏氏와 연결되는데, 김학삼의 처가는 또한 이방언 장군과 친근한 벗으로 학문으로 연결된다. 이와 같은 학문으로 인한 인연은 長興高氏와도 연결이 되어 철종 임술 장흥민란의 지도자인 高濟煥 군수의 후손(고영완家)과도 연결되어 식량 등의 물자를 공급받는다. 또한 이방언家와 박팽년의 후손인 古實朴氏家와도 친척이다. 동학농민혁명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가장 많은 덕도(德島: 당시 諸島面)의 金氏는 18명이 확인되는데, 金海金氏 공간공파(恭簡公派)로 이는 김학삼과 같은 派이다.

장흥에서 1,000년 이상의 토착세력으로 재지사족 및 토호세력으로 분류될 수 있는

長興魏氏는 동학농민혁명에 18명이 참여하는데, 이사경의 할아버지 이석년(李錫年), 백인명, 김학삼의 처가로 이는 혼인으로 인한 연원이며, 이방언家와 魏門의 친교 등으로 長興魏氏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거나 식량 등을 지원한다.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장흥의 제 姓氏간의 혈연, 지연, 학연, 혼인 등으로 인한 연원(淵源)을 밝혀내는 것만으로도 한편의 논문을 쓰고도 남을 일이다.

종합하면 장흥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제 姓氏간에는 동학 특유의 연원(淵源)에 의해 거미줄처럼 상호 얽혀 있고, 지도부는 당시 다른 지역과는 달리 상당한 학문을 습득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강력한 지도부의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었고, 혁명의 물자공급을 다른 지역과는 달리 민간 약탈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본다.

## 2-2. 장흥동학농민혁명 지도부의 인물사(人物史)

장흥동학농민혁명 지도부는 걸출한 인물이 너무 많아서 탈이고, 이들에 대한 열전(列傳)을 어떻게 기록해야 할지 고민이다. 1차기포에서 지방군을 상대로 싸워 이긴 황토현의 전투에 장흥농민군의 참여여부는 분명하지 않지만 경군을 상대로 크게 이긴 장성의 황룡강 전투는 장흥의 부대가 주력이 되어 곧 원정에서 승리한 전투이다. 또한 전주성 전투에서 80여세의 노구를 이끌고 군민을 선동했다는 일본측의 기록이 있는 이야(李爺) 등의 활약도 원정에서 활약이다.

장흥동학농민혁명은 1차기포의 원정보다 몇 곱절 의미가 있는 것은 2차기포로 막바지 패배가 예견된 마당에서 11월 21일 구교철의 웅치기포, 11월 25일 이인환의 대흥기포, 12월 1일 북진에 참여했던 이방언 장군이 이끄는 부대와 장흥으로 지원나온 금구의 김방서 부대, 현지기포 세력인 이인환·구교철의 부대가 합류한 12월 1일 장평면의 사창에서 수만명의 세력을 이룬 후 12월 4일 벽사역 함락, 12월 5일 장흥부 함락, 12월 7일 강진현 함락, 12월 10일 병영성 함락 등 일련의 승리한 전투와 12월 12일부터 시작된 한일연합 토벌군과 벌인 이른바 우리나라 동학농민혁명사의 최후·최대전투는 유치면 조양촌 전투, 건산전투, 유앵동 전투, 석대전투, 자울재 전투, 고읍읍 옥산촌 전투, 대흥면 월정 전투까지 6일간 상호 교전을 한다.

12월 18일부터 다음해 1월 13일까지는 일본군 후비보병 19대대 및 경군의 교도중대, 통위영(좌선봉진), 장위영 부대(이두황의 우선봉진), 일본군 부산수비대, 여수의 좌수영군이 주축이 되고, 여기에 병영성, 장흥부, 벽사역 등이 보조하는 일방적인 토벌이 이루어진다. 1월 8일 이두황의 우선봉진이 나주로 떠나자 일본군 후비보병 19대대장 남소사랑(南小四郎)은 영목안민(鈴木安民)의 부산수비대를 1월 13일까지 주둔시켜, 지방군의 토벌을 돕게 한다. 부산수비대가 장흥을 떠

난 이후로는 병영성, 벽사역, 장흥부 수성군 등이 토벌을 맡는다.

이러한 일련의 승리한 전투와 패배한 전투 등의 과정에서 이방언, 이인환, 이사경, 구교철, 문남택, 김학삼, 문공진, 이득춘, 여동학 이소사, 소년 장수 최신동(최동, 최동린) 등이 지도부의 중심으로 활약한다. 이들 지도부의 활약상은 “장흥 동학농민혁명 역사콘텐츠 개발방향”과 관련하여 “사건과 장소”편에서 함께 언급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다만 장흥을 대표하는 동학농민혁명의 최고 지도자는 이방언 장군이 기 때문에 이방언 장군에 대해서는 몇 마디를 하고자 한다. 그 동안 이방언 장군에 대해 대접주, 장태장군, 남도장군, 관산(장흥의 별호)장군 등으로 호칭되었지만 <우선봉일기> 12월 27일조 장군의 동학내의 직책이 처음으로 등장한다. 동학에서는 대접주 산하에 일종의 교구(敎區)와 같은 포(包)를 두어 접(接)을 관장했는데, 포(包)에는 행정기구로 육임제(六任制)로 교장(敎長), 교수(敎授), 도집(都執), 집강(執綱), 대정(大正), 중정(中正) 등의 여섯 가지 부서를 두고 운영하였다.

육임제(六任制)의 역할과 운영에 대해서는 <장흥지방동학농민혁명사>를 쓴 박맹수 교수는 그의 박사학위논문에서 이렇게 정의했다. 교장(敎長)은 바탕이 진실하고 신망이 두터운 사람. 교수(敎授)는 다른 사람들에게 교리를 전하고 가르칠만한 사람. 도집(都執)은 기강을 밝히고 경계를 아는 사람. 집강(執綱)은 시비를 가릴 줄 아는 사람. 대정(大正)은 근후한 사람. 중정(中正)은 강직한 사람이라고 했다.

이방언 장군의 직책 중 교장(敎長)은 그가 혁명당시 57세였고, 지역에서 신망 받는 거물 유학자 출신에다 바탕이 진실하고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어서 문자 그대로 교장이라는 직책과 그는 잘 어울린다. 삼남(三南)은 충청, 전라, 경상도를 뜻한다. 이제 이방언 장군의 직책의 위상을 살펴보자 우리나라 전체 동학농민혁명군 조직체계에서 충청, 전라, 경상의 삼남(三南)에서 바탕이 진실하고 신망이 두터운 사람인 교장(敎長) 중의 으뜸(都)이라는 삼남도교장(三南都敎長)이라는 엄청난 직책이다. 그는 이 직책에 걸맞게 황룡강 장태전투, 장흥·강진 전투를 이끌어 냈다고 보면 허튼소리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직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동안 학계에는 알려지지 않은 남접과 북접이 갈등을 빚을 때 장내회의(帳內會議)에 참여하여 양측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었다고 본다.

필자는 장군의 후손으로부터 평전(評傳)을 오래전에 청탁받아 그 동안 200자 원고지 400매 정도를 작업해 둔 분량이 있기 때문에 이를 미리 세상에 공개하고 싶지 않지만 여기서는 이방언 장군의 집안에 대해 알 수 있는 호산(壺山) 위하조(魏河祚)의 漢詩 하나를 소개하는 것으로 끝내고자 한다.

## 次默菴李重吉原韻

慎而守口本乎心，克述清江尚德音。

신이 수구본호심, 극술청강상덕음.

有是聖經箴戒近，無爲天道化誠深。

유시성경잠계근, 무위천도화성심.

高堂甘旨思曾孝，晚境中庸惜禹陰。

고당감지사증효, 만경중용석우음.

卜築幽廬安靜好，一般意味明月林。

복축유려안정호, 일반의미명월림. (出處: 魏氏世稿 人編)

삼가고 입조심(守口)<sup>1)</sup>하여 본래의 마음으로

정돈된 글을 지으면 맑게 흐르는 강물처럼 오히려 도리에 맞는 말이로세.

그 말은 聖經(유가경전)의 깨우쳐 훈계함과 가까워

천도(天道)의 무위(無爲)로써 화육(化育)함이 참으로 깊도다.

고당(高堂: 부모님)에 맛 좋은 음식으로 일찍이 효를 사모하기를

늘그막에도 중용(中庸)으로 우(禹)임금처럼 촌음(寸陰)을 아끼셨네.

살만한 곳을 가려 그윽한 집(幽廬)을 지어

안정을 좋아함이 한결같은 의미가 명월림(明月林)이로세.

이 시는 호산(壺山) 위하조(魏河祚) 선생께서 당신보다 12살 연배가 높은 東學의 남도장군 이방언(李芳彦)의 부친 묵암(默庵) 이중길(李重吉)의 下平聲 侵韻目의 心, 音, 深, 陰, 林의 韻으로 된 어떤 七言律詩를 차운(次韻)하여 묵암(默庵)의 덕을 노래한 시이다.

묵암(默菴) 이중길(李重吉)의 字는 贊文으로 정조 21년 丁巳年(1797년)에 이석계(李碩啓)의 장남으로 출생하였다. 인천이씨 대동보에 “班衣奉親(색동옷 입고 부모를 섬김)<sup>2)</sup>하며 白首讀書(늙어서까지 독서)하다. 세칭 中庸李孝子. 己丑年 12월 7일 卒. 향년 80세.”로 기록되어 늙어서도 노래자(老萊子)처럼 부모를 섬김이 들러났다.

묵암의 부친 이석계(李碩啓)는 영조 52년 丙申年(1776년)에 출생하여 고종 12년 乙亥年(1875년)에 卒하였으니 족보의 기록이 맞는다면 歲首 100세로 장수한 분이 다.

족보에 묵암의 사망연대를 己丑年 향년 80세라 했는데 이는 교정이 필요하다. 己

1) 주희(朱熹)의 <경재잠(敬齋箴)>에 “입 조심하기를 병 막듯이 하고, 방증한 뜻 막기를 성 지키듯이 하라.(守口如瓶 防意如城)”라는 말이 있다.

2) 춘추시대에 초나라의 老萊子가 나이 70세에도 어린아이 옷을 입고 어린애 장난을 하여 늙은 부모를 위안하고 섬긴 고사에서 온 말이다.

丑年은 1889년으로 목암이 향년 80세를 살았다면 정조 21년 丁巳年(1797년)에 출생하였으니 高宗 13년 丙子年(1876)이 80세 되는 해로 아마도 丁丑年(1877년)이 己丑年으로 잘못 표기되거나 己丑年(1889년)에 사망하였다면 향년 93세로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호산(壺山) 위하조(魏河祚) 선생은 순조 9년 己巳年(1809년)에 소암(素菴) 위영우(魏榮禹)의 장남으로 태어나 字는 찬빈(贊賓)이다. 장흥위씨 대동보에 호산(壺山) 선생을 “품성이 厚重하고, 事親至孝(아버이를 섬기는데 지극 효성)하고, 持身勤飭(제 몸의 처신을 힘써 경계)하며, 不喜流俗(세속의 풍속에 기뻐하지 않고)하고, 연암공(蓮菴公) 영경(榮璟)과 더불어 매산(梅山) 홍문경공(洪文敬公)을 지견(贊見: 폐백하며 찾아뵙)하니 선생이 一見에 문득 아름다운 선비(佳士)라 칭하다. 질의와 辯難(옳고 그름을 따짐)에 자주 장후(獎誦: 장려하고 추켜 줌)를 입으니 充然有得하다. 自後로 과거를 폐하고 林泉(은사의 거처)에서 높은 뜻을 기르고 알아주지 아니하여도 성내지 아니하니 세칭 남쪽고을의 높은 선비(南州高士)라 하다. 고종 辛巳年(1881년) 2월 25일 終.”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호산(壺山)의 “事親至孝(아버이를 섬기는데 지극 효성)하고 持身勤飭(제 몸의 처신을 힘써 경계)하며”와 “과거를 폐하고 林泉(은사의 거처)에서 높은 뜻을 기르고 알아주지 아니하여도 성내지 아니하니 세칭 南州高士라 하다.”에서 목암(默庵)의 “班衣奉親(색동옷 입고 부모를 섬김)하며 白首讀書(늙어서까지 독서)하다. 세칭 中庸李孝子.”와 통합으로 보아 호산 선생이 생전에 목암의 덕을 본받음과 두 집안의 친밀함이 잘 드러난 시이다.

### 3. 장흥동학농민혁명의 사건과 장소

#### 3-1. 서론

일부 학자들은 장흥의 농민군이 2차기포에서 북진대열에 합류하지 않았고, 구교철·이인환의 기포가 우리나라의 동학농민혁명 막바지에서 기포한 점을 들어 혹 남접이 아닌 북접과 밀접하지 않을까 예단했지만 사실이 아니다. 장흥의 기포는 세 갈래의 기포로 정리되는데 첫째는 이방언 장군의 북진기포이고, 둘째는 정완석 부대의 김개남 부대에 합류하는 독자기포이며, 셋째는 이인환·구교철에 의한 현지기포이다. 정완석의 김개남 부대 합류는 자기노선에 따른 독자행동으로 보여 논외로 치고, 이방언의 북진세력과 이인환·구교철의 현지기포 세력은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삼남도교장인 이방언 장군은 대덕의 강일오 세력 등을 대동하고 분명히 북진대열에 합류하여 삼남도교장이란 직분에 맞는 역할을 하였다. 박헌양 부사가 부임하면서 동학에 대한 탄압과 회유가 극도로 치달을 때 이방언 장군은 동지들과 밀약하여 귀

순하는 척 하면서 부사를 안심시켜놓고, 정작 2차기포가 터졌을 때는 城안(장흥부)에 없었음이 장흥 유생이 쓴 <영회단> 문서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부사가] 이방언을 붙렸을 때 그는 귀화하고자 하여 방언은 글을 올려 귀순하여 읍에 머물러 있겠다고 하였으며, 그를 따르는 나머지 무리(餘徒)는 점차 수그러져 갔으나 구교철과 이사경은 끝내 귀순함을 듣지 않고 흑 인근의 경내로 도망하여 흑 창궐하여 기포하였다. (중략) 이방언은 성밖으로 나가 숨어 있었는데, 이방언은 낮에는 귀화하고, 밤에는 흉악함을 품음을 사특하게 감싸 남을 해하려는 마음을 감추고서 그 망측함이 극에 달했다.

이방언 장군은 우금치 전투 패배 후 잔류 농민군을 대거 이끌고(전주출신 김동진도 포함되어 있음) 남하할 때 장흥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해 둔 계획인 숙계(宿計)에 의해 우리나라 동학농민혁명의 최후·최대의 전투가 벌어지게 된다.

본고에서는 장흥동학농민혁명군의 1차기포의 원정전투인 장성 황룡강 전투와 전주 성 함락 전투 및 2차기포에서 이방언 장군의 북진 또한 생략한다. 다만 장흥일대에서 벌어진 2차기포의 현지기포, 출정행군, 승리한 전투, 패배한 전투 등을 향후 역사 콘텐츠 개발과 관련하여 스토리텔링으로 제시하여 향후 장흥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답사코스 개발과 아울러 유적지 보존방향 등을 고민해 볼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 수 있도록 날짜순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 3-2. 흑석장터

흑석장터는 현 장평면 봉림리 버스정류장, 주유소, 농협창고, 봉림삼거리 등의 주변으로 유치면 조양촌과 함께 북쪽의 관문에 해당하는 곳이다. 장흥도호부의 장택면과 유치면, 화순의 능주로 통하는 교통 중심지이기에 장시(場市)가 열렸던 곳이다.

장흥동학농민혁명에서는 북쪽과 통로하는 곳으로는 강진 병영을 거친 통로, 유치에서 나주 봉황을 거친 통로가 더 있지만 병영 통로는 전라도 육군이 지키고 있는 곳이고, 봉황 통로는 1차기포에서 농민군이 함락하지 못한 나주목이 지키고 있는 곳이어서 통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2차기포에서 북쪽과 통하는 유일한 통로는 흑석장터를 경유한 통로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장흥농민군으로서는 흑석장터를 장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진지구축이었다.

<일사> 기록에 의하면 10월 16일에 장평면의 사창(司倉: 장평면 소재지 농협창고 일대) 농민군 천여명이 모여 있었는데, <박후의적>에 의하면 11월 어느 날 부평면(장평면 임리일대)에서 “아군은 점점 떨치고 적도는 축소되었다. 전번의 부평면 적피는 음회(陰懷)하고 이상한 사고를 당해 비밀리에 각처의 주변 적도에게 알리어 입

성하는 거사를 기약했지만 범죄의 실정의 기미를 알지를 못했다. 곧 땅을 뒤집는 법(반역)이기 때문에 적은 더욱 혹독함을 품었다.”에서처럼 농민군은 사연을 알 수 없는 어떤 사고를 당해 곤경에 처해 있었다. 이러한 일이 한 원인이 되어 농민군은 사창에서 11월 7일 이전에 흑석장터로 옮긴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금구 접주 김방서 부대와 이방언 장군의 북진세력 등을 맞이하고, 박헌양 부사의 동학도 탄압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며, 11월 21일의 구교철의 웅치기포를 돕기 위해 장흥부의 시선을 흑석장터로 집중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 3-3. 구교철의 웅치면기포

박헌양 부사의 시선이 흑석장터에 집중되어 있을 때 11월 21일 웅치면에서 구교철의 기포가 일어난다. 웅치면의 농민군이 장차 장흥읍을 침범한다는 소식을 듣고 놀란 박헌양 부사는 강진 병영성에 급보를 보내 별포군 500명과 조총 2백자루를 요청했으나 병영은 모두 응하지 않았다. 장흥부에는 장흥부에 소속된 군대가 있고, 벽사역의 역졸 등이 있지만 병영성에 별포군 500명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아 구교철의 기포 규모를 헤아려 볼 수 있다.

11월 22일 다시 장흥에서 급보가 와 병영에서는 저녁에 도총장 윤권중 수성별장 박관숙이 2백의 민군을 인솔하여 강진읍군 2백과 함께 장흥으로 진격한다. 11월 23일에는 웅치농민군이 병영의 군대와 장흥의 수성군이 진격해 읍을 알고 길을 지나던 의심스런 세 사람을 죽이고, 깊은 곳(활성산)으로 물러나 진을 치고 병영군과 장흥 수성군과 대치하는 긴박한 상황으로 변화하지만 11월 25일 이인환이 대흥면에서 출정 기포하여 대군을 이끌고 와서 전세는 완전히 역전되었다.

구교철이란 인물을 고증하기 위해 웅치면에서 具氏를 찾으면 아무런 단서도 나오지 않는다. <웅치면지>에서는 “우선 웅치의 성촌사(成村史)와 입향조(入鄕祖), 성씨(姓氏) 유래를 살펴볼 때 웅치에는 과거에도 구씨(具氏)가 살았던 사실이 없고, 지금도 웅치에는 구씨(具氏) 성씨를 가진 사람은 없다.”고 하였지만 현 웅치면 강산리(웃강산), 보성읍 강산리(아래강산)와 지근거리에 있었던 당시 옥암면(玉岩面)<sup>3)</sup> 구동(龜洞)은 같은 생활권으로 구동(龜洞)에는 구교철(具教徹)과 이름이 비슷한 같은 향렬인 구교준(具教準)이 살고 있음이 <사료총서> 10권 <선유방문병동도상서소지등서(宣諭榜文竝東徒上書所志謄書)><sup>4)</sup>의 “소지등서책(所志謄書冊)” 갑오 12월 초 9

3) 이 옥암면(玉岩面)은 장흥부에 소속되었다가 다시 보성군으로 소속이 바뀌기도 한 지역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에 옥암면(玉岩面)은 웅치면, 노동면, 보성면으로 삼분된 곳이다. 강산리는 웅치면으로 편입되었고, 상청리(上靑里)는 노동면 대치리로 편입되었으며, 나머지 옥암면(玉岩面)은 용문면(龍門面)과 합하여 보성면(寶城面)으로 통합된다. 현재 웅치면과 가까운 옛 옥암면 지역의 보성읍 대야리 간동, 보성읍 신흥동 협촌, 봉산리(삼산, 온수동) 등에 구씨가 살고 있음을 필자가 확인했다.

4) 작자 미상의 이 기록은 1894년 10월에서 1895년 1월 14일까지 걸쳐 있다. 2차 봉기시기 관

일조에 “一 寶城 玉岩 龜洞 柳龍煥 具教準 等 呈以不染東徒事 題: 迨此無染 可見士習 向事(하나, 보성 옥암 구동(龜洞)의 유용환(柳龍煥)과 구교준(具教準) 등이 동학에 물들지 않는 것이 드러난 일에 대하여, 답변에 바라건대 이에 [동학에] 물들지 않았으니 선비로서 [학문을] 익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에서 확인되어 전혀 웅치면과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다.

구교철의 웅치면 기포는 관군의 눈을 웅치면으로 집중시켜 11월 25일 이인환의 대흥면 출정기포를 쉽게 성공시킬 수 있는 큰 밑거름이 되었다.

### 3-4. 이인환의 대흥면 기포와 회령진성 무혈입성

#### 3-4-1. 이인환은 누구인가

장흥농민군이 장흥·강진·홍양 등에서 승리한 일련의 전투는 모두 이인환의 탁월한 야전능력과 11월 25일 대흥면에서 기포한 후 회령진성에 무혈입성하여 획득한 다수의 무기와 식량 등이 큰 밑거름이 되었다.

장흥동학농민혁명사에서 이인환(李仁煥) 대흥대접주는 여동학 이소사(李召史), 웅치접주 구교철(具教徹)과 함께 가장 미스터리한 인물이다. 장흥에서 이인환을 인천이씨(仁川李氏)로 보는 것에 대해 이견은 없지만 장흥에 거주하는 공도공(恭度公)과는 그 지파로 수의부위공파(회천), 통훈공파(부산면), 승의부의공파(용산면)를 구성하고 있다. 이인환은 장흥의 인천이씨 무슨 파와 인연이 있어 언제 나주 남평에서 장흥으로 이사를 왔는지도 알 수 없는 인물이다.

인천이씨 대동보 갑인년(2004년 12월)판(12권 및 색인부)에는 다행히 부록으로 이름을 검색할 수 있는 색인부(索引簿)가 있는데, 인환(仁煥)으로 이름한 사람을 모두 검색했으나 원하는 갑오년의 대접주 이인환(李仁煥)은 찾지 못했다. 아마도 인환(仁煥)은 본명이 아니라 자(字)일 것이다. 이방언(본명: 민석), 이사경(본명: 관근), 김학삼(본명: 상휴)도 모두 본명(本名)이 아니라 자(字)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인환(李仁煥)이라고 했을 때는 본명이 아니라 字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인천이씨 대동보 색인부에서 字로는 검색되지 않아 출신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인환에 대한 기록은 <우선봉일기>, <오하기문>, <동학사>, <영희단>, <순무선봉진등록>, <천도교월회보>, <일사> 등에 이름 석자가 전하지만 모두 짧은 기사

---

변측에서 선유문을 돌리고, 전봉준 등이 충청감사에게 올린 글, 民人의 소지(所志: 예전에 청원이 있을 때에 관아에 내던 서면) 등을 모아 등서한 자료이다. 전봉준이 공주전투에서 노성으로 후퇴한 뒤 관군과 이교(吏校)와 시민(市民: 상인)들에게 척왜척양 전선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한 글은 전봉준이 농민전쟁을 일으킨 이념적 지향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민인의 소지(所志)는 단편적이기는 하나 당시 향촌의 여러 사정과 농민군 토벌상과 관군의 조치를 잘 알려준다. 따라서 이 관련 기록이 희귀한 처지에서 아주 소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동학농민혁명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로 어떤 인물이었는지 상고(詳考)가 불가능하다.

이인환에 대해 가장 많은 분량의 내용이 등장하는 문헌은 천도교 장흥교구에서 일제시대에 제작한 <갑오동학혁명혈사>이다. 천도교 장흥교구에는 일제시대의 정본을 영구보존하기 위해 1973년 부분(副本)을 제작했는데, 현재 세상에 유통되고 있는 것은 부분(副本)으로 양면지에 가로판으로 써져 있고, 일제시대 정본은 양면지에 세로판으로 쓰여 있다. 또한 갑오년 당시 일곱 살이던 성암 김재계 선생이 남긴 기록에도 상당한 분량의 이인환 대접주의 기록이 보인다. 먼저 <갑오동학혁명혈사>의 기록을 살펴보면 정본과 부분에는 약간의 문자이동이 있지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갑오동학혁명혈사의 내용은 생략함)

이인환 대접주는 출신은 남평현이지만 장흥에서 그의 가족은 물론 처가의 식구들도 대동하여 정착하고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가 무기와 화약을 잘 다루었고 병법(兵法)이 탁월했다는 구전을 토대로 검토하여 보면 혹 회진 만호진(萬戶鎭)에 한때 군관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아닌지 의심이 되기도 한다. 또한 이인환은 무기와 화약을 잘 다루었다는 구전 외에도 생약초 등의 약재상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접촉했다는 구전이 있다. 만약 약재상을 했다면 생약초 등의 약재를 매개체로 하여 동학포교에 힘쓰지 않았을까 추정할 수 있다.

이인환의 처남 유창오(劉昌五)는 장흥의 동학혁명에 참전하여 다행히 생명을 부지한 것까지는 확인이 된다. 위의 <갑오동학혁명혈사>에서 “[이인환을] 석방의 암의(暗意)가 있는 그의 심지(心志)를 안 氏(이인환)는 석방이유 및 의복과 지뢰(指耒: 손발싸개), 서류를 氏의 처남 유창오(劉昌五)에게 보냈더니, [유창오와] 가까운 마을(도청)에 거주한 방수장 김(金多汝)은 그 서류의 속 내용을 찾아내어”로 보아 이인환의 처남 유창오도 대흥면 도청리에서 가까운 마을에 정착하고 살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에 대한 구전으로는 일제시대 관산읍 수동의 작은 저수옆에서 덕도(德島)를 잇는 노두길 옆 주막에 한때 유씨(劉氏) 성을 가진 사람이 살았는데, 그는 주막에 사는 사람치고 이치가 분명하고 범접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그가 혹 이인환의 처남 유창오(劉昌五)가 아닌지 의심이 되기도 하지만 현재 장흥에서는 이인환(李仁煥)가와 그의 처가 유창오(劉昌五)가를 찾을 수 없으니 매우 안타까울 뿐이다.

### 3-4-2. 대흥면 기포와 회령진성 무혈입성

커져가는 동학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이인환과 구교철은 북진했던 이방언 장군과 긴밀히 연락하여 숙계(宿計: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계획)에 의해 11월 20일을 전후하여 철저하게 웅치면과 대흥면에서 장흥의 기포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인환의 대흥면 출정기포를 완벽하게 성공하기 위하여 11월 21일 구교철이 먼저 웅치에서 기포하여 장흥부사의 이목을 웅치로 집중시킨다. 웅치 동학농민군을 진압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던 장흥부사는 이인환의 대흥면 출정기포에 그만 허

를 찢리고 만다.

필자는 <장흥동학농민혁명 사료총서>의 “장흥의 세 갈래의 기포”편에서 이인환의 11월 25일의 기포를 출정기포라고 정의했다. 출정기포 이전의 모임과 “대장 깃발이 펄펄 휘날리며 머리에 석자 황명주 수건을 두르고 무릎에도 황명주 수건을 두른 동학군이 총을 든 사람 창을 든 사람이 연습차로 자주 별판에 모이곤 하였다.”의 기포를 현지기포로 정의했다.

이인환의 대흥면에서 출정기포 날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다. 먼저 <임태희 추기(任泰希推記)>에는 “11월 23일 본부(本府) 대흥면에서 적괴가 크게 일어나 적병 천여 명이 곧바로 밀어젓히어(直抵) 인근의 고읍면을 위협하여 군사를 일으킨 다음 새의 날개 치는 소리처럼 연달아 남상면 등을 공격하여 강제로 겁을 주어 군사를 일으킨 다음 본부(本府) 회령면에 가서 진을 쳤다.”고 하여 이인환의 대흥면 출정기포가 11월 23일이라고 전하고 있다.

강진 박기현의 <일사>에서는 11월 25일조부터 연달아 이인환의 대흥면 기포소식을 전하는데, 11월 25일조에 “전하여 들으니 동학접주 이인환이 대흥면에서 기포하여 웅치 동학과 모였다고 한다.” 11월26일조에 “밤에 장흥부사가 호장(戶長)을 거느리고 병영에 와서 군대를 요청하였다. 대흥동학의 기포를 보고 군대를 보내 토벌하려고 하는데, 그 형세가 대단히 급박하여 문서로써 군대를 요청한 것이다. 그 문서는 형세가 이와 같이 급박하니 즉시 군대를 징발하여 도와 달라는 내용이었다. 장흥부사가 그 글을 보이고 밤에 즉시 돌아갔다.”

<일사> 11월 28일조에 “(사촌동생 지삼이) 보성읍에 도착해보니 군대를 모아 바야흐로 장흥경계로 내려가려고 하였다. 그 이유를 물으니 장흥읍에서 대흥면 동학이 귀 읍으로 넘어가려 하니 귀 읍에서는 마땅히 군대를 징발하여 막으라는 뜻의 비밀 연락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고 한다.” 11월 29일조에 “장흥 소식을 들으니 병영의 군대가 세 사람의 동학의 목을 베고, 한 개는 병영에 결박하였으며, 장차 웅치를 넘어 동학을 토벌하려고 한다고 했다.” 11월 30일조에 “보성 소식을 들으니 민군 수백 명이 단지 죽창을 들고 적을 막는데 적도를 보고 모두 물러나 돌아왔다고 한다.”고 전한다.

한편 <오하기문>에는 “11월 26일 장흥의 적 이방언(李方彦), 이사경(李士京), 이인환(李仁煥), 백인명(白仁命), 구교철(具敎徹) 등이 회령진(會寧鎭)을 점거하였는데 그 무리는 수만이다.<sup>5)</sup> 장흥부의 군사 천여 명이 나가 싸웠으나 참패하고 돌아왔다. 병영에 구원을 요청하여 병사 서병무(徐丙懋)는 총수 300, 무사 100명을 보냈다. 29일에는 벽사역 부근에서 농민군 3명을 참하고, 웅치까지 추격하였으나 농민군은 이미 보성으로 물러났다. 30일에는 보성경계에 까지 추격하였으나 농민군을 발견하지 못해 군대의 추격을 멈추고 돌아왔다.”고 전한다.

5) 원문은 “二十六日, 長興賊, 李芳彦, 李士京, 李仁煥, 白仁命, 具敎徹等, 據會寧鎭, 其衆數萬.”이다. 처음에는 이방언만 기록하였다가 이사경, 이인환, 백인명, 구교철을 옆에다 부기하였다.

장흥 백영직의 <육우재유고(六有齋遺稿)>의 「박후의적(朴侯義蹟)」에 “강진 감영으로 가서 원군을 청하여 같이 토벌하려 할 때에 적도들이 응치면에 아주 주둔하여 살상과 약탈을 일삼는다 하므로 즉시 명을 내려 성을 지키던 별장인 임창남에게 쫓아가 토벌케 하였더니 승첩을 거두었으나 적도들은 더욱 그 흥계가 극도에 다다라 대흥지방의 적도 천여 명이 여러 차례 곧바로 고읍 땅과 남면 등지를 공격해 왔고, 또 남면에서 곧 바로 회령(會寧)땅을 공격하여 왔으므로 다시 수성별장에게 출격을 명을 내려 공격케 하였으나 저들은 무리들이 많고 우리는 적어서 적괴를 체포하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전한다.

보성의 문재국씨 소장 동학문서 <영회단>에도 “(대흥에서 기포하자) 여기에 응치 농민군이 합류하여 천여 명의 농민군이 고읍(古邑)으로 직향하여 관군을 협박하고 남면을 거쳐 회령(會寧)으로 달려갔다.”고 전한다.

위에서 전하는 말들이 모두 약간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날짜에도 출입이 있다. 특히 회령진(會寧鎭)을 점거하였다는 기사를 놓고, 갑오년 당시 수군 만호(萬戶)가 주둔했던 지금의 회진면의 회령진인가 아니면 이조 성종 때에 폐진(閉鎭)되었던 당시 장흥부에 속했던 회령면의 옛 회령진인가의 문제는 필히 정리하고 넘어가야할 문제이다.

그 동안 학계에서는 이인환의 대흥점이 11월 25일 기포하자 곧장 응치접과 결합하여 <오하기문>에 따라 11월 26일에는 현 보성군 회천면으로 갔다고 해석했다.

먼저 이인환의 대흥면 출정기포 날짜에 대해서는 작자가 장흥사람으로 추정되는 11월 23일설(임태희 추기)과 강진 병영사람인 박기현의 11월 25일설(일사)에 대해 고찰하여 보면 <임태희 추기>에 기록된 11월 23일이 외형상 더 신빙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 기록은 갑오년 11월 당시의 기록이 아니라 이두황을 전 양주목사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 아마도 을미사변(1895년 10월 8일) 전후에 기록된 문서로, 기록에서 이두황의 장흥입성을 12월 16일로 적고, 옥산전투를 12월 21일로 전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고, 오히려 <일사>는 그날그날의 일기로 적었기 때문에 11월 25일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11월 25일에 기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김재계의 <갑오년 동학이야기>에 서처럼 “하루는 들리는 말이 접주 이인환씨가 거정리 별관에서 동학도 모임을 한다고 한다.”와 “대장 깃발이 펄펄 휘날리며 머리에 석자 황명주 수건을 두르고 무릎에도 황명주 수건을 두른 동학군이 총을 든 사람 창을 든 사람이 연습차로 자주 별관에 모이곤 하였다.”에서 처럼 11월 23일은 출정기포 이전의 현지기포 때에 연습차 모였던 날짜가 아닌가 의심된다. 또한 기왕 기포를 하여 출정을 하려면 11월 25일 대흥면 장날을 기해 기포의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시위효과로 본다면 11월 25일을 출정기포 날짜로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오하기문>에 전하는 “11월 26일 장흥의 적 이방언(李方彦), 이사경(李士京), 이인환(李仁煥), 백인명(白仁命), 구교철(具教徹) 등이 회령진(會寧鎭)을 점거하였는데

그 무리는 수만이다.”<sup>6)</sup>의 기록을 그 동안 학계에서는 회진의 회령진이 아니라 회천면의 옛 회령진으로 해석하여 11월 25일 대흥면에서 기포하자마자 회진의 회령진을 거치지 않고, 곧장 60km 이상을 내달려 다음날 회천면의 회령진으로 간 것으로 보았다.

대흥면의 동학농민군의 분포를 살펴보면 거정리와 그 지근거리인 도청·연지리에도 많지만 주로 외곽지역에 더 많이 분포한다. 멀리로는 강진군 대구면의 윤세현씨의 세력,<sup>7)</sup> 약산·금당도의 섬, 대리·신상의 섬, 서편으로 신리·용암·분토 등으로부터 거정리에 모이는 거리가 4~15km가 넘는 거리에 있다. 이날은 또한 대흥면 장날이다. 많은 장꾼 앞에서 무언가 거대한 동학의 출정식을 보여주지 않으리 없다. 아무튼 거정리에서 모여 일찍 출발하였다 하여도 12km를 북상하여 고읍(관산읍)으로 가서 여기서 군대를 일으켜 다시 10km 정도를 북상하여 남면(용산면)으로 가서 여기서 군대를 일으켜 다시 10km 정도를 북상하여 안양면으로 여기서 다시 20km 정도를 더 동진하여야 회천면의 옛날 회령진터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다가 여러 기록이 모두 고읍면과 남상면에서서 군사를 일으켜 동행시켰고, 이 과정에서 <박후의적(朴侯義蹟)>에서 “대흥지방의 적도 천여 명이 여러 차례 곧바로 고읍 땅과 남면 등지를 공격해 왔고, 또 남면에서 곧 바로 회령(會寧)땅을 공격하여 왔으므로 다시 수성별장에게 출격을 명을 내려 공격케 하였으나 저들은 무리들이 많고 우리는 적어서 적피를 체포하지 못하고 돌아왔다.”는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 수성군과 충돌이 있었기에 11월 25일 대흥면에서 출정 기포하여 곧바로 11월 26일 회천면의 회령진 점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두황의 우선봉 군대도 말(馬) 90필이 있어도 하루 행군이 60리인 24km를 넘지 않았는데, 고읍면에 들러 군사를 일으키고, 남상면에 또 들러 군사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수성군과 어느 정도 충돌이 있는데다 많은 인원이 하루 세끼 식사 등을 해결하면서 단 하루 만에 도달하기란 도저히 불가능한 거리이다.

그래서 11월 25일 대흥면 거정리에서 출정기포를 하여 대열을 갖춘 후 11월 25일이나 11월 26일 경에 회진의 회령진에 무혈 입성하여 많은 무기와 식량을 확보한 후 북상하여 고읍면에서 군대를 일으키고, 또 북상하여 남상면에서 군대를 일으켜 많은 무리를 대열에 합류시켜 위로 치고 올라온다.

이를 지켜본 장흥부사가 위급함을 느껴 <일사>의 11월 27일조의 “밤에 장흥부사가 호장(戶長)을 거느리고 와서 군대를 요청하였다. 대흥면(大興面) 동학의 기포를 보고 군대를 보내 토벌하려고 하는데, 그 형세가 대단히 급박하여 문서로써 군대를

6) 장흥 현지기록인 <영회단>에서는 “이방언은 성밖으로 나가 숨어 있었다.”고 하여 이방언 장군은 장흥에 부재중임이 확인되었다. 곧 북진대열에 참여 있었다.

7) 김재계 선생이 쓴 천도교월회보 267호 1933년 7월호의 “故 절암(節庵) 윤세현(尹世顯)씨를 추모함”에 포덕35년 갑오년(1894년) 4월 모일에 동지 수십 명으로 고부군 전봉준 혁명난에 참여하였다가 동 7월에 고향 강진으로 돌아와 혁명의 동지 수만을 규합하여 동 11월에 장흥 이인환점과 합세하여 일거에 보성 장흥 강진 병영을 함락하였다.

요청한 것이다. 그 문서는 형세가 이와 같이 급박하니 즉시 군대를 징발하여 도와 달라는 내용이었다. 장흥부사가 그 글을 보이고 밤에 즉시 돌아갔다.”와 연결시켜 보면 다음과 같다.

11월 25일 이인환이 대흥면에서 출정 기포하였다는 소식을 접한 장흥부사는 적어도 11월 27일 낮까지의 시간에 장흥부의 수성군을 출동시켜 대흥면의 동학이 고읍면 남상면을 거쳐 북상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했지만 <영희단>에서 전한 것처럼 “여기에 웅치 농민군이 합류하여 천여 명의 농민군이 고읍(古邑)으로 직향하여 관군을 협박하고 남면을 거쳐 회령(會寧)으로 달려갔다.”에서처럼 대흥면 동학이 회진의 회령진에서 막대한 무장력을 갖추어 수성군보다 월등한 무장력에다 웅치의 구교철이 지원사격을 해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흥부사는 앞으로 장흥부로 쳐들어올 것이 명약관화하고, 장흥부 수성군으로는 열세이기 때문에 27일 밤 병영성에 직접 가서 문서로 군대를 요청했던 것이다.

이리하여 <일사> 11월 28일조의 “아침을 먹은 뒤에 도총장 윤권중(尹權仲)이 군대 수백 명을 거느리고 장흥으로 갔다.”와 연결이 잘 된다. 또한 이와 같은 상황은 <박후의적>에 다음과 같이 잘 나타난다.

부사가 분노를 이겨내지 못하여 이때 죄인을 찾아 쫓아가 잡으려고 친히 강진 병영으로 찾아가서 구원병을 청해 함께 토벌하려는 사이에 적들은 오히려 웅치면에 진을 치고서 목숨과 재물을 약탈하고 있었다. 곧 수성별장 임창남(任昶南)에게 명하여 가서 토벌하여 적들을 체포하게 하였다. [적들은] 더욱 방자하게 흉계를 꾸며 대흥면의 적 1,000여명이 고읍면에서 곧바로 남면 등지를 짓이기고 남면에서 곧바로 회령면의 땅으로 내달렸다. 다시 수성별장에 출격을 명령하였으나 적들은 많고 아군은 적어 적괴를 체포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이인환의 대흥접이 출정기포 하여 장흥읍이 아닌 구교철과 합류하여 회천면의 옛 회령진으로 진격했던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루 만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사전에 구교철, 이방언 장군과 숙계(宿計)가 있었다고 했다.

다시 결론지어 <오하기문>의 회령진 점거에 대해 말하면 이인환의 대흥접이 회진의 회령진에서 먼저 양측에 모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무혈입성(無血入城)을 하여 점거한 것도 사실이고, 대흥면의 동학농민군이 현 보성군 회천면인 옛 회령진으로 이동한 것도 사실이다. 다시 김재계의 “갑오년 동학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아래 ①, ②의 상황은 현지기포를 전하는 것이고, ③의 상황은 출정기포를 전한 상황이다.

① 하루는 들리는 말이 전주 이인환씨가 거정리(현 대덕읍 소재지) 별판에서 동학도가 모임을 한다고 한다. 어른은 물론이거니와 부인 어린이까지도 구경을 간다고 한다. 아버

지도 가시고 삼촌도 가시고 할머니도 가신다고 한다. 나도 가겠다고 선두에 나섰다. 아버지 삼촌 할머니는 어린애들이 가면 사람 많은 속에 큰일 난다고 절대로 만류하셨다. 그래도 가겠다고 몸부림을 치다가 삼촌에게 불호령을 듣고 어머니의 손에 붙들려서 다시 돌아왔다.

② (전략) 날마다 사람이 구름 모인듯하였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끊어질 날이 없었다. 또 한편에서는 소를 잡고 돼지를 잡고 술을 마시고 참으로 동학의 기분은 굉장하였다. 얼마 후에 전주 이인환씨가 기포령을 내리었다. 이 기포령이 한 번 내리자 어쩐 일인지 사람들이 물 끓는 듯하였다. 대장 깃발이 펄펄 휘날리며 머리에 석자 황명주 수건을 두르고 무릎에도 황명주 수건을 두른 동학군이 총을 든 사람 창을 든 사람이 연습차로 자주 별판에 모이곤 하였다. 우리 일가 어른이신 김수봉씨가 본래 장사로 유명한 분으로 대장기를 들고 총을 추며 횡행하던 것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③ 어느 날 정작 기포가 되었는데, 우리 아버지도 행군 중에 같이 가시게 되었고 삼촌도 가시게 되었다. 대장기 아래 청수를 모시고 주문을 세 번 고성대독하니 그 웅장한 소리는 저절로 강산초목이 움직이는 것 같다. 식이 끝나자 나팔소리를 따라 대군은 움직인다. 저 건너편에서 이인환 본점 행군이 나팔을 불고 서로 응성하여 나간다. 나는 어쩐지 한결같이 가고 싶었다. 오리만큼 따라갔다가 또 아버지 삼촌 할머니가 야단하는 바람에 할머니를 따라서 집으로 다시 돌아올 적에 펑 섭섭하였다.

위에서 김재계는 날짜를 명기하지 않았지만 ①은 장흥전투를 앞두고 대흥면에서 11월 25일 출정기포하기 전에 동학도들이 자주 모임을 가졌다는 이야기이다. ②는 본격적인 회진의 회령진 점령을 준비하기 위한 출정기포 전 단계의 이야기로 회령진 점령을 위해 연습차로 자주 별판에 모였다는 것이다. 갑오년 당시 김재계는 어린 나이였고, 그가 살고 있는 덕도는 회진 회령진 앞의 가까운 섬이었다. ③의 전반부는 당시 총칭해서 내덕도(來德島: 덕산·장산·대리·신상·노력)라는 섬에서 코앞의 회령진성을 점령하기 위해 출발하는 모습이고, 후반부 “저 건너편에서 이인환 본점 행군이 나팔을 불고 서로 응성하여 나간다.” 이하는 대흥면 본대의 농민군과 내덕도(來德島)의 농민군이 회진의 회령진에서 결합한 모습을 회령진 건너편의 덕도에서 바라본 모습을 회상한 이야기이다.

곧 대흥면의 이인환접이 본격적인 장흥전투를 위하여 대흥면 본대와 내덕도(來德島) 농민군의 양진영이 결합하여 회진의 회령진에서 무기획득을 위해 회령진을 점령한 후 이곳에서부터 북상하였다는 추론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대흥면의 이인환접이 회진의 회령진으로 갔던 중요한 추론이 나온다.

대흥면의 이인환접이 기포를 하여 처음부터 행군 방향이 현 회천면이라면 굳이 회진의 회령진성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 갑오년 당시는 현 대덕면 연평리 삼거리 인근 학무등(현 포항저수지) 앞에 까지가 바다였기에 현재처럼 회진면 덕흥에서 관산읍 외동으로 가는 길이 없다. 때문에 다시 학무등 쪽의 삼거리까지 돌아 나와야 한

다. 내덕도 농민군과 합세하여 회천면으로 가려고 했다면 내덕도 농민군이 학무등의 삼거리 쪽으로 나와 같이 가거나 아니면 썰물시 고읍면(관산읍) 수동과 삼산사이에 있는 노두길로 나가면 된다. 여기서 내덕도 농민군이 노두길을 이용해서 곧장 고읍면 쪽으로 나갈 수도 있음을 상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김재계가 전하는 “대장기 아래 청수를 모시고 주문을 세 번 고성대독하니 그 웅장한 소리는 저절로 강산초목이 움직이는 것 같다. 식이 끝나자 나팔소리를 따라 대군은 움직인다. 저 건너편에서 이인환 본접 행군이 나팔을 불고 서로 응성하여 나간다.”는 너무나 가까워서 살펴본 생생한 모습이기 때문에 내덕도 노두길에서 바라본 건너편의 고읍면 노두길 너머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

회진의 회령진성을 내덕도 농민군과 함께 점령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대흥면의 농민군이 회진의 회령진성으로 간 것이다. 이렇게 하여 회령진성을 점령한 후 이인환 대접주이자 장흥전투의 야전사령관인 그가 이끌고 온 대흥집과 내덕도 농민군이 합진하여 고읍면과 남상면을 거쳐 안양면으로 북상을 하여 다시 동진하여 웅치 농민군과 결합하여 회천면의 옛 회령진터로 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면 내덕도 농민군은 어떻게 회령진으로 건너갔을까? 배를 타고 간다고 가정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조그마한 배로 건너려면 수차례 반복해야 하지만 추론건대 내덕도와 회령진 사이에 있는 노두길을 이용했을 것이다. 1872년 정부에서 만든 현 규장각 소장 회령진 지도에 덕도에서 수동으로 이어지는 노두길(石橋)외에도 덕도에서 회진으로 이어지는 노두길이 표시되어 있어 썰물시 노두길(石橋)을 이용했을 것이다. 때문에 김재계의 증언이 생생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이다.(회령진성 지도 참조)

<임태희추기>에서는 “11월 23일 본부(本府) 대흥면에서 적괴가 크게 일어나 적병 천여 명이 곧바로 밀어젓히어(直抵) 인근의 고읍면을 위협하여 군사를 일으킨 다음 새의 날개 치는 소리처럼 연달아 남상면 등을 공격하여 강제로 겁을 주어 군사를 일으켰다.”고 했다. 그러나 고읍면은 김학삼이 단단히 동학의 세력을 틀고 있는 곳이고, 남상면은 이방언 장군의 근거지인데 이곳에서 강제로 군사를 일으켰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고 수성군의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수성군의 방해 속에서 군사를 회동시키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오하기문>에서 말하는 “거회령진, 기중수만(據會寧鎭, 其衆數萬)”을 “농민군 수만 명이 [회천면의] 회령진(會寧鎭)에 웅거하다”로 해석하여 단 한 곳의 회령진에서 한 차례 웅거한 것으로 해석했다. 그 동안 학계에서는 동학농민혁명군이 장흥·강진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을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밀거름이 된 농민군의 막강한 무장력을 간과하였다. 그 무장력은 바로 회진의 회령진성에서 나온 것이다.

아직까지 갑오년 당시의 문헌에는 이인환이 회진의 회령진을 점령하여 무기를 탈취했다는 기록은 없다. 피아(彼我)간에 피를 흘리지 않는 사건이라서 제대로 상부로 보고가 되지 않았거나 입을 다물고 쉬쉬했을 것이다. 그러나 대덕·회진에서 구전으로

만 떠돌던 동학농민군의 회령진성 점령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동학 100주년을 맞이하여 특집으로 엮어진 무등일보의 기사이다. <대덕읍지> 601쪽에서는 이를 무등일보 동학백주년기념특집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재인용하여 도청리 농민군을 중심으로 한 동학농민군 전투기라는 기사를 실었다.

대흥면 연지에서 1894년 9월 10일 기포한 강일오 접주가 인솔한 대열에 참가하여 우금치 전투에 참가하고, 그후 남도접주 이방언이 지휘한 1만여 대부대에 합류하여 12월 10일 강진관아와 병영성을 함락하고, 사기충천하여 차기 전투를 대비 중 이 소식을 들은 관군이 영암, 강진, 장흥의 3개 방면에서 진격해 오므로(이것이 강진 장흥의 급보) 12월 14일 석대에서 혈전을 하였으나 패하고 강일오(姜日五)는 전사하였으며, 이윤창(李允昌), 황보성(皇甫聖), 박태지(朴台之)는 대흥면 선자동에서 완도로 피신준비 중 관군에 체포되어 군동면과 장흥경계 하천변에서 화형 당했다 한다. 이 소식을 들은 후손들은 시신을 거두려고 현지를 가 보았으나 시체를 구별할 수 없어 초혼장으로 장례를 치렀다고 전한다. 아울러 회진 만호진에서 탈취한 무기는 관군에 의하여 만호에 반환되었다고 전한다.

또한 회령진 무혈입성에 대한 기록이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명예회복심의위)”에도 다수 제출되었다.(등록신청서 내용 생략)

이들은 현재 명예회복심의위에서 모두 동학농민혁명 참전자로 인정받았다. 명예회복심의위에는 대덕의 김봉주씨만 회령진성 무혈입성 시기를 12월이라 했고, 나머지는 모두 11월이라 했다. 회진의 회령진 입성의 증언은 또 있다. 당시 16세의 소년 사공으로 수많은 농민군을 구원해 낸 윤성도(尹成道)가 그의 손자 윤병추에게 생전에 들려 준 후일담에도 등장한다.

이인환이 대흥면에서 거행한 출정기포로 인해 장흥동학농민혁명군은 결론부터 말하면 다른 지역의 농민군에 비해 막강한 무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무장력이었다면 공주전투에서도 패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이유는 대흥면에서 이인환 접주를 중심으로 기포하여 곧 바로 회령진성(회진)에 무혈 입성하여 수군(水軍)의 많은 무기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대흥면의 이인환접의 군세는 대구면의 윤세현의 세력이 합세하였고, 지형적으로도 회령진성(회진)을 사방에서 포위하고 있는 형국이었다. 현 대덕읍의 연지, 도청, 신월, 신리 등의 주력 농민군과 회령진의 바로 지근거리 왼쪽에는 덕흥에도 황씨 일가를 중심으로 농민군이 있었고, 바로 정면에는 당시 섬이었던 덕산, 장산, 대리, 신상, 노력 등의 농민군 또한 주력 농민군이 있었으며, 오른쪽 바다로 빠져 나갈려도 이인환 접주의 영향권에 있었던 현 완도군의 금당도와 약산면의 농민군이 있었다. 또한 대흥면과 가까운 거리에는 고읍접이 있었다.

어떻게 장흥동학농민군이 수군 중4품의 만호가 주둔하고 있는 회령진성에 그것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무혈입성에 성공할 수 있었던 말인가? 그러면 회령진의 만

호는 농민군에 호의적이어서 그냥 성문을 열어주고 무기를 내주었다는 말인가? 그럴 가능성도 약간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두황이 일본군 토벌대장 남소사랑(南小四郎)에게 보낸 보고에 의하면 “회령진과 마도진 등지는 적의 종적이 없다고 합니다.”에서 알 수 있듯이 회진의 수군이 농민군을 토벌했다는 기록이 현재까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더 객관적으로 검토해 보면 동학농민군과 대적하여 싸울 군사가 회령진성에 없었기 때문에 쉽게 성을 내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회령진의 설치는 세종 4년(1422년) 지금의 회천면 회령포에 군선을 정박토록 결정한 것이 시초이다.<sup>8)</sup> 회령진의 처음 위치는 현재의 보성군 회천면이다. 그러나 중간에 지금의 장흥군 회진면으로 옮겼는데, 명칭은 그대로 회령진이라 불렀다. 그 이유는 아마 나주 다시면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수군 회진성과 같은 이름을 피하기 위해서인 것 같다.

회령진은 전라좌도(좌수영)에 속하기도 하고 전라우도(우수영)에 속하기도 하였다. 이는 전라좌도와 우도의 경계 상에 위치하는 특성 때문이었다. 지금 회진면 회령진성의 연혁은 성종21년(1490년) 4월에 축조된 만호진성으로 초기에는 병력이 대거 주둔했지만 이후 역할이 조정되어 남해안에 출몰하는 왜군을 방어하고 소탕하는 후방 병참기지였다.

참고로 수군 만호진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왜군의 침략을 막는 군사업무를 수행하지만 그 지역적 특색에 따라 나라에서 주어지는 수행업무가 달리 부여되었음을 다음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해남에 설치된 이진성(북평면)의 역할을 보면 해남읍지에 전선 1척, 병선 1척, 사후선(伺候船) 2척, 만호 1명, 대변군관 12명, 진리(鎭吏) 18명, 사령 6명, 군뢰 2명, 방군 271명으로 왜군침입 방지와 제주도 출입통제 및 제주도 군마(軍馬)와 사마(私馬)를 수송하는 곳의 역할이었다.

무안에 설치된 다경진(多慶鎭)은 다경진지(多慶鎭誌)를 보면 수군만호 1명을 포함, 장교 19명, 진무(鎭撫) 13명, 도인(道引) 5명 등 총 193명이 배치되었다. 영산창(榮山倉)에서 출발한 세공선단(稅貢船團)이 다경진 관할을 통해야만 했기에 나주역도(歷島)에서 영광 소약도(小若島)까지 호송을 책임 맡았다.

회진면의 회령진이 후방병참기지라는 것은 회령진의 병선과 관원의 현황을 보면 알 수 있다. 처음 세종실록지리지 151조 전라도 관반(關防)조에 수록된 수군편제에는 전라좌도 도만호진(都萬戶鎭)인 여도(呂島)관하에 회령진에는 중선(中船) 4척, 별선(別船) 4척, 군사 472명, 초공(梢工) 4명이 주둔했다.<sup>9)</sup> 그러나 세조때 개편을 거쳐 정비된 수군체제 아래에서는 대맹선(大猛船) 1척, 중맹선(中猛船) 1척, 소맹선(小猛船) 2척, 무군소맹선(無軍小猛船) 4척으로 편제가 바뀌었다.<sup>10)</sup>

8) <세종실록>18권 세종 4년 11월 乙丑. 참조.

9) <세종실록> 151 地理誌 全羅道 關防 水軍據置史 左道都萬戶 會寧浦 夾註. 참조.

10) <經國大典> 4 兵典制度 兵船. 참조.

경국대전에는 주둔하는 관원수의 현황이 나타나지 않지만, 장흥읍지에는 전선 1척, 병선 1척, 사후선(伺候船) 1척, 만호 1명, 군관 20명, 장교 6명, 진무(鎭撫) 30명, 통인(通引) 10명, 사령(司令) 16명으로 나타난다. 또한 여지도서(輿地圖書)에는 병선 현황은 나타나지 않지만 만호 1명, 군관 15명, 吏 20명, 지인(知印: 잔심부름을 하던 구실아치) 6명, 사령 12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장흥의 성곽> 2004년. 71쪽에는 “회령진지(會寧鎭誌)에는 열자전선(列字戰船) 1척, 병선(兵船) 1척, 사후선(伺候船) 2척, 만호(萬戶) 1명, 군관 2명, 기패관(旗牌官) 3명, 진무(鎭撫) 15명이다.”로 되어 있다. 1895년 규각장 도서번호 제12188호에 수록된 <호남진지(湖南鎭誌)> 중 “회령진지 사례성책”을 보면 1895년 회령진이 폐쇄되기 직전의 상황을 알려주는 내용들인데, 당시 진사(鎭師)의 상황은 만호(萬戶) 1명, 계청군관(啓請軍官) 1인, 장교(將校) 8인, 진무(鎭撫) 8인뿐이다.

따라서 처음 회령진은 설진할 때는 수군병졸들이 472명이나 주둔하는 대진(大鎭)이었으나, 이후 업무가 조정되어 만호 휘하에는 군관과 군리(軍吏)만 있었고, 수군병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회령진의 평상시 기본업무는 수군만호와 그 휘하는 방어를 위한 해상 수색업무와 유사시에는 하번선군(下番船軍)<sup>11)</sup>이 집결하는 장소의 기지업무를 수행하는 곳이었다. 대개 수군은 병선과 병력이 머무른 곳을 진영(鎭營)으로 삼고 있으나 회령진에는 수군병졸들은 평상시 주둔하지 않고, 군량과 군기를 쌓아두고 있었을 뿐이다. 회령진은 군졸이 없는 병선을 보유하고 있어서, 유사시 하번선군(下番船軍)이 집결하는 장소로 활용됐으며, 또 평상시에는 해상작전을 하는 병선의 기항지인 동시에 보급기지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장흥동학농민군이 회령진성에 입성할 때 이를 방어할 병력이 없어 농민군은 큰 저항을 받지 않고 쉽게 무혈입성 할 수 있었다고 본다. 그리고 병선 기항지로써 군량과 군기를 쌓아두는 보급기지였기 때문에 많은 무기를 쉽게 확보할 수 있었다고 본다. 만약 회령진(회진)에 수군 병력이 다른 만호진처럼 다수 주둔하고 있었다면 병영, 벽사역, 장흥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동안 농민군에 대한 탄압사태가 나왔을 것이다. 또한 석대패전 이후 농민군들이 회령진 수군에 의해 대흥면에서 조사받거나 많이 처형당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기록이나 구전이 없기 때문에 회령진성에 군관과 군리(軍吏)는 있어도 실제로 전투에 나서고 농민군을 체포할 병졸이 없음이 확인된다.

수군(水軍)의 무기는 함포사격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육군의 무기보다 화력면에서는 더 월등하다고 본다. 그래서 당시 병영성의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대포와 화력보다 더 성능이 좋은 대포와 기타 화력 및 군량을 이곳에서 다량으로 확보한 것이 장흥강진전투 승리의 시금석이 될 수 있었다고 본다.

실제로 농민군이 대포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증거는 <장흥군향토지>에서 “부산면

11) 교대 근무를 마치고 나오는 수군이나 군대에 매인 사람이 군영에서 돌림차례가 되었을 때 들어가는 수군.

금자리 자리번지 부산동초등학교 뒤뜰에서 최근 경지정리를 할 때 길이 1.5m 구경 15cm의 대포가 출토되어 그때의 전상을 회상시키고 있다.”고 했듯이 이 대포는 농민군이 일본군과 관군에 의해 진압될 때 우선 증거를 없애고 훗날을 도모하려고 묻어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민군이 보유한 대포 등의 화력은 김방서 부대나 광주, 나주, 화순, 능주 등에서 장흥으로 내려온 부대가 가지고 온 것으로 가정할 수도 있지만 패전하여 쫓기는 부대나 멀리서 이동하는 부대가 추격과 감시의 눈을 피해 장거리를 별다른 운반수단이 없이 농민군이 맨몸으로 대형무기를 소지하고 이동하기란 매우 곤란할 것이다.

흔히 동학농민군하면 죽창으로 무장한 군대로 생각한다. 장흥농민군의 무장에 대해 <장흥군향토지> 83쪽에서도 그렇게 기술하고 있다.

수성군은 탐진강에 걸린 죽교(竹橋)를 파괴하고 성을 고수하였으며, 이 동학군은 붕어창과 기능이 둔한 화승총 죽창 등의 허술한 무장이었으나 사기는 충천하였다. (중략) 죽창 휘두른 소리를 신호로 3방면에서 총공격을 하였다.

우윤 교수는 위의 <장흥군향토지> 기사를 인용하여 농민군의 장녕성 함락을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의 문헌을 보면 장흥동학농민혁명군이 벽사역, 장녕성 등을 함락할 때 죽창을 휘둘러 함락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① 12월 4일 적도들이 방화를 하고 대포를 쏘아 벽사역의 공해(公廨)와 민가의 가옥(民舍)에 불을 지르고 들어왔다. 재와 불탄 고트러기와 연기와 불덩이가 하늘과 성에 가득 넘쳐났다. 모든 사람들의 얼굴빛에 혼백이 달아남이 없지 않았다.<sup>12)</sup>

② 다음 날(12월 5일) 새벽에 부사가 다시 문의 누각에 올라 적진을 바라보니 한방의 대포소리가 들린 다음 적들이 곧바로 북문을 넘었고, 나머지 적들은 사면으로 난입하더니 성안이 불길에 휩싸이였다.<sup>13)</sup>

③ 문공진(文公辰)을 체포하였습니다. 이놈은 장흥부사가 변을 당할 때 포를 쏜 거괴(巨魁)로써 당장 효수하여 경계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려 제멋대로 할 수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sup>14)</sup>

④ 남상면의 김춘배(金春盃), 김영삼(金永三), 이치선(李治先), 고읍면의 손인태(孫仁太) 등 네 놈의 허물은 민인들이 체포하여 바친 자로 울면서 청하기를 원수를 갚게 해

12) 문재국씨 소장 동학문서 <영회단> 참고.

13) 백영직의 <박후의적> 참조.

14) <우선봉일기> 12월 18일조.

달라고 하여 이놈들은 모두 접사(接司), 성찰(省察), 도포수(都砲手) 등으로 현지에서 타살하여 양민의 원한을 씻어 주었습니다.<sup>15)</sup>

이상의 기록에서 보듯이 장흥농민군은 대포 및 다량의 무장을 갖추고 있었고, 대포를 쏘았던 사람이 실명(實名)으로 출전한다. 때문에 <오하기문>에서 “장흥부의 군사 천여 명이 나가 싸웠으나 참패하고 돌아왔다.”고 하여 장흥부의 병력과 병영에서 총 300정과 병력 100명을 보내서도 응치·회천에서 진압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대략 11월 27일쯤에는 응치·회천·흥양 경계에서 농민군이 진을 치고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런데 이 부대는 박기현의 <일사> 11월 28일조부터 30일조에 의하면 적어도 11월 29일까지는 장평면의 흑석장터나 사창으로 넘어가지 않고, 장흥·보성·고흥의 접경인 회천근방에서 머무르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 3-4-3. 이인환의 흥양성 점령과 인부(印符)·병부(兵符) 탈취

장흥·보성·고흥의 접경지역인 현 보성군 회천지역에 진을 치고 있던 이인환이 지휘하는 장흥농민군은 장흥부의 병력과 병영의 병력, 보성 민군의 병력을 물리침이 드러났지만 적어도 11월 27일~11월 30일까지 4일 간은 소규모 접전 외에는 들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강력한 무장을 한 대규모의 농민군 병력이 단지 상대가 되지 않는 병력에 대한 소극적으로 방어만 하면서 3일 이상을 보내고 있었다고 하기에는 무언가 적절하지 못하다.

그렇다고 이 3일 동안 무언가 적극적인 활동을 했다고 드러난 자료가 없고, 단지 황현의 <오하기문>에 “11월 30일에는 보성경계에 까지 추격하였으나 농민군을 발견하지 못해 군대의 추격을 멈추고 돌아왔다.”는 것뿐이다. 그러나 여기서 바로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왜 흥양(興陽: 고흥)현의 인부(印符)<sup>16)</sup>와 병부(兵符)<sup>17)</sup>가 장흥 농민군 수중에 있었는가 하는 실마리가 그것을 풀어 줄 수 있다고 본다.

흥양(興陽) 동학농민혁명사에 관한 그간의 기록 어디에도 인부와 병부를 장흥농민군에 탈취 당했다는 기록을 <우선봉일기> 외에는 찾을 수가 없다. 장흥부의 인부는

15) <우선봉일기> 12월 24일조.

16) 관인(官印)으로 정부 기관에서 발행하는, 인증(認證)이 필요한 문서 따위에 찍는 도장으로 청인(廳印: 관공서를 나타내는 도장)과 직인(職印: 직무상 쓰는 도장으로 직위 명칭에 ‘인’ 자를 붙인다.)이 있다. 도장이나 관인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는 인신(印信)이라고 한다.

17) 병부(兵符)는 조선시대 때 군대를 동원하는 표식으로 쓰이던 둥글납작한 나무패를 말한다. 한 면에 “발병(發兵)”이란 두 글자를 쓰고 또 다른 한 면에 관찰사(觀察使), 절도사(節度使) 부사(府使) 등의 이름을 기록(記錄)한 다음 가운데를 쪼개어 오른쪽은 그 책임자에게 주고, 왼쪽은 임금이 가지고 있다가 군대를 동원할 필요가 있을 때, 임금이 교서와 함께 그 한 쪽을 내리면, 지방관(地方官)은 두 쪽을 맞춰보아 서로 맞으면 군대를 동원하여 주는 표식을 말한다.

12월 5일 장흥부가 함락 당하면서 인부가 사라졌다는 것은 그 당시부터 곧바로 관에서도 파악하고 있었다. 때문에 관군은 인부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장흥의 인부에 대해 최초의 정보를 탐색한 사람은 12월 24일 소모관 백낙중으로 웅치접주 김창환(金昌煥)과 남면접주 고응삼(高應三)을 취조하는 과정에서 장흥읍의 인부 위치가 단지 감옥에 있는 죄인에게 있다는 형세를 탐지해 내고, 이를 즉각 이두황에게 보고했다.

그런데 12월 28일 장흥뿐만 아니라 홍양의 인부까지도 장흥의 이인환이 탈취해갔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찾도록 하여 단지 장흥과 홍양의 병부만을 찾아내고 인부는 찾지 못했지만 홍양의 병부는 곧바로 홍양으로 돌려 보내주었다. 농민군 김희도(金希道)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장흥과 홍양의 인부가 용계면(부산면) 용반 이정실(李正實)의 집에 숨겨져 있는 사실을 밝혀내고 12월 29일 장흥과 홍양의 인부를 찾아냈다. 곧바로 홍양의 인부는 홍양으로 돌려주었다. 홍양의 인부와 병부가 제 발로 걸어 장흥으로 오거나 홍양의 관리들이 농민군에게 손수 바쳤을 리 만무하기에 이 홍양의 인부와 병부가 어떻게 이인환에게 탈취 당하여 한 달 정도 장흥 농민군의 수중에 있게 되었는가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이다.

홍양에 대한 동학농민혁명사는 <전남동학농민혁명사>에서 두 쪽 분량을 넘지 못하며, 1894~1895년에 10여 차례에 걸쳐 농민군이 쳐들어 왔다고 기록하고 있다.

<전남도지> 6권 201~202쪽에서 10줄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당시 진압기록인 <동학난기록><sup>18)</sup> 상권 653~654쪽, 677~680쪽, 689쪽에 조금 나온다. <우선봉일기>에서는 홍양 농민군 토벌에 대한 상세한 보고가 홍양으로부터 늘 접수되어 기록되지만 어떻게 해서 홍양의 인부와 병부가 장흥농민군에게 탈취당하여 넘어오게 되었는가에 대한 기록이 없다. 단지 장흥과 홍양의 인부를 빼앗아 간 사람이 체포된 온갖 농민군을 취조하여 이인환이라는 조사결과만 기록되어 있다.

<전남동학농민혁명사>에서는 “1895년 음력 정월 초 농민군 지도자 유복만이 대거 1천여 명의 농민군을 인솔하고서 성밖의 동북쪽 두 개의 산에 진을 쳤다. 이에 수성군이 산 아래에 내달아 포위하려 하자, 농민군은 곧바로 해산하고 말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사료총서 15권에 영인된 <우선봉일기> 251쪽에는 “금월(12월) 4일 동도 천여 명이 본현 동북 2개 산을 나누어 점거하여 성을 넘보고 있는 형세여서 서문과 북문을 닫고 남문을 열어 포병을 인솔하고 산 아래로 군대를 나눠 울타리를 설치하자 토벌하려는 기미를 알고 해산하였다.”는 기록으로 앞의 기록과 거의 일치하지만 날짜가 틀리는데 <우선봉일기>의 날짜가 맞을 것이다. 음력으로 1월에는 홍양의 농민군 토벌이 이미 다 끝난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선봉일기>에서 홍양현이 어떻게 장흥의 농민군에게 인부와 병부를 빼앗겼다는 기록은 없다. 그렇지만 홍양의 인

18)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상하권으로 1971년에 이규태진영의 기록인 <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 13~14권에 있는 순무선봉진등록(巡撫先鋒陳騰錄)을 위주로 번역한 책이다.

부와 병부가 이인환이 빼앗아 갔다는 소모관의 조사에 의해 사실로 밝혀졌다.

이 병부와 인부를 장흥에서 찾아낸 사람은 백미 2석의 포상을 받았으며, 홍양현에서는 병부와 인부를 잘 수령했다는 보고를 이두황에게 올린 기록으로 봐서는 인부와 병부를 장흥농민군에게 탈취당한 것은 사실이다. 장흥에서 홍양현의 인부와 병부를 찾아낸 이 불가사의한 사건으로 인해 곧 이인환의 홍양성 점령이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은 현재 홍양의 인부와 병부가 장흥의 이인환에게 넘어갔다는 결론에 의해 추론해 낼 수밖에 없지만 이인환의 대홍접을 주축으로 한 웅치점에 홍양점 등이 가세하여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농민군이 적어도 홍양성을 일시적으로 함락하여 관아의 인부와 병부를 빼앗았다. 이인환은 그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곧바로 장흥으로 돌아 왔는데, 이후 홍양의 농민군이 또다시 수성군에게 성을 내주었다는 가설 정도는 충분히 세울 수 있다.

이 부분은 향후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결론은 동학농민혁명사에서 새롭게 등장한 확실한 역사적 사건이다. 때문에 <우선봉일기> 을미년 1월 29일조에 토벌을 끝내고 서울을 향해 귀대하던 이두황에게 군무아문이 “죽산에서 보발이 와서 군무아문 제사(題辭) 4개를 바쳤는데, 장흥·홍양의 인신(印信)을 조사하여 찾아낸 것에 대한 제사(題辭) 내에 적의 우두머리를 차례를 체포하고, 양 읍의 인부(印符)를 또한 조사하여 찾아낸 것은 극히 다행스럽고 기쁜 일이라고 운운했다.”라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본고는 장흥을 중심으로 한 전개이기 때문에 홍양의 동학농민혁명을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하지만 홍양은 8월부터 아전을 중심으로 한 여도(呂島), 녹도(鹿島), 발포(鉢浦), 사도진(蛇渡鎭) 등의 고흥관내에 주둔하는 수군들이 일부 지원 나와서 수성을 하고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홍양성은 그 동안 강력한 군사력에 의해 방어되었던 곳인데, 이인환의 대홍접에게 일시적으로 무너지고 만 것이다. 그러면 언제 이인환이 홍양성을 점령하여 인부를 빼앗아다는 것인가? 이는 위의 홍양농민군의 12월 4일 홍양성 진입 시도 때는 분명 아닐 것이다. 이날은 장흥에서 벽사역을 점령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인환이 홍양성 관아를 점령한 날은 장흥·보성·고흥 경계에 있을 때인 즉 11월 27일에서 30일 사이일 것이다.

필자가 추정하기로는 이인환이 홍양현을 점령하기 위해 도선을 한 장소는 회천에서 도선하기 보다는 현 보성군 득량면 해평리의 해창산 인근에 있는 보성관아 소속 해창의 관선 등을 이용하여 도선한 것으로 보인다. 12월 19일 부산수비대가 웅치의 구교철 부대를 해창산에서 토벌하는 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1월 14일(음력: 12월 19일) 어젯밤에 얻은 정보에 따라 중대(4분대 나머지를 이끌고 해창산으로 갔는데 동학도는 이미 아군이 오는 것을 알고 이날 밤 사방으로 흩어져 있지 않고, 겨우 11명의 잔당을 잡았다. 그러나 산상에서 바로 준공직전의 가옥 네 채를

발견하였다. 어쩌면 동학도가 모여 살기 위한 것으로, 이에 후일을 생각하여 모두 부숴 버렸다.(출처: 二六新報; 동학당토벌공보)

해창산은 높지는 않지만 천혜의 요새와 같은 험준한 산으로 일본군이 “준공직전의 가옥 네 채를 발견”하였다는 것은 이미 이전에 상당히 공사를 해 놓았다는 뜻으로 이 준공직전의 가옥 네 채는 아마 이인환이 홍양현을 점령할 당시 혹은 진지로 사용하기 위해 지은 집이 아닌가 의심된다.

홍양성을 한때 점령하여 관아의 인부와 병부를 빼앗은 이인환은 곧바로 회천·웅치로 돌아와 웅치면의 윗 강산리와 보성읍의 아래 강산리 사이의 재를 넘어 12월 1일 장평 사창으로 집결했다. 이 과정에서 홍양의 농민군 일부도 합류하였을 가능성도 있지만 천여 명의 홍양농민군은 12월 4일 즉 장흥의 농민군이 벽사역을 함락할 때, 홍양성 입성을 시도한 것으로 보아 그후 장흥성이 함락 당하자 대거 장흥으로 합류했을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인환과 관련하여서 새롭게 제기하는 문제는 곧 11월 25일 대흥면에서 출정기포한 후, 이후 회진의 회령진성에 무혈 입성하여 여기서 다량의 무기와 군량을 확보한다. 이후 웅치의 구교철과 합세하여 회천면의 옛 회령진성에서 회진면의 회령진성에서 확보한 다량의 화력 좋은 무기와 사기충천한 농민군의 결연한 의지를 바탕으로 하여 장흥부 병력, 병영의 병력, 보성의 민병 등의 공습을 가볍게 물리쳤다.

또한 11월 27일서 30일 사이에 홍양성을 일시적으로 함락하여 인부와 병부를 빼앗아 돌아와 강산리의 재를 넘어 다시 이방언 장군이 이끌고 온 광주·화순·능주·금구 등의 부대와 장평면 사창에서 12월 1일 합류한다. 이어 장흥읍으로 진격하여 12월 3일 장흥부의 사면을 포위하는 진을 친 후, 벽사역·장녕성·강진현·병영성 전투를 모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인데, 홍양현·벽사역·장녕성·강진현·병영성 전투 승리의 밑거름은 회진의 회령진성에서 확보한 다량의 무기라는 것이다.

이인환이 이러한 거물이기에 그의 부인도 벽사역에 체포당하였고, 그를 검거한 기형군관(譏誦軍官) 김범기(金範基)는 백미 3석을 포상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인환은 이두황의 지시로 1895년 1월 14일 밤에 보이지 않게 묶여 나주 일본군 대대로 압송당한 후 1895년 3월 3일 나주에서 장흥의 동지 최신동, 문공진, 이득춘과 함께 처형당한 것이다. 이러한 이인환 대접주야 말로 대접주를 넘어 삼국지로 말하면 이방언 장군이 유비라면 그는 청룡도를 휘두르는 관우나 재갈공명(諸葛孔明)이었던 것이다.

### 3-4. 농민군 수만명 장평면 사창에 집결

이인환 구교철의 농민군은 홍양현을 점령한 다음 회천·웅치를 거쳐 강산리의 재를

넘어 12월 1일에는 장평면 사창으로 옮긴다. 이와 관련하여 문재국씨의 소장문서 <영희단>에서 구교철의 웅치면의 기포와 대흥면에서 이인환의 기포가 즉자적(卽自的)인 기포가 아니라 군사를 일으켜 장차 나주로 향하고, 강진으로 향하기로 이방언, 이인환, 구교철 등과는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계획이었음을 이방언 장군의 입을 통해 말해주는 중요한 문서이다.

12월 1일 적도들이 보성으로부터와 사창등지에 주둔하였는데, 대접(大接)은 만여 명이고, 소접(小接)은 2~3천명으로 금구 거괴 김방서(金方瑞), 화순 괴수 김수근(金秀根), 능주 괴수 조종순(趙鍾純)이 함께 군대를 통솔하고 당도했다. 이때 이방언이 급하게 군대를 일으킨 [연유를] 말하기를 “장차 나주로 향하고, 강진으로 향하기로 이인환 구교철 등과 더불어 숙계(宿計: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계획)를 이미 도모하였다.”고 하여 박후(朴侯: 박현양)를 고통스럽게 했다. 구교철의 역명(逆命)과 이방언의 흉계로 인해 수성의 절개가 날로 더욱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날마다 성을 경계하는 노고가 따랐지만 장졸들의 인화(仁化: 인덕의 감화)가 베풀어져, 읍촌의 백성들은 감격 분발하여 일전(一戰)을 펼쳐 충성을 받치려는 생각이 일어났다.<sup>19)</sup>

이상을 결론지어 정리하면 이인환과 구교철은 이방언 장군과 오래전부터 긴밀한 연락 속에 숙계(宿計)를 통해 꺼져가는 동학농민혁명의 불씨를 되살리고, 그 동안의 농민군의 무기 열세로 인한 패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무장력이 필요함을 실감하기 때문에 회진의 회령진을 점령하였던 것이다. 또한 이인환의 차분한 대흥면 기포를 돕기 위해 장흥부사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구교철은 11월 21일 미리 웅치면에서 수천 명을 모아 기포하여 장흥부사와 강진 병영군으로부터 한때는 곤욕을 치렀지만 이인환의 기포를 완벽하게 성공시키는데 큰 일조를 한다.

이인환이 대흥면에서 출정기포한 후 구교철의 웅치농민군과 합세하여 곧장 장흥부로 가지 않고 보성과 가까운 장흥의 외곽인 회천면에서 1차로 진을 친 것은 평가하자면 탁월한 전략이다. 보성군은 많은 군대가 없고, 보성군수 유원규(柳遠奎)는 1차 기포에서부터 일본군과 경군이 진압을 하려 내려오기 전까지 동학농민군에 우호적이었다. 하지만 진압군이 내려오면서부터는 돌변하여 농민군 탄압과 진압에 솔선했지만 농민군에 협조했다는 죄목으로 경성까지 끌려가는 재판에서 무죄 방면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때까지는 농민군 진압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지리적인 전략상 회천면에서 웅치면과 보성군을 통해 장평면으로 넘나드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었다.

만약 이방언 장군이 나주·광주 전투 후 이끌고 온 금구의 김방서 부대, 화순의 김수근 부대, 능주의 조종순 부대 등과 합류하지 않고, 곧장 장흥부로 진로를 선택했다면 장흥부의 수성군과 병영의 연합부대와 초반전부터 대충돌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인환은 장흥의 외곽과 홍양현을 점령한 후 다시 김방서 등의 구원부대

19) <사료총서> 8권 「영희단」 341~342쪽 참조.

와 특히 북진했던 이방언 장군이 나주, 광주, 화순, 동복 등에서 패배한 잔류부대를 수습하여 내려오는 시기에 맞추어<sup>20)</sup> 12월 1일 장평면 사창에서 이들을 맞이하여 12월 3일에는 장흥읍 평화, 건산 후등, 벽사역 뒤 평원, 행원 일대에 진을 치고 본격적으로 장흥부 공격을 위해 사방을 포위하고 있었다.<sup>21)</sup>

12월 1일 장평면 사창에서 이방언 장군과 금구, 화순, 능주 등의 지원부대를 맞아 들어 장흥동학농민군은 대부대를 이룬다. 이방언 장군의 총지휘 아래 이인환의 야전(野戰)지휘 체계를 갖추어 최후의 격전을 벌이게 될 장흥동학농민군은 12월 3일에는 장흥읍 건산, 평화 일대에 진출하여 진을 치고 본격적으로 장흥부 공격을 위해 사방을 포위하면서 일전(一戰)의 전운이 감돌고 있었다.

#### 4. 장흥농민군이 대승리한 최후전투

##### 4-1. 서론

12월 1일부터 장흥의 동학농민군은 지원부대의 합류로 대부대의 진영을 갖춘 후 지휘체계 및 치밀한 전략과 전술을 갖추어 12월 3일 남도의 응도 장흥부를 사방에서 포위하여 12월 4일 벽사역, 12월 5일 장흥부, 12월 7일 강진현, 12월 10일 병영성 등을 차례로 점령했던 1주일간의 갑오년 당시의 정부의 진압기록이 너무나 빈약하다. 반면 구례의 황현, 장흥유생들의 기록 등은 비교적 풍부한 편이다. 관련기록 등을 종합하여 장흥농민군의 최후전투 승리를 요약하여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 4-2. 사창에서 장흥읍으로 이동 중 충돌(12월 2일)

12월 1일 장평면 사창에서 농민군이 집결하여 12월 3일 장흥읍으로 입성했다는 기록은 위에서 붓물처럼 쏟아졌지만 그 사이인 12월 2일의 상황을 전하는 기록이 전혀 없었다. 박헌양 부사의 성격으로 보아 그냥 보고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기록이 없었으니, 농민군은 무탈하게 장흥읍으로 입성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않았다.

20) <오하기문>에서는 11월 26일 이방언 장군이 이인환, 이사경, 구교철 등과 회령진을 점거하였다고 했지만 본서에서 이미 <영회단>을 통해 장흥에 있지 않음이 확인되었고, 북진대열에서 남하하여 나주·광주 전투 등에 참여한 후 그 잔류부대를 수습하여 장흥으로 데리고 내려온 것으로 본다. 전남대의 이상식 명예교수와 정읍의 향토사학자 최현식 선생도 필자와 같은 견해이다.

21) <임태희추기>에서는 “12월 3일 금구, 태인, 고부, 남원 등 열읍(列邑)에서 흩어진 동학당 한 부대는 본부(本府) 건산(巾山)에 진을 치고, 또 한 부대는 평화에서 진을 쳤으며, 가까운 읍의 적도들도 함께 상응하여 본부(本府)의 사면(四面)에서 결진하여 적병은 수만인데 관군의 대열은 오히려 2,000명 미만이었다.”라고 했다.

12월 2일 어느 곳인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장흥부의 수성군과 출동했다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기록이 <우선봉일기> 12월 19일조에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장흥에 거주하는 죄인(罪人) 백낙인(白樂寅) 백회인(白會寅)이 우선봉에게 올린 글에서 “소생의 부친은 장흥부 수성패장(守成牌將)직을 수행하다 금월 초 2일 동학도에게 살해되었습니다.” 등을 수록하여 달려와 빌며 복걸하였다. 답하기를 “글을 읽어보았다. 장차 사람의 아들로 거친 슬픔을 이기지 못하며, 이미 종군하여 복수를 원하니 금일 특별히 향도(鄉導)의 임무를 허락하니 공을 세우도록 하라.”고 했다.

수성패장(守成牌將)직을 수행했다는 것은 동학당 토벌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이고, 12월 2일 동학도에게 살해되었다는 것은 농민군이 사창에서 장흥읍으로 넘어올 때 수성패장이 이를 토벌 하다가 오히려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패장(牌將)이란 본래 관아(官衙)나 일터의 일꾼을 거느리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일명 패두(牌頭)라고도 한다. 때문에 백낙인(白樂寅) 백회인(白會寅)의 아버지는 휘하의 수성군을 거느리고 사창에서 장흥읍으로 넘어오는 농민군을 어느 곳에서 저지하거나 토벌하려다가 당연히 상대가 되지 않아 죽음을 면치 못한 것이고, 패장(牌將)이 죽었다면 혼자서 죽지 않고 그를 따랐던 수성군 또한 희생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12월 2일의 수성패장의 죽음 곧 패배로 인해 12월 3일 농민군이 장흥읍을 사방에서 에워싸고 있어도 <박후의적>이 전하는 “부사가 동문 위 누대에 올라가 적도들을 바라보니, 불꽃이 더욱 세어지기에 좌우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적들이 저리하는데도 일전에 병영에 군사를 청했지만 당도하지 않는 일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구나.’하면서 탄식이 일어남이 그치지 않았으며, 좌우 또한 분노를 느껴 눈물을 흐르지 않음이 없었다.”의 상황에 이른 것이다.

#### 4-3. 장흥전투 출정전야(12월 3일)

이른바 우리 역사에 동학농민혁명 최후의 전투라 불리는 장흥전투는 어느 날 몇 사람에게 의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농민군은 삼남도교장 이방언 장군을 총대장으로 대흥대접주 이인환을 야전지휘 사령관으로 삼아 장흥부의 동서남북을 에워쌀 수 있게 크게 4개의 부대로 대진(大陣)을 꾸린다.

보부도 당당하게 대장기(隊長旗), 접기(接旗), 구국항왜(救國抗倭), 제폭구민(除暴救民), 보국안민(輔國安民), 광제창생(廣濟蒼生) 등의 깃발 등을 휘날리며 장흥읍으로 입성하는 도중 장흥부의 수성패장(守成牌將)의 제지를 가볍게 물리치고 12월 3일 장흥읍으로 입성한 기록을 살펴보자.

- <박후의적>: 적도의 무리가 봉기하여 흑 평화와 송정등(松亭磴)에 주둔하고, 흑 건산의 모정등(茅征嶺)에 주둔하고, 흑 벽사 뒤의 평원에 주둔하고, 흑 행원 앞의 평원 주둔하고 있었다. 이는 이른바 [장흥부의] 국면의 형세가 사방이 약하기 때문에 사면(四面)을 적이 쓰고 있는 것이다. 이때 부사가 동문 위 누대에 올라가 적도들을 바라보니, 불꽃이 더욱 세어지기에 좌우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적들이 저러하는데도 일전에 병영에 군사를 청했지만 당도하지 않는 일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구나.”하면서 탄식이 일어남이 그치지 않았으며, 좌우 또한 분노를 느껴 눈물을 흐르지 않음이 없었다.

- <영희단>: 많은 적들이 곧바로 성밖으로 이르렀다. 이방언은 평화 송정등(松亭磴)에 진을 치고, 이인환과 구교철은 건산 후등에 진을 치고, 김방서 등은 벽사 뒤 평원에 진을 치고, 이사경 등은 행원 앞 평원에 진을 치고 있었다. 그 세력이 바람과 천둥소리와 같아 [관군은] 장차 싸움에 저서 흩어져 달아날 것 같았다. 이때 박현양 부사는 동문위에 올라 적의 형세를 바라보면서 심히 가득히 좌우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적의 세력이 이와 같아 저쪽 이웃(병영)에 구원을 청했는데 도달하지 않아 적을 무찔러 죽여 없앤 다음에 막아내기가 어렵게 됐구나. 맹세코 이 적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고 하며, 하늘의 해를 머리에 이고 한 숨을 쉬며 탄식을 일으키니, 좌우에서도 분노를 느껴 눈물을 흐르지 않음이 없었다.

- <임태희추기>: 금구, 태인, 고부, 남원 등 열읍(列邑)에 흩어진 동학당을 소집하여 한 부대는 본부 건산(巾山)에 진을 치고, 한 부대는 평화(平化)에 진을 치고서 가까운 읍의 적도들이 또한 상응하여 본부 사방에서 결진을 하여 적병은 수 만 명이고, 관군의 대열은 오히려 2,000명 미만이었다.

12월 3일의 모습을 가장 생생하게 전한 <영희단>의 기록처럼 이방언 장군은 평화 송정등(松亭磴)에 진을 치고, 이인환과 구교철은 건산 후등에 진을 치고, 김방서 등은 벽사 뒤 평원에 진을 치고, 이사경 등은 행원 앞 평원에 진을 쳐 장흥읍을 사면(四面)으로 포위하고 있었다. 이때 양측의 형세는 농민군은 벌써 수 만 명이었고, 관군의 대열은 2,000명 미만이라고 <임태희추기>는 전한다.

동문 위 누대에 올라 적도들을 바라보는 부사의 심정이 <박후의적>과 <영희단>에 너무나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사방에서 피어내는 농민군의 불꽃만으로도 수성군의 입장에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수밖에 없었고, 부사의 한 숨과 탄식은 좌우에서 눈물을 흐르게 했다. 장흥농민군은 장흥전투의 전야를 맞기까지 11월 21일부터 13일간을 수 백리를 행군하면서 풍찬노숙(風餐露宿)<sup>22)</sup>을 하였으니, 일전의 결전의 의지가 수성군과는 정반대로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

22) 바람과 이슬을 맞으며 한데에서 먹고 잔다는 뜻으로 “모진 고생”을 이르는 말.

#### 4-4. 벽사역 함락(12월 4일)

2,000여명 이상의 관원, 역리, 역졸, 역노비 등이 있는 벽사역이라지만 지난 3월 이용태 부사의 고부 안핵사 만행사건에 800여명의 역졸들이 출정하여 지은 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다. 장흥부처럼 장녕성(長寧城)이라는 성곽이 없는 벽사역으로서는 의지할 곳이 없어 농민군이 벽사역으로 쳐들어오기도 전에 벽사역을 비워놓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이때 벽사역 찰방 김일원이 벽사역을 방어하는 모습은 문헌에 전하지 않지만 김일원이 병영과 나주로 가서 구원을 청하는 모습이 <순무선봉진등록> 12월 8일조와 9일조에 거의 비슷하게 다음과 같이 전한다.

행벽사도찰방(行碧沙道察訪)이 보고합니다. 동비 1,000여 명이 장흥(長興) 사창 등지에 모였다가 이달 초 4일 진시(辰時: 오전7~9시) 경에 이르러 곧바로 벽사역(碧沙驛)으로 침입하여 관아와 여염집에 모두 불을 지르고 장흥부(長興府)로 향하였습니다. 거주하는 백성들은 흩어지고 우관(郵官)의 힘으로는 막을 계책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찰방이 병영(兵營)으로 말을 달려가 대면하여 [동학농민군을] 토벌할 수 있는 방법을 사유를 갖추어 요청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병사(兵使) 사또가 분부한 내용에 “비류가 영문(營門) 가까이까지 닥쳤음에도 방어하는 군사를 진영에서 풀어내기가 매우 어려우니 지금 이러한 사유를 가지고 나주 초토영에 가서 고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토영에 가서 역시 답답함을 고하니 분부하는 내용에 “나주의 군대를 일으킬 계획이니 역시 이런 사유를 가지고 주력 부대로 가서 여쭙어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찰방인 제가 이미 면대하여 여쭙었거니와 비류가 장흥성(長興城)으로 침입하여 점거하고 부사를 핍박하니 그의 목숨이 조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동학농민군이] 함부로 날뛰며 겁탈하고 노략질하여 역에 사는 백성들이 도망가고 사방으로 흩어져서 400여 호가 텅 비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찌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장군 월하(鉞下)의 군병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동학농민군을] 토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답답하고 절박한 사정을 외람되이 보고하니, 특별히 처분을 내려주셔서 경군 몇 100명을 출동하여 읍과 역의 놀라서 흩어진 백성들로 하여금 전처럼 안도하게 해 주십시오.

답변에 이러한 소식을 들으니 매우 경악스러워 잠시도 머뭇거릴 수가 없다. 마땅히 각처로 파견한 휘하의 군대를 즉시 수습하여 출동하겠다.

<박후의적>과 <영회단>에서 4일 벽사역이 함락된 모습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박후의적>: 적도들이 먼저 벽사역의 공해(公廩)와 민가의 가옥(廬舍)에 일부러 불을

질러 없앤 후 들어왔다. 재와 불탄 고트러기가 성에 가득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얼굴빛에 혼백이 달아남이 없지 않았다.

<영희단>: 적도들이 방화를 하고 대포를 쏘아 벽사역의 공해(公廩)와 민가의 가옥(民舍)에 불을 지르고 들어왔다. 재와 불탄 고트러기와 연기와 불덩이가 하늘과 성에 가득 넘쳐났다. 모든 사람들의 얼굴빛에 혼백이 달아남이 없지 않았다.

장홍읍 사방을 수 만 여명 이상의 농민군이 포위하고 있었지만 4일 새벽 벽사역을 치기 위해 동원된 농민군은 고작 1,000여명으로 그 부대가 어느 부대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아마 <영희단>에서 “이인환과 구교철은 건산 후등에 진을 치고, 김방서 등은 벽사 뒤 평원에 진을 치고”로 보아 이 부대에서 일부가 출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12월 4일 진시(辰時: 오전 7시~9시) 경에 그동안 기세 높았던 벽사역이 무너지는 모습은 참으로 싱겁다. <박후의적>은 “적도들이 먼저 벽사역의 공해(公廩)와 민가의 가옥(廬舍)에 일부러 불을 질러 없앤 후 들어왔다. 재와 불탄 고트러기가 성에 가득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얼굴빛에 혼백이 달아남이 없지 않았다.”고 전한다.

<영희단>은 “적도들이 방화를 하고 대포를 쏘아 벽사역의 공해(公廩)와 민가의 가옥(民舍)에 불을 지르고 들어왔다. 재와 불탄 고트러기와 연기와 불덩이가 하늘과 성에 가득 넘쳐났다. 모든 사람들의 얼굴빛에 혼백이 달아남이 없지 않았다.”로 전한다.

또한 <우선봉일기> 12월 20일조에서는 “벽사역은 절반 이상이 불에 타버렸다. 벽사 찰방 김일원(金日遠)이 현지에서 아뢰기를 찰방의 아들은 16살인데, 적도에게 해침을 당했다고 한다. 벽사역에서 머물러 묵으려고 했으나, 불타고 남은 집들이 협소하고 음식물을 조달하는 것이 실제로 어려웠다.”에서 보듯 <순무선봉진등록>에서 김일원이 말한 “관아와 여염집에 모두 불을 지르고”는 사실이 과장되었다.

농민군은 힘들이지 않고, 벽사역을 단숨에 쓰러버려 지난 3월 벽사역졸 800여명의 고부만행에서부터 농민군이 장홍읍으로 들어오기 전까지의 벽사역의 농민군 탄압을 유감없이 응징한 것이다.

농민군과 싸워보지도 못하고 벽사역을 일방적으로 내준 벽사찰방(碧沙察訪) 김일원은 12월 3일 농민군이 장홍읍의 사방을 포위하면서 진을 치고 있을 때 이미 놀라 그는 벽사역을 버려두고 구차하게 곧장 장녕성으로 피신을 했다. <박후의적>은 “이때 벽사역의 찰방 김일원도 역시 와서 성을 지키고 있었는데, 병영으로 구원을 요청하려 간다면서 아침 일찍 성문을 나갔기 때문에 자신은 구차하게 화를 면함을 얻었다 (중략) 찰방의 처자들도 역시 몸이 장홍부의 성안에 있었다.”라고 전한다. <영희단>은 “벽사 찰방 김일원도 역시 같은 시간에 수성을 하면서 병영에 구원병을 청하

는 일로 아침 일찍 성을 벗어나 나가면서 그 처자를 성 안에 두었다.”라고 전한다.

이렇게 구차하게 4일 아침 일찍 장녕성을 빠져나간 김일원은 병영의 병사 나주의 초토사를 면대하고 이어서 토벌부대를 찾아가 구원을 요청한 후 그는 소모관 백낙중과 함께 조일(朝日)연합군의 장흥토벌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맡아 장흥으로 토벌군을 안내했다는 공로로 후에 “겸임행벽사도 찰방 김후일원 청사(請師)불망비”라는 비(碑)를 얻어 지금은 영회당 위편에 쓸쓸히 남아 있다.

#### 4-5. 장녕성 함락(12월 5일)

##### 4-5-1. 장녕성 함락전야

12월 3일 농민군이 장흥읍 사방을 에워싸고 기세를 올릴 때부터 부사는 수성(守城)을 위해 전전공궁했다. 12월 4일 아침에 벽사역이 1,000여명의 농민군에 의해 단숨에 무너지는 모습을 동문의 누대에서 지켜본 부사는 이제 수 만 여명의 농민군이 장녕성을 칠 것을 예상하면 얼굴빛에 혼백이 달아날 만도 했다. 부사가 12월 4일 낮 동안 어떻게 수성에 대비했는가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4일 밤의 기록은 또렷하게 전한다.

<박후의적>: 이때 밤에 부사는 성을 순시하면서 동문 누각에 이르렀을 때 기실(記室) 박공(朴公: 박영수)도 역시 부사 뒤를 종종걸음으로 따라 나섰다. 적이 사방에 이르러 성을 업신여기며 대포를 쏘 그 소리가 하늘로 높이 솟았다. 통인(通引)과 시종(侍從)이 더 붙어 청하며 말하기를 “성이 불행하니 가까운 곳에서 잠시 몸을 낮추고 계시라고 했다.” 부사가 말하기를 “일이 급박하게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내가 마땅히 성을 넘어 삶을 도모하기 위해 내 어찌 구차하게 [난리를] 면하려 하겠느냐?”고 하며, 한숨을 쉬며 분개함이 일으켰다. 대개 그 명(命)을 밀어붙여 뜻이 단단함에 이르러 재앙과 환난에도 그 마음을 움직임이 궁색하지 않았다. 만약 지혜가 뛰어나지 않았다면 어찌 이와 같이 할 수 있었겠는가?

<영회단>: 이때 밤에 박부사는 성을 순시하면서 동문 누각에 이르렀을 때 기실(記室)인 박공(朴公: 박영수)도 역시 뒤따라 나섰다. 적도들이 사방으로 이르러 운집하여 대포를 쏘 포성이 하늘로 높이 솟았다. 부사가 수성하는 이민(吏民)을 불러 말하기를 “일이 이 지경에 이르러 묘수가 없는 즉 운명이다. 너희들은 참된 마음의 정성으로 성을 고수하고, 오늘 위험이 닥쳐오더라도 [몸을] 보전하는 것을 바라지 않음이 이와 같음에 이르렀는데 내가 마땅히 성을 넘어 삶을 도모하기 위해 내 어찌 구차하게 [난리를] 면하려 하겠느냐?”고 하면서 한탄하면서 갑자기 눈물을 흘렸다.

벽사찰방 김일원(金日遠), 강진현감 이규하(李奎夏), 병영병사 서병무(徐丙懋)와는 사뭇 달리 박현양 부사는 성을 빠져나가지 않고, 죽음을 예견하면서도 농민군의 도강(渡江)을 막기 위해 동문 앞에 있는 탐진강의 죽교(竹橋)를 부수면서까지 수성을 하는 모습자체는 목민관으로서 책임을 다한 훌륭한 모습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12월 3일 농민군이 장홍읍의 사방을 에워싸고 기세를 올린 때부터 장녕성 안으로 많은 부민(府民)이 난을 피해 들어왔다. 그 안에는 벽사역을 거저 내준 벽사역원들도 수성을 한답시고 찰방 김일원을 따라 대거 들어왔다.

4일 벽사역을 단숨에 점령한 농민군은 장녕성을 점령하기 위해 <장홍군향토지>는 “이방언 접주가 거느리고 남하했던 장홍지방 동학군은 유치 빈재와 장평으로 넘어와 관군의 아성인 장녕성을 에워싸고 포진하였다. 용반접은 부산면 “자라번지”에다 500여명으로 포진하였고 웅치접은 “미륵번데기” 곰제산 밑에 1,000여명으로 포진하였으며 어산접은 용산면 묵촌에 1,000여명으로 포진하여 장차 장녕성을 함락할 용세를 취하였다.”고 전한다. 12월 3일 <영희단>이 전하는 “이방언은 평화 송정등(松亭磴)에 진을 치고, 이인환과 구교철은 건산 후등에 진을 치고, 김방서 등은 벽사 뒤 평원에 진을 치고, 이사경 등은 행원 앞 평원에 진을 치고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12월 4일 농민군은 벽사역을 이미 점령하였기 때문에 장녕성을 향한 포위망은 더욱 좁혀질 수밖에 없다.

벽사역을 점령한 후 장녕성을 치기 위해 사면(四面)에 어떻게 진을 쳤는가를 전한 문헌은 없지만 장녕성의 삼문(三門)인 동문, 남문, 북문으로 더욱 근접했을 것으로 보아 벽사 뒤 평원과 평화 송정등(松亭磴)에 진을 쳤던 상당수의 부대가 남문밖 석대들로 이동했을 것이다. 행원 앞 평원에 진을 쳤던 이사경의 부대는 북문쪽으로 더욱 가까이 진을 옮겼을 것이며, 건산후등에 진을 쳤던 이인환과 구교철은 장홍부사가 부셔놓은 탐진강의 죽교 근처까지 진을 옮겨 포위망을 좁혔을 것이다. 이렇게 포위망을 좁혀놓은 농민군은 수성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해 4일 밤 수발의 경고 대포를 쏘 하늘을 진동시키고, 부사를 어리둥절하게 만들며, 수성군을 밤에 잠을 자지 못하게 만들어 그야말로 묘수가 없는 운명을 수성군에 안겨 주었다.

#### 4-5-2. 장녕성 함락 새벽전투

12월 4일 밤 수성군을 뜯는 눈으로 보내게 만든 농민군은 5일 새벽에 <장홍군향토지>가 전하는 “죽창 휘두른 소리를 신호로 세 방면에서 총공격을 하였다”가 아니라 전투의 개시는 동문을 지키고 있던 박현양 부사를 피해 이사경이 지휘하는 북문에서 대포소리를 신호로 시작한다.

<박후의적>은 “새벽에 부사가 다시 문의 누각에 올라 적진을 바라보니 한방의 대포소리가 들린 다음 적들이 곧바로 북문을 넘었고, 나머지 적들은 사면으로 난입하니 온 성안이 불길에 휩싸이었다.”고 전한다. <영희단>은 “새벽에 다시 문의 누각에

올라 적진을 엿볼 때 갑자기 대포 한방의 소리가 울리자 적도들은 북문을 넘어 성내로 난입하여 용솨음치게 움직였다.”고 전한다.

그동안 몇몇 학자들은 <장흥군향토지>에서 전한 “죽창 휘두른 소리를 신호로 세 방면에서 총공격을 하였다. 동문에 진공(進攻)했던 동학군은 성문이 굳게 닫혀 있으므로 수십 명이 거목을 들고 동문을 들이 박쳐 문을 파괴하고 입성하였다. (중략) 동문이 열림과 때를 같이하여 석대군은 남문에 웅치접군은 북문에 입성하여 관아를 불 지르고 아전집 3호외에는 성내가 전부 소각되었다하며 부사 박현양의 수성장졸이 전사하는 등 피아간에 희생자가 많았다.”의 내용에 따라 장녕성 전투가 농민군이 죽창을 휘두른 소리를 신호로 삼면에서 공격하여 먼저 동문이 열림과 때를 같이해서 남문과 북문으로 입성한 것으로 정리하였다.

그러나 장녕성 함락은 대포소리를 신호로 하여 읍성의 3문 중 이사경의 부대가 북문에서 성을 넘어 북문을 가장 먼저 열고 이어 남문과 동문이 열렸다. 동문을 연 것은 수십 명이 거목을 들고 동문을 들이 박쳐 연 것이 아니라 이 역시 회진 회령진성에서 획득한 대포였다. 여기서 동문 등에 대포를 쏜 대표적인 사람이 문공진(文公辰)이다.

<우선봉일기> 12월 18일조에 보성군수 유원규의 보고에 의하면 “장흥경계인 웅치면에서 문공진(文公辰)을 체포하였습니다. 이놈은 장흥부사가 변을 당할 때 포를 쏜 거괴(巨魁)로써 당장 효수하여 경계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려 제멋대로 할 수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에 동 죄인 문공진(文公辰)을 격식에 맞게 감옥에 가두어 놓고 사실의 자초지종을 먼저 보고합니다.”와 지시하기를 “당장 기록을 등사하여 순무영(巡撫營)으로 보고하라. 이 죄인의 허물을 살핀 결과 본군(보성군)에서 장졸과 더불어 민병을 많이 선발하여 나주 주재 일본군 대대본부로 압송하라.”고 했다.

죽음을 각오한 장흥부사의 수성 의지에 힘입어 장녕성의 수성군은 벽사역과는 달리 끝까지 치열하게 저항을 했으나 중과부적으로 농민군의 공격을 당해내지 못하여 장녕성 안에서 영회당에 위패가 모셔진 96의 수성 장졸 희생자와 많은 부상자를 냈다.

#### 4-5-3. 장녕성에서 농민군의 이동

12월 5일 새벽에 장녕성을 함락한 농민군은 아마도 5일 하루 종일을 장녕성에서 보내면서 수성 장졸을 응징하고, 군량미와 군수품을 획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농민군은 6일 아침을 장녕성에서 먹고 사시(巳時: 오전 9시~11시) 경에 진을 벽사역 뒤 고개로 이동하여 이곳에서 점심을 먹고, 다시 미시(未時: 오후 1시~3시) 경에 사인점(舍人店)으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

<선봉진일기>, <순무사정보첩>, <순무선봉진등록>에서 모두 “[비류들은] 초 6일 사시(巳時: 오전 9시~11시) 경에 벽사역(碧沙驛)의 뒤 고개에 이동하여 주둔하

고, 미시(未時: 오후 1시~3시) 경에 다시 장흥과 강진 병영 접계인 사인점(舍人店) 앞들에 이동하니 병영과의 거리가 10여 리에 불과합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농민군이 6일 아침 벽사역 뒤 고개로 진을 옮긴 이유는 수 만 명의 대군이 계속 장녕성에 주둔하기란 비좁고, 전투과정에서 성문과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벽사 촉방 김일원이 병영으로 구병원을 요청하기 위해 장녕성을 빠져 나간 사실을 파악했을 농민군이 혹 병영군이 진격해 올 때 장녕성에서 병영군을 대적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벽사역 뒤 고개 뒤에는 바로 제암산과 사자산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루로 삼아 혹 닥쳐올지도 모른 병영군을 대비했을 것이다.

병영군의 구원 움직임이 없음을 파악한 농민군은 다시 진을 옮겨도 강진현과 병영성의 중간 지점인 사인점으로 진을 옮겨 두 곳에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주었을 것이다.

또한 사인점에서 <순무선봉진등록> 12월 8일조의 병마절도사의 상고 내용처럼 “게다가 좌측 연안에서 정탐을 한 자들에게 들으니 ‘각처의 비류 수 만 명이 막 병영에서 40리 떨어진 장흥의 사창 시장에 진을 치고, 장흥을 함락한 무리와 합세하여 곧바로 본 병영을 도륙하겠다.’라고 하는 흉악한 말을 선전하고 있습니다.”와 같이 장흥전투 승전보를 듣고 사방에서 달려오는 인근의 동학농민군을 기다리고 있었다.

#### 4-6. 강진현 함락(12월 7일)

12월 6일 동학농민군은 벽사역 뒤 언덕에서 미시(未時: 오후 1시~3시) 경에 사인점(舍人店)으로 진을 옮겨 강진현과 병영성을 동시에 긴장시키면서 한편으로는 4일 벽사역 함락, 5일 장녕성 전투 등의 피로를 풀면서 장흥전투의 승전보를 듣고 사방에서 달려온 군사들을 맞이하면서 6일 밤을 보냈다. 사인점에 진을 쳐서 병영성을 긴장시켰지만 사인점에서 병영성으로 진격하지 않고 강진현으로 진격한 것은 탁월한 전략이었다.

우선 상대하기가 병영성보다는 강진현이 쉽고, 두 번째 사인점에서 병영성으로 가는 길은 금강천을 따라 양쪽에 협곡이 있어 평원이 좁고, 외길을 따라 많은 농민군이 진군 하기가 매우 비좁아 매복이라도 걸리면 많은 희생을 낼 수밖에 없는 지형적인 조건 때문이었다.

농민군이 7일 꼭두새벽에 강진현으로 출정하여 장흥부보다는 평원에 있고 좁은 강진현을 사방에서 에워싸고 성을 함락하는 시간이 병영성의 병사의 보고(巳時)와 강진현의 현감의 보고(辰時)가 다르지만 아마 늦은 진시(辰時: 오전 7시~9시)가 맞을 것이다.

이규태 진영에서 작성한 강진현 함락에 관한 기록은 12월 9일조의 <선봉진일기>, 12월 12일조의 <선무사정보첩>, 12월 초 9일조, 12월 초 10일조, 12월 12일조의 <순무선봉진등록>에 모두 같은 내용이 몇 글자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게 기록되

어 있다.

구례의 매천 황현(黃玿)은 <오하기문> 12월 7일조에서 장흥 부산면 출신으로 강진군 보암면으로 이사를 한 오남(吾南) 김한섭(金漢燮)의 순절에 대한 기사를 자세하게 적었다. <일사>를 쓴 박기현은 그의 제자이지만 스승을 따르지 않고 숨어 지내면서 <일사>에서 김한섭을 짧게 언급하지만 매천 황현이 멀리 구례에서 남긴 김한섭과 이방언에 대한 중요한 역사자료를 살펴보자.

이때 장흥의 적도들은 강진을 함락했다. 의병장 김한섭(金漢燮)이 죽고 그의 제자 김형선(金亨善)도 함께 죽었다. 사인(士人) 김용현(金龍鉉), 좌수 윤종남(尹鍾南), 강진현의 서리 김봉헌(金鳳憲), 황종헌(黃鍾憲)도 함께 총탄에 맞아 죽었다. 적도들이 장흥에서 촌민을 내몰아 전위를 날카롭게 하여 강진성 아래 이르렀을 때 현감(이규하)은 병영과 나주로 구원을 요청하러 가서 돌아오지 않았다. 성 위에서 연달아 대포를 쏘았지만 중과부적(衆寡不敵)으로 함락을 당했다. 적들이 민가를 모두 불 태워 백에 하나도 남지 않았다. 김한섭은 고산(鼓山) 임헌회(任憲晦)의 문인으로 호(號)가 오남(吾南)으로 임헌회가 지어 준 것이라고 말한다.

본래 [김한섭은] 이방언과는 함께 [임헌회한테] 동문수업을 했는데, 이방언이 적도에게 물들었다는 소리를 듣고 글을 지어 효유했으나 끝내 듣지 않자 다시 글을 지어 절교를 했다. 또 동학을 경계하는 글을 지어 현인(縣人: 강진현 사람)들을 깨달게 하여 이에 제자 수 십 명을 모아 서문(西門)을 수성하면서 손수 대포에 점화하여 적 10명을 죽였다. 잠시 후 동남문이 먼저 파괴되자 성안에 사람들이 없음을 적들이 알아내고 관리들을 포살하려고 할 때 김한섭이 크게 꾸짖으며 말하기를 “죽음을 맞아 진실로 내 몸을 구별해 보라, 너희들은 나의 의관을 보라 어찌 관리의 옷을 입었겠는가? 나는 김한섭이라고 꾸짖으며 입을 막지 않고 죽었다.

<일사>를 통해 1893년부터 장흥·강진의 동학의 현황을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전한 박기현은 벽사역, 장흥부, 강진현, 병영성 함락에 대해 의외로 기록을 많이 남기지 않았다. 병영성에 대한 기사가 그래도 약간 있지만 그것은 그의 사촌형님 도정(都正) 박창현에 대한 기사가 주를 이룬다. 그 이유는 스승 김한섭과는 달리 난을 피해 몸을 숨겼기 때문이다. 스승 김한섭에 대해서는 나중에 <강제유고>에 “제문(祭文) 제오남김선생문(祭吾南金先生文)”이라는 기록을 남긴다. 당시 몸을 숨겼더라도 <일사>에 나타난 많은 사건에 대해 평소 날카롭게 비평하면서 꼼꼼하게 기록했던 그의 정신과는 사뭇 다르다. <일사>에 나타난 강진현 함락 기사는 단 2건뿐이다.

강진현을 함락하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현감 이규하(李奎夏)가 구원병 요청을 핑계로 강진현을 빠져 나가 수성군의 사기는 장흥부와는 달리 이미 땅에 떨어졌다. 때문에 장녕성 전투는 새벽에 시작하지만 강진현 전투는 훗날 진시

(辰時)와 사시(巳時) 사이의 늦은 진시(辰時) 경에 아마 아침을 먹고 공격을 시작하였을 것이다.

강진현감은 이규태에게 이때 성이 함락되는 패전의 원인을 두 가지로 궁색하게 변명한다.

첫째, “무슨 읍의 운명이 불행한지 안개가 가득하여 아침 해가 뜰 즈음에도 사방이 막혀 지척을 분간하기가 어려웠습니다.”처럼 안개가 가득하여 사방이 막혀 성이 함락되는 비운을 맞은 원인 중의 하나를 안개 탓으로 돌리고 있다.

둘째, 수성을 하는 민간 군사가 “이때 적진에서 포성이 한 번 나자 삼시간에 성을 포위하고 큰 소리로 외치기를 ‘죄 없는 민간 군사는 모두 당장에 성을 나가라. 혹 이속(吏屬) 별포군 등과 섞여 피살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하자 민간의 군대는 따라서 와해되었습니다.”와 같이 군사가 와해되어 성이 함락되는 원인 중의 하나를 김한섭과 같은 민간 병사가 와해되었기 때문이라고 변명한다.

그러나 구원병 요청을 핑계로 도망한 강진현감과는 달리 김한섭은 동문수학의 벗인 이방언 장군이 마지막으로 그에게 베푼 ‘죄 없는 민간 군사는 모두 당장에 성을 나가라. 혹 이속(吏屬), 별포군 등과 섞여 피살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배려를 듣지 않고, 안개로 인해 지척이 분간하기 어려웠어도 그의 제자와 함께 서문(西門)을 수성하면서 와해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였지만 종과부적으로 강진현이 곧장 함락되고 만다.

강진현감의 말을 빌리자면 강진현을 함락시킬 때 농민군은 ‘죄 없는 민간 군사는 모두 당장에 성을 나가라. 혹 이속(吏屬), 별포군 등과 섞여 피살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여 민간의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했다는 노력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강진현을 함락한 농민군은 장녕성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것과는 달리 강진현에서 점심을 먹고 곧장 병영성을 향해 이동하여 강진현에 머무른 시간은 4시간 정도로 추정된다.

#### 4-7. 병영성 함락(12월 10일)

12월 7일 오전 동안에 모두 강진현 전투시작에서 함락, 수성군에 대한 응징까지를 끝낸 농민군은 강진현에서 점심을 먹고, 빠져나와 또 어느 곳에서 저녁을 먹고 차분히 휴식을 취한 다음 상현달이 기운 야음을 틈타 전라도 육군본부인 병영성을 치기 위해 각처로 이동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서병무 병사는 8일 이규태에게 발송하여 10일 도착한 이문(移文)에서 “어제 축시(丑時: 오전 1시~3시)경에 각처에 이동 주둔하여 지금 세 갈래의 길로 병영성을 침범하려 하는데”라고 보고 한다.

8일을 기준으로 하여 어제라고 하면 7일이 되지만 농민군이 강진현을 친 시간이

늦은 진시(辰時: 오전 7~9시)가 되기 때문에 서병무 병사가 강진읍에서 농민군의 이동과 주둔을 어제 축시(丑時)라고 했지만 정확히 말해 8일 축시(丑時)가 된다. 여기서 그냥 동녘이 트지 않은 한밤이기에 어제라고 표현한 것 같다. 축시(丑時: 오전 1시~3시)경에 각처에 이동 주둔하였다는 것은 될 수 있는 한 농민군이 병영성으로 진격하는 진로와 농민군의 대오를 잘 드러내지 않으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자정이 넘은 시간에 이동하여 곧바로 병영성을 공격하지 않고 주둔함으로 병영군에게는 심리전에서 불안감과 초조감을 더해주었던 것이다.

강진현에서 병영성으로 향한 길을 서병무 병사는 농민군이 삼로(三路)를 통해 이동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오하기문>에서는 이인환이 9일 병영성 10리 지점인 작천면 군사촌(君子村)에 진을 쳤다는 기록과 병영성 우후(虞侯) 정규찬이 남관(南關)을 막아야 한다는 기록과 적들은 사로(四路)에서 함께 전진하여 먼저 대처하기 위해 삼봉(三峯)을 점령하였다는 기록 외에는 구체적인 지명이 나오지 않는다.

삼로(三路)든 사로(四路)든 이인환 부대 외에는 농민군의 이동 길목과 한 밤중인 8일 축시(丑時) 이후 8일 온종일의 행적이 확인되지 않는다. 행적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때는 바로 농민군이 병영성의 사방을 포위하기 위해 부대를 직로(直路), 좌로(左路), 우로(右路)로 나누어 행군을 하고 있을 때로 특히 직로를 제외한 좌로와 우로는 병영성을 향해 에둘러 돌아가기 때문에 무척 먼 거리의 행군이었던 것이다. 때문에 8일 축시(丑時) 이후 8일과 9일은 농민군은 행군과 휴식을 번갈아 가면서 병영군에게 불안과 초조감을 안겨주는 심리전을 펴면서 선발대의 중요한 삼봉(三峯) 점령 작전을 감행한 것이다.

농민군이 명색이 전라도의 육군본부인 병영성을 치는 일은 강진현 함락하듯이 쉬운 일이 아니다. 삼문(三門)인 장흥부, 강진현과는 달리 병영성은 동서남북의 사문(四門)으로 되어 있다. 때문에 처음에는 부대를 삼로(三路)로 나누어 출발하였지만 최종적으로는 군사를 넷(四路)으로 나누어야 한다. 하지만 병사가 삼로(三路)를 통해 이동하고 있다고 보고할 때는 추정컨대 당시 강진현에서 병영성을 가는 길이 세로(三路)인데, 가장 빠른 길은 강진현에서 군동면을 거쳐 병영으로 가는 길이 가장 빠른 30리 정도의 직로(直路)로 병영성의 남문 쪽으로 이르는 길이다. 성전면으로 좌회(左回)하여 작천면을 경유하여 가는 길이 좌로(左路)로 병영성 서문 쪽으로 이르는 길이다. 군동면을 거쳐 우회(右回)하여 장흥 쪽에서 금강천을 끼고 가는 길이 우로(右路)로 병영성 동문 쪽으로 이르는 길이다. 병영성 북문 쪽으로 가는 부대는 좌로(左路)와 우로(右路)를 택한 부대 중에서 맡아야 하는데, 지리적인 여건으로 보아 좌로에서 또 분진하여 북문 쪽으로 향했을 것이다.

매천 황현이 “적들은 사로(四路)에서 함께 전진하여 먼저 대처하기 위해 삼봉(三峯)을 점령하였다”의 상황으로 가게 되면 좌로(左路)로 이동했던 부대를 서문과 북문을 담당하기 위해 부대로 둘로 나눈 상황이 된다. 북문 쪽을 담당하기 위해서 남문과 동문을 담당하는 부대에서 분리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다. 남문 앞은 들판이

기 때문에 이쪽에서 병영성을 좌회(左回)하여 북문으로 가게 되면 쉽게 병영성의 공격을 받을 수 있어 선택하기가 어렵고, 동문 쪽에서 병영성을 우회(右回)하여 북문 쪽으로 가려면 많은 수인산 자락을 넘어야 하는 지리적 악조건이 있다. 그러나 서문 쪽을 담당하는 군자촌의 이인환 부대에서 좌회(左回)하여 삼봉(三峯)의 중의 하나인 옥녀봉(玉女峯)을 점령하기란 식은 죽 먹기이다. 옥녀봉을 점령한 부대는 병영성 함락 때 당연히 북문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병영성 주변 삼봉(三峯)이란 수인산(修仁山: 561m) 자락에 있는 세 봉우리로 옥녀봉(玉女峯: 256m), 성자산(聖子山: 294m), 성락산(星洛山: 274m)을 말한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강진에 유배도중에 “수인산 축성에 대한 건의”란 글에서 병영성이 만약 “아침에 포위되면 저녁에 함락되는 것을 면치 못할 것”라고 지적하였듯이 병영성의 최대의 약점은 요새에 있지 않고 들판에 있는 것이 큰 문제이다. 병영성의 취약점을 농민군은 사전에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이인환이 군자촌에 진을 친 것이 노출된 것이 9일이다. 군자촌은 병영성에서 서쪽으로 약 10리 정도로 그 사이가 모두 논으로 이루어진 들판이기 때문에 쉽게 노출이 되었다. 이인환 부대가 9일 낮 군자촌에서 버티고 있을 때 다른 한 부대도 마찬가지로 병영성 남관(南關) 쪽이 들판이어서 쉽게 노출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두 부대가 버티고 있어 병영성을 움츠리게 하는 동안에 농민군 선발대는 좌회하여 10일에는 삼봉(三峯)을 쉽게 선점하여 대포를 쏘아 수성군을 움츠리게 하여 병영성 공격의 사로(四路)를 확보한 후 병영성 사문(四門) 아래에 까지 이른 것이다.

농민군이 강진현에서 병영성을 치기 위해 처음 7일 오후에 강진현을 빠져나와 저녁을 먹고 휴식을 취한 다음 상현달이 진 야음을 틈타 8일 축시(丑時: 오전 1~3시)에는 모처로 이동하여 주둔을 한다. 이후 군사를 삼로(三路)로 나눈 후 다시 북문 쪽을 담당하기 위해 9일에는 작천면 군자촌에 이인환이 진을 치고서 다시 분진을 하여 사로(四路)로 나누어 사문(四門)으로 통하는 거점을 확보한 후 병영성 주변 수인산 자락의 삼봉(三峯)인 옥녀봉(玉女峯: 256m), 성자산(聖子山: 294m), 성락산(星洛山: 274m)을 선점하여 유리한 고지를 확보했다.

병영성의 전투가 정확히 몇 시에 시작하였다는 기록은 없지만 <일사> 12월 10일 조에 “아침 후에 적이 본영(本營: 병영)을 함락하고 관사와 민가에 방화를 하여 연기와 불꽃이 하늘에 닿았다.”로 기록하고 있다. 또한 <우선봉일기> 1월 5일 조에 병영성의 보고에 “지난 12월 초 10일 오시(午時: 오전 11~오후 1시) 경 동학도가 들어와 본영을 함락시킬 때 세력이 서로 대적이 되지 않아 우후(虞侯)가 손자와 함께 총탄에 맞아 서거하였습니다.”로 보아 아침을 먹고 병영성을 공략하기 시작하여 오시(午時) 경에는 병영성을 농민군이 함락시킨 것으로 보인다.

농민군이 병영성으로 쳐들어오자 병사는 크게 놀라 좁은 소매 옷의 두루마기를 입고, 머리에는 패랭이를 쓰고서 옥로(玉鷲)를 감추며, 인부(印符)를 가슴에 품고서 풀

로 엮어맨 생가죽 신발을 신고서 피난민들 속에 뒤섞여 영암으로 도주를 하였다. 병사의 도주로 수성군의 사기가 땅에 떨어진 병영성을 향해 농민군은 삼봉(三峯)에서 일제히 많은 포를 쏘며 사문(四門)으로 향해 성곽의 목책을 불사르고 함성을 지르며 성으로 올라 사문(四門)을 열고 들이닥치자 고작 1,000명밖에 되지 않는 수성군은 머리와 꼬리가 서로를 돌보지 못해 일시에 크게 무너졌다.

하지만 병영성은 장흥부, 강진현과는 달리 정규찬, 김두흡, 박창현 등은 끝까지 저항하면서 농민군에게도 상당한 희생을 입혔다. 우후(虞侯) 정규찬(鄭達贊)은 <승정원일기>에 12월 27일조 의하면 장흥부사 박헌양과 함께 조정에서 홀전을 베풀 것이 논의되어 특별히 군무아문참의(軍務衙門參議)로 추증되었다. 특히 군기 창고를 지키고 있던 김두흡은 화로를 꺼안고 화약 속으로 자택질하여 화약을 폭발시켜 농민군이 회진의 회령진에서처럼 군수품을 탈취하지 못하게 하여 농민군의 화력을 고갈시키게 만들었다. 농민군의 화력 고갈은 나주로 향하는 길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지경을 만든 한 원인이 된다.

<일사> 12월 11일조에 “어제 저녁 너의 형이 동학의 무리들에게 잡혀 단단히 죽게 되었다.”로 보아 12월 10일 저녁에도 농민군이 병영성에 있었던 것은 확인된다. 이때 당연히 많은 수성군이 농민군에게 응징을 당했을 것이다.

이때 병영성의 피해는 규장각 소장(문서번호: 17247)의 첩보존안(捷報存案) 1895년 3월 23일조에 “전라도 병영의 첩보에 의하면 본영(병영)이 불에 타 공해(公廩) 284간(間)을 부득불급 개건(改建)하려 하는데, 물력(物力)을 갖추기 어려운 바, 소요되는 비용을 마땅히 계획해 달라는 일”이 기록되어 있다. 병영성에는 284간이 농민군의 병영성 함락 때 불에 탔다고 내각에 보고되었지만 병영성의 민가(民家)도 이때 상당한 재산 피해를 입었음이 <일사> 12월 12일조에 “병영의 민가 가운데 불탄 것이 열에 여덟아홉이나 되었다.”로 보아 확인된다.

서병무 병사는 병영성의 수성군이 장흥의 동학농민군과 대적하면 패배할 줄을 일찍부터 알았던 모양이다. 11월 21일 구교철이 웅치에서 기포한 후 11월 22일 병영성 부대 200여명을 장흥으로 보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11월 25일 이인환이 대흥면에서 출정 기포하여 회진의 회령진을 무혈 입성하여 막강한 화력을 갖추었다. <일사>에 의하면 11월 27일 장흥부사의 구원병 요청을 문서로 받은 병사는 마지못해 도총장 윤권중(尹權仲)에게 군사 수 백 명을 내주어 장흥으로 보냈지만 29일 세 명의 동학군 목을 베는 것 외에는 아무런 성과 없이 돌아왔다.

서병무 병사는 11월 28일 장흥에 구원병을 보내 군사가 29일 병영으로 돌아온 이후로는 전혀 장흥의 구원요청을 받아드리지 않는다. 병사는 이미 이인환이 대흥면에서 기포한 후 회진의 회령진성에서 병영의 육군보다 화력이 더 월등한 수군의 화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장흥농민군과는 대적을 피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병사는 장흥부가 무너진 후 6일 사인점에 농민군이 진을 치자마자 나주 초토영과 이규태에게 “병영과의 거리가 10여 리에 불과합니다. [동학농민군의] 흉특

한 큰 소리가 낭자하게 전해져 동에서 공격할듯하다가 서쪽을 공격하여 과연 예측하기가 어려움에 미약한 군사로는 방어할 계획이 없어 위급한 화가 급박하게 닥쳐오니 어찌 급하게 보고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며 구원을 요청했던 것이다.

또한 7일 강진현이 함락 당하자마자 연이어 급보를 보내 구원병을 요청하였고, 8일에도 농민군이 8일 축시(丑時)에 삼로(三路)로 나누어 병영성을 침범하려 한다면 급보를 보내면서 장흥부와 강진현이 함락당해 장흥과 강진에서 군대를 동원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근의 영암군에 구원병을 요청하기도 한다. 병영성이 함락되던 10일에도 농민군이 관군보다 먼저 병영성 아래에 당도하였다면서 이규태에게 구원을 요청한다.

이렇게 병사는 외부로 구원만 요청하면서 내부의 우후(虞侯) 정규찬 등이 건의한 선제공격 등을 거부하고, 성곽주변에 목책을 두른 것으로 수성의 계획을 세운 다음 정작 농민군이 병영성으로 쳐들어오자 영암으로 도망을 간 다음 12월 16일에야 영암에서 병영으로 돌아온다. 이러한 병사는 결국 <승정원일기> 12월 27일조에서 확인되듯이 병사(兵使)는 비록 흩어진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성(城)과 해자(核子)를 회복하였다고 하지만 애초에 [성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완전히 용서할 수 없음을 물어 월봉(越俸) 3등(等)의 벌전을 당한다.

또한 <일사> 12월 29일조에 “들으니 어제 일본군 대장이 나주에서 사람을 시켜 병사를 부르니 병사는 화를 입을까 두려워서 곧 자결코자 하여 이교(吏校)들이 근근이 설명을 구해 오늘 아침 나주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는 을미년 1월 10일 나주에서 돌아오는 모습이 또한 <일사>에 기록되어 있다.

후비보병 19대대장 남소사랑(南小四郎)은 <동학당정토약기>에서 “강진 병사(兵使)의 그 거동이 좀 이상해 그를 나주성으로 소환하여 규문하였더니, 그가 그의 관내를 진무(鎭撫)하지 않은 것은 오직 그가 정신착란을 일으킨 때문이었으며, 다른 이유가 없었음이 명백해 졌으므로 4~5일 체재시켰다가 방면하였다.”고 하여 병사는 나주에서 살아남기 위해 정신착란증의 모습을 보여 목숨을 부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5. 농민군 병영에서 장흥으로 회군

장흥농민군은 병영성을 함락시켰으니, 본래 계획의 다음 목표는 나주성을 함락시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주로 진격하지 못하고 장흥으로 회군을 한다. 나주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전라남도의 각지 동학농민군 지도부는 사전에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 계획을 포기한 기사가 <동학당정토약기>에 있다.

[동학도가] 드디어 나주를 함락시킬 생각으로 좌측은 영광과 함평 방향으로부터, 중앙은 광주로부터, 우측은 능주 방향으로부터 나주를 포위할 목표를 세우고, 각 부대가 1월

5일(음력: 1894년 12월 10일)을 기해 나주를 함락시킬 예정이었다. 그런데 3일 전 적도는 영암 방향으로 퇴각한 것 같았다.

농민군이 병영에서 나주로 진격하지 않고, 장흥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것은 아마 12월 11일부터 시작하여 12일에는 전략회의에 의해 모두 정해진 위치에 주둔한 것 같다. <일사> 12월 12일조에서는 “오후에 지삼(知三)이 와서 말하기를 “지금 경군과 일본군 1백 7~8십 명이 내려오고 있으니, 동학의 무리는 족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즉시 형님과 함께 영중(營中)으로 와서 본 즉 동학의 무리는 이미 모두 도주하고 없었다.”고 했다.

장흥의 현지기록인 <박후의적>, <영회단>, <임태희추기>는 모두 12월 12일 병영에서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다.

<영회단>에서는 12월 1일조에 “이때 이방언이 급하게 군대를 일으킨 [연유를] 말하기를 ‘장차 나주로 향하고, 강진으로 향하기로 이인환 구교철 등과 더불어 숙계(宿計: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계획)를 이미 도모하였다.’”고 했다. 동학농민혁명이 막바지 패전에 이르렀을 때 장흥에서 기포하였던 본래 계획대로 농민군은 병영에서 나주로 향하지 않고 회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앞의 <동학당정토약기>에서 말한 “좌측은 영광과 함평 방향으로부터, 중앙은 광주로부터, 우측은 능주 방향으로부터 나주를 포위할 목표를 세우고, 각 부대가 1월 5일(음력: 1894년 12월 10일)을 기해 나주를 함락시킬 예정이었다.”가 있다. 그런데 이를 실행에 옮기지 못한 사유를 검토하여 보면 장흥동학농민군 측으로서는 세 가지의 이유 때문에 나주로 진격하지 않고, 장흥으로 회군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첫째: 12월 2일 전봉준이 순창에서 체포되어 7일 최경선과 함께 일본군에 인계되었다. 삼남도교장(三南都敎長) 이방언 장군이 나주·광주 전투의 패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장흥과 긴밀히 연락하여 이인환 구교철과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계획(宿計)에 따라 기포를 할 때는 전봉준 장군과도 충분히 숙계(宿計)가 있었다고 본다. 농민군이 병영에서 회군을 할 때인 12월 12일에는 충분히 그의 체포소식이 이방언 장군에 전달되었을 것이다. 전봉준과 최경선을 잃은 장흥농민군은 나주로 향하려던 계획에 큰 차질을 줄 수밖에 없었다.

둘째: 11월 25일 대흥면에서 출정기포 후 회진의 회령진성에서 많은 무기를 대량으로 확보했던 농민군은 병영성에세도 그러한 군수품을 획득할 것을 계획했을 것이다. 그러나 농민군 입장에서 보면 불행하게도 김두흡이 화약고를 불 지르며 자폭을 하는 바람에 무기획득에 실패하였다. 장흥으로 회군하여서도 대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많은 대포를 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때쯤에는 상당히 화력이 고갈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공주전투 이래 연일 패전했던 원인이 화력의 열세임을 잘 아는 장흥농민군이다.

셋째: 12월 10일 일본군이 경군과 함께 나주로 입성한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인

데, 전봉준과 최경선도 없고, 화력도 고갈된 상태에서 조일(朝日)연합군을 상대로 요새가 없는 별판 나주에서 싸운다는 것은 힘든 상황이었다.

때문에 회령진성, 흥양현, 벽사역, 장흥부, 강진현, 병영성을 상대로 6승을 거두었지만 회군하여 장흥부를 사수하면서 필사(必死)의 항전을 펼치는 것이 갑오대의 명분을 살리는 길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 6. 한일연합군과 최후전투

### 6-1. 서론

장흥동학농민군은 12월 12일 오전에는 후비보병(後備步兵) 흑석광정(黑石光正)의 3중대와 유치 조양촌 전투를 벌이고, 오후에는 후비보병 18대대(경성수비대)에서 파견 나온 19대대 본부 소속인 백목성태랑(白木誠太郎) 중위의 부대와 장흥읍 건산에서 전투를 벌임을 시작으로 17일 대흥면 월정리의 최후전투까지 6일간 연일 전투를 지속한다.

2차기포 토벌에 관한 정부문서인 이규태 진영에서 작성한 <선봉진일기>의 진압기록에서 12월 9일 “장성의 각 면에 전령한다” 이후 12월 12일 “군무아문에 보고함”의 병영 이문(移文)외에는 12월 18일까지의 어떠한 기록이 보이지 않고, 곧바로 12월 19일 “해남에 주둔한 통위영 영관과 대관 및 좌우수영에게 전령함”으로 넘어가 중요한 장흥·강진의 동학농민혁명의 최후격전지의 전투상황과 진압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이규태 진영의 또 다른 기록인 <순무선봉진등록>에도 12월 12일 1건, 12월 21일 조에 교도중대장의 12월 15일 장흥전투의 상황 보고와 통위영중우참령관(統衛營中右參領官) 장용진의 장흥전투 보고 등의 기록이 보이지만 장흥전투의 규모와 비중에 비해 아주 빈약하게 기록되어 있고 날짜가 일본기록과 다르게 출전한다.

이하에서는 장흥동학농민군과 한일연합군과의 최후전투를 날짜에 따라 전투지역별로 기술하고자 하나 이규태 진영의 기록으로는 이러한 기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본군의 <19대대 숙박표>를 바탕으로 날짜에 따라 전투지역별로 기술하기 때문에 이규태 진영과 일본군 기록에서 차이가 나는 날짜는 일본군의 기록을 따른다.

일본군은 양력 1895년 5월 13일에 후비보병 독립 제19대대장 남소사랑(南小四郎)의 명의로 일본공사에게 보내는 “각지 전투상보 및 동학당정토책 실시보고서 송부의 건”이라는 문서에 아래의 27건과 같은 전투상보 목록을 제출한다.

지명강(至明江)부근, 연산(連山)부근, 승전곡(勝戰谷)부근, 공주(公州)부근, 홍주(洪州)부근, 증약(增若)부근, 석성촌(石城村)부근, 양산(梁山)부근, 공주(公州)부근, 금산(錦山)부근, 농산(農山)부근, 논산(論山)부근, 진안현(鎭安縣)부근, 울곡읍(栗谷邑)부근, 고산현(高山縣)부근, 원평촌(院坪村)부근, 태인(泰仁)부근, 유앵동(有鶯洞)

부근, 조양촌(朝陽村)부근, 장흥(長興)부근, 장흥부(長興府), 옥산촌(玉山村)부근, 문암(文岩)부근, 지면촌(知面村)부근, 청련(淸憐)부근, 종곡(鐘谷)부근, 대둔산(大菴山)부근)이다.

전투상보 목록 중에서 유앵동(有鶯洞)부근, 조양촌(朝陽村)부근, 장흥(長興)부근, 장흥부(長興府), 옥산촌(玉山村)부근 5건이 장흥지역의 전투상보이다. 이 27건의 전투상보가 모두 <주한일본공사관기록>에 남아 있었다면 참으로 좋겠지만 장흥과 관련이 없는 종곡(鍾谷)부근의 전투상보와 대둔산(大菴山)부근 전투상보가 남아 있다.<sup>23)</sup> 그 외에는 모두 지명만 전할 뿐이니 참으로 안타깝다. 그나마 지명이 전하기 때문에 그 동안 장흥에서는 장흥전투와 옥산촌 전투 외에는 전투기록이 없었는데, 조양촌 전투, 유앵동 전투, 장흥부근 전투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천만다행이다.

일본군 <19대대 숙박표>의 후비보병 19대대의 부대 표시에서 支1은 좌측지대로 송목정보(松木正保)가 지휘하는 1중대와 경군의 통위영 부대 일부이다. 支2는 우측지대로 삼미아일(森尾雅一)이 지휘하는 2중대와 교도중대 부대이며, 15일에는 교도중대장이 직접 참전함이 확인된다. 支3은 중로지대로 흑석광정(黑石光正)이 지휘하는 3중대와 경군의 교도중대 일부이고, 그냥 支라고 표시된 것은 또 다른 중로(中路)지대인 탐진강 발원지에서 그 물줄기를 타고 온 백목성태랑(白木誠太郎) 중위가 지휘하는 대대본부 소속의 부대와 경군의 교도중대 일부이다. 이하는 12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일본군의 숙박일지를 바탕으로 날짜에 따라 부대이동과 전투지역과 전투상황 등을 서술한다.

## 6-2. 장흥동학농민군과 한일연합군의 분둔(分屯)

이른바 역사에서 말하는 동학농민혁명 최후전투를 양측이 치루기 전에 양측은 어느 곳에도 부대를 나누어 진(分屯)을 쳤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주에서 한일연합군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장흥동학농민군은 병영에서 장흥으로 회군하여 진을 쳤다.

<오하기문>에서는 “적이 퇴각하여 장흥의 모정등(茅亭嶺)에서 진을 치고서”라고 했고, <박후의적>에서는 “12월 12일에 돌아와 본부 남문밖과 건산 모정등(茅亭嶺)에 주둔했다.”라고 했으며, <영희단>에서는 “병영을 함락한 후 12일 돌아와 본부 남문밖과 건산 후등에 진을 쳤다.”고 했다. 이로 보아 장흥읍 남외리(남문밖)와 장흥읍 건산리(모정등)에는 틀림없이 진을 친 것이 확인된다.

병영성에서 장흥으로 회군할 때 수 만 명의 농민군이었는데 남문밖과 모정등 두 곳은 수만 명 이상이 함께 진을 칠 수 있는 환경이 절대 아니므로 일전을 준비하는

23) 종곡과 대둔산 전투상보는 <장흥동학농민혁명 사료총서> “제8장 10. 최후전투의 시비에 대한 분별”편에 실려 있다.

태세로써는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곧 남문밖과 모정등 외에도 진을 친 곳이 있다는 말인데, 한 곳은 김재계 선생이 <갑오년 동학이야기>에서 말한 “이번에 보성, 장흥, 강진, 병영성을 함락하고 다시 남면(용산면) 어산 앞에 와서 머무르고 있는데, 본 읍(장흥읍)으로부터 소식이 오기를 경군과 일본군이 본 읍 남산 봉명대에 머무르고 있다고 한다.”에서 말한 용산면 어산 앞이다. 이곳은 이방언 장군이 이끄는 부대가 진을 치고 있었다는 말이다.

장흥농민군이 병영에서 장흥으로 회군할 때 이미 한일연합군이 장흥으로 진격해 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단지 남문밖, 모정등, 용산면 어산에만 진을 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를 보완해 주는 자료가 일본군의 자료인데, 유치면 조양촌과 부산면 유앵동(유량리)이다.

또한 병영성에서 장흥으로 회군할 때 병영성에는 농민군을 남기지 않고, 대신 강진현 쪽으로 농민군을 보내 진을 쳤음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바로 <동학당정토약기>에 나오는 “3개 지대 중 우측 지대(2중대)는 강진에서 비도와 싸우느라 약간 늦었고, 장흥의 적은 좌측지대와 중로지대가 이들을 소탕하였다. 그러나 강진에서의 격전은 결국 장흥의 적 격퇴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에서 이 전투는 19대대 2중대(중대장: 森尾雅一)가 벌인 전투이다.

이 부대는 12일 병영성으로 들어왔다가 농민군이 전혀 보이지 않자 <일사> 12월 14일조에서 말하는 “병영에 왔던 경군이 어제(13일) 영암으로 돌아갔는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었다.”에서 말한 부대로 실제 <19대대 숙박표>에서 2중대는 13일에 영암에 있었고, 14일에는 강진에 있었음이 확인된다. 바로 이 부대와 전투를 한 농민군 부대는 혹 강진을 통해 들어올 한일연합군의 진격루트를 담당할 것으로 강진에도 진을 쳤음이 확인된다. 강진에 진을 친 부대는 일단 강진 출신 농민군일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문헌을 통해 확인한 병영에서 회군하여 농민군이 진을 쳤던 곳은 장흥읍 남문밖(남외리), 모정등(건산리), 유치면 조양촌(현 유치면 소재지), 부산면 유앵동(유량리), 용산면 어산리, 병영루트가 아닌 강진읍 쪽 루트에 진을 쳤다.

<박후의적>에서는 “이때 소모관 백낙중(伯樂中)이 경군을 이끌고 보성으로부터 와서 황혼 무렵에 곧바로 먼저 모정등의 적을 격파했다.”고 했는데, 보성으로부터 한일연합군이 아직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장흥읍을 중심으로 사방에 진을 쳤던 농민군은 보성 방면에도 이를 대비하는 진을 쳤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확인이 되지 않는다. 설령 진을 치지는 않았더라도 최소한 상당명의 척후병은 파견했을 것이다.

반면 한일연합군은 좌측지대인 1중대는 12월 11일~19일까지 능주(綾州)에다 본부의 진을 친다. 이 부대는 동학당 토벌에 투입될 때부터 주로 산악지대인 동로(東路)와 강원도 일대와 거창, 함양, 운봉, 남원 등에서 토벌을 하였기 때문에 산악전에 매우 강한 부대이다. 이러한 산악전에 강한 부대를 능주로 보내 본부의 진을 치게 하여 장흥에서 능주 방면으로 탈출하는 농민군을 토벌하고, 산악을 타고 장평면과

유치면을 드나들면서 장흥읍까지 진출하여 이른바 장흥전투에서 최대의 전공을 올리는 부대이다.

우측지대인 2중대는 12월 12일 병영에 진을 쳤다가 13일에는 영암, 14일에는 강진에서 전투를 벌인 다음 15일에는 장흥으로 들어온다. 17일까지 장흥에 있다가 18일과 19일에는 강진에서 진을 친다.

중로지대인 3중대는 <선봉진일기> 12월 12일조에서 “대위 흑석광정(石黑光正: 3중대장)은 그의 부하 1개 소대와 2개 분대, 교도중대 2개 분대를 거느리고 영암 땅으로 나아가고,”로 되어 있고, 후비보병 <19대대 숙박표> (음)12월 12일에서는 支2 병영, 支2 조양촌(戰鬪)라고 되어 있지만 필자는 “支2 조양촌(戰鬪)”은 “支3 조양촌(戰鬪)”으로 숙박표를 수정하였다.

이외에도 숙박표에서 중로지대인 3중대의 장흥 행적이 잘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아마 조양촌 전투와 관련이 깊은 것 같다. 그러나 분명 후비보병 19대대장 남소사랑(南小四郎)은 <동학당정토약기>에서 “3개 지대 중 우측 지대는 강진에서 비도와 싸우느라 약간 늦었고, 장흥의 적은 좌측지대(1중대)와 중로지대(3중대 및 백목성태랑(白木誠太郎)의 본부소속)가 이들을 소탕하였다.”고 하여 3중대가 장흥읍에 들어온 것은 사실인데 12월 16일까지 支3이 표시되지 않아 어느 곳에 진을 치고 주둔했는지 확인을 할 수 없다.

12일 숙박표에서 지건산(支乾山: 본영내전(本營內戰))으로 표시된 백목성태랑(白木誠太郎)이 지휘하는 본래 18대대 소속으로 19대대에 배속된 부대는 앞에서 대대 본부 요원으로 본다고 했다. 이 부대는 13일 장흥에 주둔하고 14일에는 장흥에서 전투를 벌인다. 15일에는 <숙박표>에서 상황이 나타나지 않지만 <순무선봉진등록>의 12월 15일 장흥 상황을 전한 교도중대장 이진호의 “일본군 중위와 상의한 뒤에 통위영의 병사 30명으로 뒷산기슭 주봉에 있는 적들을 막게 하고”에서 그 일본군 중위가 흑 백목성태랑(白木誠太郎)이 아닌가 생각되고, 16일 고읍면에서 전투를 벌임이 확인되어 계속 장흥에 주둔하고 있었다.

### 6-3. 12월 12일 아침 조양촌(朝陽村)전투

장흥농민군은 병영성에서 장흥으로 회군하면서 이미 어느 곳에다 진을 치고 나주에서 장흥으로 진격하는 한일연합군을 막아 낼 것인가를 미리 계획했던 것으로 보인다. 유치면 조양촌은 나주성에서 직선거리로 장흥과 가장 가까운 곳으로 나주 세지면 동창을 넘으면 영암군 금정면이고, 이곳을 넘으면 바로 유치면 조양촌(현 조양리·신평일대)이다. 때문에 영암군에서 유치면으로 넘어오는 경계인 조양촌에 진을 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아마 병영성에서 다른 부대보다 일찍 길을 떠났을 것으로 보인다.

12월 12일 장흥에서 한일연합군과의 첫 전투는 장흥읍이 아닌 유치면 조양촌에서

이른 아침부터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일본군 토벌대장이 일본 공사에게 제출한 “각지 전투상보 및 동학당정토책 실시보고서 송부의 건”에서 조양촌 전투상보를 제출함으로써 보아 단지 행군하는 도중에 몇 십 명을 토벌한 것이 아님을 증명한다.

<19대대 숙박표>에는 분명히 진을 치고 체류한 곳은 체(滯)로 표시하고, 전투를 한 곳은 전(戰)이라 표시하며, 행군한 곳은 그냥 지명만을 표시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장흥동학농민혁명사에서 유치면 조양촌에서 일본군과 전투가 있었다는 것을 그것도 일본군에 의해 전투상보가 작성될 정도의 전투가 있었다는 것을 말한 학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 필자로서는 이를 다루는 것이 매우 조심스런 부분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조양촌(朝陽村) 전투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단서는 다행히 1992년 12월에 간행한 <유치면지> 119~120쪽, 580~581쪽, 591쪽, 611쪽 등에 유치면의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한 기록을 전하고 있다. <유치면지>를 통해 확인해 보면 유치면 조양촌 일대(조양1구 2구, 신흥1구)가 유치면 동학의 근거지이고,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다는 구전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천만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본군의 문서인 <19대대 숙박표> 12월 12일에 기재되어 있는 “支2 朝陽(戰)”과 <각지 전투상보 및 동학당정토책 실시보고서 송부의 건>에 기록되어 있는 “朝陽村 부근”이라는 두 문건 모두 합해 총 11글자뿐인 장흥농민군과 일본군이 벌인 “조양촌 전투”를 보다 더 구체화 할 수 있는 것이 <유치면지>의 동학관련 구전기록이므로 이를 아래에 모두 실는다.

- <유치면지> 119~120쪽의 유치면의 동학농민군 활동: 유치면에서도 동학농민군에 대한 활동이 있었음이 병영에서 살았던 유생 박기현의 <일사>라는 일기에서 보이지만, 동학군들의 깃발이 곳곳에서 나부끼었다고만 기록되어 있고 구체적인 활동상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마을 조사에서 조양 1구 절터골이 동학군의 훈련장이었고, 김생규씨가 동학농민군에 참여했다고 하나 동학농민군의 결말이 실패로 돌아가서인지 자세한 내용은 전해지지 않는다. 그러나 유치면과 이웃한 부산 용반리 출신 이사경 접주가 활약한 것이나 동학군의 퇴로가 깊은 산골이었음을 감안한다면 보다 자세한 조사를 통하여 유치에서의 동학농민군 활동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동학농민군 최후항전인 석대들 전투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어 사형을 당하는 사람의 명단이 <장흥군향토지>에 나오는데 이 가운데 2명이 유치면 출신이다. 문찬필(文贊弼)은 유치면 수덕리 출신으로 1895년 1월 24일 45세 나이로 처형당했으나 처형 장소는 불명하며, 문치화(文致化: 혹은 문치원(文致元)이라고도 함)는 늑용리 출신으로 역시 1895년 1월 24일 39세의 나이로 벽사역에서 처형당했다. 문찬필과 문치화(원)는 형제일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최현식씨의 <갑오동학혁명사>에는 1976년 간행된 <장흥군향토지>의 기록을 인용하여 석대혈전 희생자 명단에 김영서(金永瑞: 46세)와 고영의(高榮義: 45세)도 유치 수덕 출신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1990년 간행의 <장흥군지>에는 관산 출신으로 적고 있으며 각각 1894년 10월 26일, 12월 26일 벽사역에서 처형당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장흥동학농민혁명사, 천도교월회보)

또한 <천도교월회보>에는 문남택(文南澤)이 유치출신의 대접주로서 1891년에 동학에 입교했다는 기록이 있으나 자세한 인적사항이나 활약상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다. 이처럼 유치지역에서 동학농민군의 접주로서 또는 농민군으로 참여하여 처형까지 당한 사례에서 보듯이 보다 자세한 조사를 한다면 동학과 관련한 내용이 앞으로 보다 많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리적인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유치면과 부산면을 잇는 빈재(貧峙)는 비록 작은 고개이긴 하지만 1894년 10월 이래 장흥부의 외곽지대인 흑석장터(장평면 봉림리 흑석마을) 사창(司倉) 등지에서 군세를 강화하던 농민군이 12월초 장흥부를 공격하기 위해 진출할 때 이 고개를 넘어왔다고 전한다. 당시 이 고개는 농민군의 주둔지인 흑석장터와 농민군의 집강소가 설치되었던 자라번지(부산면 용반리~금자리 앞들)를 이어주는 교통로였기 때문에 농민군의 출입이 잦았던 고개임에 틀림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 <유치면지> 580~581쪽의 조양1구 마을의 중요사건: 동학농민혁명 때에 이곳 마을에 거주하였던 경주 김씨 김생규(생몰년 미상, 그의 후손이 반월마을에 거주한다고 함)가 동학대장(?)을 하였다고 하며, 관군이 김생규의 소재를 찾으려고 그의 부인을 붙잡아 마을 앞 정자나무에 거꾸로 매달아 놓고 고문하였으나 부인은 끝내 대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지금의 절터골에 동학군 훈련장이 설치되어 이곳에서 훈련을 하였다고 하지만 그 규모나 이 마을에서 동학군이 참가했던 인물들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 <유치면지> 591쪽 조양2구 마을의 중요사건: 1894년 동학농민혁명 때 본 마을에서 총기·탄약 등을 제조하여 지원하였음.

- <유치면지> 611쪽 신평1구 마을의 중요사건: 갑오동학농민혁명시 의병들이 일본수비대와 경군에게 화승총을 들고 대항했으나, 역부족인지라 문씨 종가집 주변의 산에 숨어 있다가 일본군대가 종가집에서 조식을 하던 중에 기습하여 일본군대의 조총을 빼앗아서 많이 물리쳤으나, 일본군이 찾김에 종가집을 태워버렸다.

비록 1992년에 <유치면지>를 발행할 때 목포대학교 인류학과 학생들이 마을의 구전을 채집하면서 얻은 기록이지만 이 구전은 1895년 5월에 일본군이 작성한 기록에 유치면 조양촌에서의 전투가 있었음을 분명히 증명해 주고 있다. 특히 <유치면지>에서 채집한 구전 중 조양1구의 “지금의 절터골에 동학군 훈련장이 설치되어 이곳에서 훈련을 하였다고 하지만 그 규모나 이 마을에서 동학군이 참가했던 인물들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다.”와 조양2구의 “동학농민혁명 때 본 마을에서 총기·탄약 등을 제조하여 지원하였음.”으로 보아 유치면의 동학의 근거지는 조양촌 일대임이 확인된다.

특히 <유치면지> 611쪽 신평1구의 동학기록은 바로 일본군이 말한 조양촌 전투로 이 전투에서 유치면 조양촌에 진을 치고 있던 부대가 역부족으로 비록 패하여 문씨 종가집 주변 산에 숨어 있었으나 일방적으로 패전 당하지 않고, 오히려 기습을 하여 일본군을 조양촌에서 물리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일본군대가 [문씨] 종가집에서 조식을 하던 중에 기습하여 일본군대의 조식을 빼앗아서 많이 물리쳤으나, 일본군이 횡김에 종가집을 태워버렸다.”는 구전으로 보아 조식을 하던 일본군을 기습하여 상당부분 타격을 가한 것이 드러난다. 이 때문에 일본군은 그 화풀이로 조식을 먹던 문씨 종가집에 방화를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에서 조양촌 전투를 벌인 일본군은 <19대대 숙박표>에서 支2를 필자가 支3으로 고친 것은 앞에서 支2가 동시에 두 번 나올 수 없고, 일본군 작전에서는 항상 支1은 좌로(左路: 東路)를 담당하고, 支2는 우로(右路: 西路)를 담당하며, 支3은 중로(中路)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미 좌로와 우로가 분명하기 때문에 支2를 支3으로 고쳤다고 했다. 支1, 支2를 1, 2중대로 보는 것은 남소사랑(南小四郎)이 숙박표 첫머리에서 분명히 支1 혹은 支2의 숫자는 일본중대를 나타낸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나주에서 장흥으로 진격하는 가장 가까운 루트에 있는 중로지대인 支3(3중대)이 <19대대 숙박표>에서 이른바 장흥전투 기간인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보이지 않고, 17일 대흥면에서 3중대를 支2(2중대)로 합함에서 처음으로 보인다.

3중대에서 유일하게 장흥전투와 관련하여 전투 공훈을 인정받은 사람인 하사관에 해당하는 일등군조 소송직간(小松直幹)의 전투지역 3곳 중 2곳이 장흥(長興)으로 기록되어 있기에 이 부대도 장흥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지만 조양촌 전투에서 입은 타격인지는 몰라도 농민군과 상전(相戰)을 벌인 기간에는 마지막 전투인 대흥면 전투에서 2중대로 합하는 작전하였다는 것 외에는 <우선봉일기>에서 12월 25일 이두황군과 합동으로 천관산 수색에 참여한 것 외에는 별다른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

아무튼 곧 중로지대를 담당했던 후비보병 19대대 3중대와 그를 수행한 경군 교도중대 일부 병력은 조양촌에서 아침을 먹다가 농민군에게 기습을 당해 상당한 타격을 입어 곧바로 장흥읍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부대를 추스르기 위해 일단 영암으로 후퇴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 때문에 이 부대는 조양촌 전투의 전공으로 상훈을 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또한 조양촌 전투의 후유증으로 이 부대는 부대를 수습하느라 장흥에 일찍 도착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

대신 12일 오후에 맨 먼저 장흥읍으로 들어온 부대는 나주에서 지금의 영암군 금정면 세류리, 쌍효리, 청룡리를 지나 속칭 “암챙이 골짜기”라 부르는 암천계곡을 타고 보림사를 거쳐 장흥읍으로 들어온 백목성태랑(白木誠太郎) 중위가 지휘하는 대대본부 소속 부대가 된다.

조양촌전투에서 일본군 중로지대인 3중대와 그를 수행하는 교도중대 일부 병력과 전투를 벌였어도 처참하게 패전하지는 않고, 기습공격을 하여 일본군에 상당한 타격

을 입힐 수 있었던 장흥동학농민군은 대부분 유치면 출신을 근간으로 구성되었을 것이다.

유치면의 동학농민혁명을 대표하는 인물은 <천도교월회보>에서 1891년 입교한 대접주 문남택(文南澤)일 것으로 의심하지 않는다.

나주에서 일본군이 진격해 들어올 것이 분명한 루트였던 조양촌이란 한 지역을 맡아 일본군 종로지대인 3중대와 대적했던 유치 동학농민군은 기습전을 벌여 타격을 입힐 정도로 막강한 전투력과 인원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필자가 가지고 있는 장흥동학농민군 인명 데이터베이스 515명중 유치면 농민군은 단 8명뿐으로 회천면 4명 다음으로 적은 인명록을 확보하고 있을 뿐이다.

#### 6-4. 12월 12일 저녁 건산전투

종로지대인 흑석광정(黑石光正)의 3중대가 12일 아침 유치면 조양촌에서 전투를 하고 있을 때 같은 종로지대인 백목성태랑(白木誠太郎)의 부대는 이미 11일 탐진강 발원지의 물줄기를 따라 남하하여 12일 아침에는 이미 보림사를 지나고도 남았을 것이다. 이 부대는 중간에 작전변경 연락을 받고 장흥을 단지 거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장흥읍으로 회군한 농민군을 상대로 전투를 벌이기 위해 12일 오후에 장흥읍으로 들어왔다. 12일 한일연합군이 장흥읍으로 들어왔다는 기록을 다시 한번 모아본다.

- <19대대속박표> 12일: 支1능주, 支2병영(兵營), 支3조양(朝陽)戰, 支乾山(本營內戰).

- <순무선봉진등록> 12월 12일조: 이달 11일 나주에서 파견해 보낸 교장 황수옥의 보고 내용에 “병사 30명을 거느리고 능주에 도착하여 군대를 주둔하고 숙박하였으며, 12일 오경(五更: 새벽 4시 전후) 즈음 장흥에 도착하여 군대를 주둔하고 숙박하였습니다. 13일 동트기 전에 적들의 형편을 탐지하니 본부의 남문 밖에 적도 수천 명이 모였다고 하므로 일본 병사와 본 진영의 병사 30명이 힘을 합해 진격하니 수합에 미치지 않아 적도가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습니다.”

- <순무선봉진등록>: 장흥부의 공형 문장에 삼가 아립니다. (중략) 장흥에서 변을 일으킨 비류 수 만 명이 이달 12일 내려온 대군에게 추격당하여 장흥부의 남면 고읍(古邑) 등의 협곡(峽谷)으로 숨었습니다.

- <오하기문>: 12월 12일 이규태가 병영에 도달하여 적도들은 도망가자 추격하여 장흥의 석대산에서 대파를 했다. 이규태는 나주에 있을 때 병영의 급보를 받고 먼저 한 지대의 병사들을 보냈다. 더불어 소모관 백낙중(伯樂中)과 병영으로 향할 때 길에서 벽사찰방 김일원을 만나 병영으로 길을 안내하게 했다. 적이 퇴각하여 장흥의 모정등(茅亭

嶺)에서 진을 치고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 심히 날카로워 관군은 연달아 대포 10여발을 발사하니 적들은 패하여 도망갔다.

- <박후의적>: 강진과 병영을 함락한 후 12월 12일에 돌아와 본부 남문밖과 건산 모정등(茅亭嶺)에 주둔했다. 이때 소모관 백낙중(伯樂中)이 경군을 이끌고 보성으로부터 와서 황혼 무렵에 곧바로 먼저 모정등의 적을 격파했다.

- <영희단>: 적도들이 강진과 병영을 함락한 후 12일 돌아와 본부 남문밖과 건산 후등에 진을 쳤다. 이날 소모관 백낙중(伯樂仲)이 경군을 거느리고 곧바로 와서 건산 적을 격파했다.

- <임태희추기>에 “적병이 강진군과 병영을 함락하고, 12일 돌아와 본부 건산리와 남외리 등지에 진을 치고 서로 만났다. 해가 저물 때 소모관 백낙중이 왕사(王師)를 이끌고 곧바로 와서 건산리의 적을 격파했다.

이중 가장 오보가 황현의 <오하기문>으로 이규태는 장흥에는 발도 던지 않은 사람인데 이규태가 적들을 석대산에서 격파하였다는 황당한 기사를 썼다. 그리고 “이규태는 나주에 있을 때 병영의 급보를 받고 먼저 한 지대의 병사들을 보냈다. 더불어 소모관 백낙중(伯樂中)과 병영으로 향할 때 길에서 벽사 찰방 김일원을 만나 병영으로 길을 안내하게 했다.”에서 소모관 백낙중은 병영루트로 들어오지 않았다. 단 김일원은 12월 4일 병영을 거쳐 나주로 구원을 요청하러 갔기 때문에 병영을 통해 다시 들어올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광무(光武) 4년(1900년) 3월에 벽사역에 세웠다가 지금은 영희당으로 옮겨진 김일원의 “청사복성불망비(請師復城不忘碑)”의 64자 명문(銘文)에도 김일원이 어느 루트를 통해 어느 부대를 안내하여 장흥으로 들어왔다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정확히 고증할 수 없다.

두 번째로 큰 오보가 장흥부의 공형(公兄)이 이규태에게 12월 24일 보낸 문장으로 “장흥에서 변을 일으킨 비류 수 만 명이 이달 12일 내려온 대군에게 추격당하여 장흥부의 남면 고읍(古邑) 등의 협곡(峽谷)으로 숨었습니다.”로 12일의 전투는 장흥읍에서 60리 떨어진 유치면 조양촌에서 이른 아침에 조양촌 전투가 있었으며, 저녁 무렵에 건산에서 전투가 있었을 뿐이다. 건산 한 지역의 전투로 농민군이 남면 고읍면 등의 협곡으로 숨을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또한 <순무선봉진등록>의 황수옥 보고의 “12일 오경(五更: 새벽 4시 전후) 쯤에 장흥에 도착하여 군대를 주둔하고 숙박하였습니다.”에서 12일 오경(五更)이 문제가 된다. 다음 문장 “13일 동트기 전에 적들의 형편을 탐지하니”와 연결이 되지 않는다. 문장대로 하면 12일 새벽에 장흥읍에 도착하여 전투는 13일 아침에 하게 된다. 그렇다면 12일 아침부터 하루 종일에 이어 13일 새벽까지는 수 만 명의 동학군이 집결

해 있는 장흥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엇을 했다는 말인가?

여기서 12일 오경(五更)은 13일 오경(五更)으로 고쳐야 한다. “곧 13일 새벽 4시 경에 도착하여 13일 동트기 전에 적들의 형편을 탐지하니 본부의 남문 밖에 적도 수천 명이 모였다고 하므로”로 고쳐야 한다. 황수옥이 소속된 부대는 통위영으로 그는 1중대를 수행하는 부대이다. 1중대는 12일 새벽에는 아직 능주에서 장흥읍으로 들어 오지 않았다.

다음으로는 장흥현지의 기록인 <박후의적>, <영회단>, <임태희추기>에 나오는 소모관 백낙중인데, <박후의적>은 “이때 소모관 백낙중(伯樂中)이 경군을 이끌고 보성으로부터 와서 황혼 무렵에 곧바로 먼저 모정등의 적을 격파했다.”라 했고, <영회단>은 “이날 소모관 백낙중(白樂仲)이 경군을 거느리고 곧바로 와서 건산 적을 격파했다.”고 했으며, <임태희추기>는 “해가 저물 때 소모관 백낙중이 왕사(王師)를 이끌고 곧바로 와서 건산리의 적을 격파했다.”라고 건산(모정등)의 농민군을 격파한 것을 모두 소모관 백낙중과 연결시키고 있다.

백낙중이 나주에서 장흥으로 출발할 때 1중대를 따라오지 않고, 백목성태랑(白木誠太郎)의 부대를 따라 올 수도 있다고 보지만 일단은 전례를 따라 1중대를 따라 온 것으로 본다. 다만 장흥현지 기록이 모두 소모관 백낙중이 12일 경군(京軍) 또는 왕사(王師)를 이끌고 장흥으로 들어왔다는 표현은 마치 백낙중이 경군을 지휘하는 지휘관처럼 보인다. 그러나 백낙중은 임시직 9품 말단 벼슬로 그의 업무가 식량병사도로 등에 관해 일본 군대의 조달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일본군이 장흥에 들어오기 전에 정찰을 겸해 식량병사도로 등의 조달을 위해 미리 들어와 현지 상황을 살핀 것이다. 백낙중이 장흥에 들어와서는 운봉에서부터 따랐던 1중대만을 위한 식량병사도로 등의 조달을 맡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그의 마당 밭은 분주하여 장흥부의 공형은 물론 유생들과의 접촉도 많았을 것이다.

장흥유생들은 12일 오후의 건산 전투의 공을 백낙중에게 돌리고 있지만 그는 일본군의 식량병사도로 등에 관해 일본 군대의 조달을 맡는 임시직 말단 9품이기 때문에 백낙중의 위상을 잘못 평가한 것이다.

<19대대 숙박표>에서는 12일에 “支乾山(本營內戰)”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 말은 건산에서 전투를 벌인 부대는 백목성태랑(白木誠太郎)의 부대라는 것이다. 백목성태랑(白木誠太郎)은 본래 후비보병 18대대 소속이나 10월 13일 19대대로 배속되어 19대대에서는 대대본부로 편입되어 3중대와 함께 중로(中路)분진대를 담당했다. 때문에 남소사랑(南小四郎)이 본영(本營: 곧 대대본부)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

장흥 유생들이 쓴 위 3편의 글에서 12일 황혼 무렵 건산리(모정등)에서 농민군과 한일연합군 간의 전투가 있었음을 확인시키고 있어 전투가 있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전투는 송목정보(松木正保)의 1중대가 하지 않고, 11일의 위치로 보아도 장흥과 가장 근거리에서 있었던 백목성태랑(白木誠太郎)의 대대본부 소속 부대가 12일 오후에 제일 먼저 장흥읍에 입성하여 황혼 무렵 건산리 모정등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

와 전투를 벌인 것이 틀림없다. 다만 전투결과 농민군이 얼마나 희생을 입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아 아쉽다.

## 6-5. 12월 13일의 전투

### 6-5-1. 남외리 전투

- <19대대 숙박표> 13일: 支1능주滯, 支2영암, 장흥부근戰, 支장흥.

- <순무선봉진등록>: [통위영 황수옥의 보고내용에] 13일 동트기 전에 적들의 형편을 탐지하니 본부의 남문 밖에 적도 수천 명이 모였다고 하므로 일본 병사와 본 진영의 병사 30명이 힘을 합해 진격하니 수합에 미치지 않아 적도가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습니다. 이기는 틈을 타서 추격하여 총살한 자가 20여 명이며, 나머지 무리는 죽음을 무릅쓰고 달아나서 끝내 드러난 흔적이 없습니다.

- <순무선봉진등록>: 장흥부의 공형 문장에 삼가 아립니다. (중략) 13일 저 우리 수만 명이 장차 대적하려고 하므로 대군이 일제히 나와 총살한 것이 수백 명이었습니다. 잔여의 무리는 흔적을 감추어 그림자도 없기 때문에 위 대군은 강진 등지로 내려갔습니다.<sup>24)</sup>

- <박후의적>: 다음 날(13일) 새벽 벽두에 또한 남외리의 적을 격파하였다.

- <영회단> 다음 날(13일) 먼동이 뜨기 전의 이른 새벽에 남외리의 적을 격파하였다.

- <임태희추기>: 다음날(13일)은 또 남외리의 적을 격파했다.

<순무선봉진등록>과 장흥 유생 3인 모두 남외리(남문밖)에서 전투가 있었음을 전하고 있다. <임태희추기>만 제외하고 모두 동트기 전에 전투가 있었다고 전한다. <순무선봉진등록>에서 이 전투를 선봉진으로 전한 사람은 통위영의 교장 황수옥으로 그는 나주에서 후비보병 19대대 1중대를 수행하고 내려온 사람이다. 때문에 이 전투는 <순무선봉진등록>의 기록으로만 보면 12일 병영에서 회군하여 남외리에 진을 치고 있던 수천 명의 농민군과 송목정보(松木正保)가 지휘하는 나주에서 좌로(左路)를 타고 내려온 1중대와 통위영의 한일연합군이 벌인 전투로 20여 명의 농민군을 사살한 전투이다.

<19대대 숙박표>에서는 이 전투를 벌인 1중대를 능주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표시하였다. 이 말은 곧 중대본부는 능주에 있었지만 1~2개 소대가 장흥으로 들어와

24) 이 기록인 아마도 14일의 석대혈전을 장흥부 공형이 12월 24일 이규태에게 날짜를 13일로 잘못 전한 것 같다.

전투를 벌인 것이다. <19대대 숙박표>에는 “支장흥”이 표시되어 있어 12일 황혼 무렵 건산리(모정동)에서 전투를 벌인 곧 백목성태랑(白木誠太郎)의 부대도 장흥에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다만 통위영의 교장 황수옥이 “일본 병사와 본 진영의 병사 30명이 힘을 합해”라고만 전해 백목성태랑(白木誠太郎)의 부대가 이 전투에 얼마만큼 공헌은 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지만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만 보고 있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한다.

1중대에서 장흥전투의 핵심은 육군보병 소위 식야준성(植野俊成: 1중대 소대장)이다. 남소사랑(南小四郎) 대대장이 작성한 “동학당 정토 공로자에 대한 논공 건의의 건”에서 1중대 소대장 식야준성(植野俊成)의 전공조서는 “위의 사람은 동학당을 위해 동료로 분진한 제1중대의 소대장으로서 동학당을 끝까지 몰아붙였으며, 나중에 당도해서는 지대장이 되어 장흥과 유앵동(有鶯洞) 전투에서 공로가 있는 사람임.”으로 밝히고 있다.

위의 12일 저녁 건산전투와 남외리의 새벽전투에서 20여 명이 사살된 소식은 곧바로 여산 앞에서 진을 치고 있던 이방언 장군에서 급보가 전달되어 김재계 선생이 이야기한 “이번에 보성, 장흥, 강진, 병영성을 함락하고 다시 남면(용산면) 여산 앞에 와서 머무르고 있는데, 본 읍(장흥읍)으로부터 소식이 오기를 경군과 일본군이 본 읍 남산 봉명대에 머무르고 있다고 한다. 이 소식을 들은 수 십 만 군중은 일시에 더욱 흥분되어 기세를 올리며 바로 석대들에서 남산으로 직접 충돌할 때~”로 이어져 곧 장흥동학농민혁명 최후전투의 핵심인 14일의 석대혈전을 예고한다.

### 6-5-2. 유앵동(有鶯洞)전투

- <19대대 숙박표> 13일: 支1능주滯, 支2영암, 장흥부근(유앵동)戰, 支장흥.

#### 후비보병 19대대 1중대 전공조서(하사관)25)

| 전 투 지 명 |    |    | 회수 | 등급   | 성명    |
|---------|----|----|----|------|-------|
| 유앵동     | 장흥 | 장흥 | 3회 | 일등군조 | 小松齊   |
| 상동      | 상동 | 상동 | 상동 | 상동   | 魚佳房吉  |
| 상동      | 상동 | 상동 | 상동 | 상동   | 兵頭輝行  |
| 상동      | 상동 | 상동 | 상동 | 이등군조 | 中川龜太郎 |

25) 원문에는 도표를 달리하여 상등병(上等兵) 11명, 병졸(兵卒) 42명이 모두 똑같은 전투지명과 전투출격 3회 등으로 명단이 나오나 하사관 이하는 생략한다. 또한 하사관 이상인 소대장 중 대장도 역시 생략한다. 이 명단은 본서 2권의 부록II “동학농민군 토벌에 참가한 일본군 명단”에 모두 나온다. <주한일본공사관기록> 6권 75~77쪽 참조.

- <동학당토벌공보><sup>26)</sup>: 파맥역(波麥驛)에 이르러 사영(舍營)하였다. 도착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주회(李周會; 李鳳榮의 별명)<sup>27)</sup>로부터 다음의 정보가 전해졌다. 일본군과 경군의 일부는 이미 지난 8일(음력 12월 13일) 장흥부(長興府)로 가서 동학도와 장흥부의 북방 약 2 리(한국식으로는 20리)의 지점에서 싸워 크게 이를 격파하여 시체가 산을 이루었다고 한다.

이 유앵동(有鶯洞) 전투도 위의 13일 동트기 전에 벌인 남외리 전투와 함께 후비보병 19대대 1중대가 벌인 전투이다. 남외리 전투가 동트기 전이었으니, 유앵동 전투는 남외리 전투를 벌인 다음에 벌인 전투이다. 또한 전투상보가 작성되었다. 이 전투(장흥전투 2회 포함)로 인해 상훈을 받은 사람이 1중대장 송목정보(松木正保), 소대장 식야준성(植野俊成)을 포함하여 하사관 4명, 상등병(上等兵) 11명, 병졸(兵卒)이 42명이나 되기 때문에 전투규모면에서 무척 엄청난 전투이며, 그만큼 농민군에게도 희생이 많은 전투이다.

<19대대 숙박표>의 13일에는 장흥과 관련하여 본래 “支1능주滯, 支2영암, 장흥부근戰, 支장흥”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장흥부근戰”을 “장흥부근(유앵동)戰”으로 필자가 괄호 속에 유앵동을 추가시켰다.

12월 13일의 부산면 유앵동(有鶯洞) 전투는 학계에서 그 동안 유앵동 자체가 어느 곳인지 파악도 못하고 있었다. 때문에 유앵동 전투를 언급한 학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 유앵동(有鶯洞)이 현 부산면 유량리(有良里)라는 것을 확인해준 분은 향토사학자 조천(朝天) 양기수 선생이며, 필자도 유량리의 촌로(村老)를 통해 재차 확인했다.

장흥인근에서 유앵동을 찾으려면 지금도 보성군 득량면에는 유앵동(有鶯洞)이란 지명과 조양촌(朝陽村)이란 옛 지명을 가진 곳이 있지만 일단 보성은 부산수비대가 토벌을 맡은 지역이고, 12월 12~13일에 부산수비대는 광양에서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보성군 득량면의 유앵동과 조양촌은 처음부터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다.

필자가 유앵동이 장흥의 어느 곳일 것이라는 심증을 갖게 된 것은 <주한일본공사관기록> 제 6권 75쪽~79쪽(별첨: 3)에 나오는 위의 “동학당 정벌 공훈자에 대한 논공건의 건”의 포상 상신자 전공조서를 통해서이다. 일본 후비보병 19대대 1중대장이 작성한 전공조서에 의하면 전투에 참여한 자로써 공로가 있는 자와 전투를 하지 않은 자로 공로 있는 자의 명단이 나오는데, 유앵동, 장흥, 장흥, 전투회수 3회라고

26) 일본신문 이륙신보(二六新報) 을미년 양력 2월 10(음력: 1월 16일)일자에 부산의 병참사령관 겸 정박장 사령관 이진야천리(伊津野千里)가 전라도 남부로 파견한 부산수비대 4중대장 영목안민(鈴木安民) 대위가 1월 15일(음력: 12월 20일) 보성에서 보낸 제 3회 전황보고서를 인천 병참사령관에게 보낸 <동학당토벌공보> “전라도 남부의 동학당”편에 실려 있는 글 중에서 유앵동 전투로 추정되는 부분을 발췌하였다.

27) 좌수영 영관으로 휘하의 영장 김경운, 중초장 곽경환과 함께 부산수비대를 따라 한때 장흥부로 들어온 일이 있다.

함께 묶여 출전한다.<sup>28)</sup> 하지만 <주한일본공사관기록>에서는 유앵동 전투가 있었음은 확인시켜 주고 있지만 전투 날짜를 전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필자가 유앵동 전투를 12월 13일로 추정하게 된 것은 유앵동 전투로 추정되는 기존의 국내기록과 일본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국내기록으로는 1993년 발행된 <전남도지> 6권 207쪽에서 1969년 신구문화사에서 발행된 <한국근대사> 1권을 인용하여 “장흥부 북편 20리 지점에서 동학군은 일본군 및 관군과 지난 12월 13일에 격전을 벌인 끝에 패하여 흩어졌다. 그후로 동학군은 군내 각처에 잠복하여 있었다. 일본군의 중대병력이 여기에서 머물러 수색전을 벌였다.”라는 기록이 있다.

또한 추적과정에서 뜻밖에 <사료총서> 22권 265~266쪽 이륙신보(二六新報)에 부산수비대 4중대장 영목안민(鈴木安民)이 보성에서 부산의 병참사령관 겸 정박장사령관인 이진야천리(伊津野千里)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장흥부의 북방 약 2 리(20리)의 지점에서 싸워 크게 이를 격파하여 시체가 산을 이루었다고 한다.”라는 내용을 발견하여 <한국근대사> 1권의 “장흥부 북편 20리 지점”을 증명해 주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한일본공사관기록>을 번역할 때 일본의 1리는 한국의 10리로 환산하여 번역하기 때문에 장흥부 북방 2리는 장흥부 북방 20리가 된다.

유앵동에서 빈재는 유치면에서 부산면과 장흥읍으로 넘어오는 비록 시설물은 없지만 관문에 해당되어 유치면 조양촌이 그랬듯이 농민군이 반드시 지키고 있을만한 곳이었다.

이 유앵동 전투를 담당했던 부대는 이사경(李士京)이 지휘하는 부대가 틀림없을 것이다. 이사경은 바로 유앵동과 지척에 있는 당시 용계면(龍溪面) 용반리 출신이다. 또한 용계면의 동학세력은 이방언의 남상면과 이인환의 대흥면과 함께 장흥의 3대 세력으로 꼽히는 곳이기 때문에 비록 패전은 하였지만 어느 곳보다도 치열하게 응전하여 피해가 컸을 것으로 본다.

전투규모와 농민군의 희생에 대해서 부산수비대 영목안민(鈴木安民)의 “싸워 크게 이를 격파하여 시체가 산을 이루었다.” 외에는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없지만 일본군에 의해 전투상보가 작성되었고, 이 전투로 인해 많은 일본군이 상훈을 받은 것으로 가늠해 볼 뿐이다. 때문에 앞으로 장흥동학농민혁명사와 이를 기념하는 일련의 현양사업에서는 유앵동 전투를 석대혈전 다음으로 중요한 전투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 6-6. 12월 14일~15일의 석대혈전

이른바 역사에서 동학농민혁명 최후전투, 최후격전지, 석대전투, 석대혈전이라고

28) <주한일본공사관기록> 6권 91쪽에 남소사랑(南小四郎)의 공훈기록에 장흥전투 및 유앵동전투를 지휘한 소대장은 “육군보병 소위 식야준성(植野俊成: 1중대 소대장)은 동학당 정도를 위해 동로로 분진한 제1중대의 소대장으로서 동학도를 끝까지 몰아붙였으며, 나주에 당도해서는 지대장이 되어 장흥과 유앵동(有驚洞) 전투에서 공로가 있는 사람임.” 참조.

불리는 장흥전투의 핵심인 석대들에서 농민군과 한일연합군이 벌인 전투를 동학농민혁명 장흥전투의 대명사로 삼고 있다. 이 때문에 장흥의 많은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에서 정부는 남문밖 석대들을 동학농민혁명 사적(史蹟) 498호로 지정하였다.

석대들에서 벌인 회심의 일전에 대한 기록도 풍부한 편이고, 많은 학자들이 장흥전투를 기술할 때 모두 석대들에서 한일연합군과 벌인 전투를 중심전투로 기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 석대들에서 벌인 전투에 대해 정해진 고유 명칭이 없이 부르는 사람과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에 따라 각기 달리 불리고 있다.

본서가 석대들에서 벌인 전투를 “석대혈전”이라고 표기한 것은 장흥동학농민군의 후예인 천도교 장흥교구에서 일찍부터 석대혈전(石臺血戰)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천도교 장흥교구에서는 일제시대에 장흥의 동학농민혁명 전사들을 기록한 문헌의 제목을 “갑오동학혁명혈사(甲午東學革命血史: 약칭 血史)”라고 했다. 그만큼 피(血)를 많이 흘린 자신들의 혁명사이기 때문에 혈사(血史)라고 이름 붙이고, 장흥동학농민혁명의 가장 핵심 전투인 석대들 전투를 석대혈전(石臺血戰)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필자는 이를 따라준 것이다.

석대들에서 혈전을 벌인 이 전투의 날짜를 기존의 학자들은 모두 12월 15일 하루의 전투로 적고 있다. 그러나 장흥부 공형(公兪)은 13일로 기록하여 이규태에게 보고하였고, 장흥의 유생들이 쓴 <박후의적>, <영희단>, <임태희추기> 등에서는 14일로 적고 있다. 또한 일본군 기록에는 14일에 시작한 것은 분명하지만 당일 끝났는지 아니면 다음 날에도 석대전투가 계속되었는지를 정확하게 확정해 주지 않고 있다.

먼저 기존 사료에서 오보(誤報)를 걸러내면 경군의 기록에서 <순무선봉진등록> 12월 24일조에서 석대혈전이 12월 13일에 벌어졌다고 보고한 장흥부의 공형(公兪)의 문장에서는 전투 날짜를 잘못 전한 것 외에는 큰 문제가 없다. 다만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가 있다.

<오하기문>의 “12월 12일 이규태가 병영에 도달하여 적도들은 도망가자 추격하여 장흥의 석대산에서 대파를 했다.”와 “다음 날(13일) 새벽 적들은 또 더욱 많아져 수만 명이 성 아래에 이르렀다. 이규태가 군사를 풀어 충돌하여 적의 사망자가 심히 많아 나머지 무리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도주하게 하여 이규태는 빼어남을 다했다.”는 앞에서 이규태는 장흥에 발도 던지 않은 사람으로 오보라고 했다. 또한 황현은 석대혈전이 13일에 벌인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13일에는 동트기 전 1중대와 벌인 전투로써 석대혈전의 전초전인 남외리(남문밖) 전투이다. 13일 동트기 전에 일본군의 기습공격으로 일정 정도 농민군이 타격을 입었지만 농민군은 흩어지지 않고 더욱 기세를 모아 오히려 더 큰 석대혈전을 벌인 것이다.

<일사>에서는 석대들에서 전투가 벌어졌다는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동학의 무리 수만 명은 두 곳에 진을 치고 있었다. 경군이 연속하여 총을 쏘니 동학의 무리 수십 명이 죽고 나머지는 모두 도주하였다고 한다.”로 14일에 장흥에서 전투가 벌어졌

다는 것을 기록하면서 황당하게도 동학의 무리 수십 명을 죽이고 나머지 무리를 모두 도주시킨 것은 경군 17명에 의해서라는 것이다. 이미 앞에서 장흥의 농민군을 토벌하기 위해 동원된 한일연합군은 총 800여명에 이른다고 고증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논하지 않는다.

장흥현지 유생들이 기록한 <박후의적>, <영회단>, <임태희추기> 등에서 모두 석대혈전이 14일에 벌어졌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박후의적>과 <영회단>에서는 석대혈전을 벌인 주력부대가 남면에서 올라온 부대 곧 이방언 장군이 지휘하는 부대라고 증언하고 있다. <박후의적>, <영회단>, <임태희추기>를 종합하면 남면에서 자울재로 올라와 산야로 나뉘 한 부대는 월평으로 나가고 한 부대는 장흥부의 후륙 곧 장원봉 쪽으로 나가 장흥부를 포위했다는 것이다. 14일 석대혈전을 벌인 주력부대가 남면에서 자울재를 넘어왔다는 것은 김재계의 <갑오년 동학이야기>에서도 증명이 된다. 그리고 <동학당정토약기>에서 “적은 어느 전투에서나 산봉우리를 점령하고 함성을 질러 그 위세를 과시하였다.”에서처럼 장흥의 농민군도 자울재에서부터 장흥부의 후륙인 장원봉을 점령하여 곧 장흥읍성 주변을 포위한 것이다. 이때 한 부대는 자울재를 넘어 월평 앞으로 나간 부대는 다시 탐진강을 건너와 동문에서 남문밖의 석대들 쪽의 루트를 봉쇄한 것으로 보이고, 한 부대는 자울재에서 남문밖 석대들에서 지금의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탑 능선을 타고 장원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왕사(王師)인 경군의 기록에 달려 있는데, <순무선봉진등록> 12월 21일 조의 교도중대장 이진호의 보고와 <순무선봉진등록>의 같은 날 통위영 중우참령관이 일본군 후비보병 19대대 1중대를 따라 장흥으로 파견된 교장 황수옥의 보고를 정리한 12월 15일 석대혈전의 전투보고 내용이다.

기존 학계에서는 이 두 기록에 의해 석대전투가 12월 15일에 벌어진 것으로 기록하면서 박맹수 교수는 13일 새벽 “토벌군 선발대와 1차 접전을 벌인 농민군은 무기의 열세로 인하여 자울재를 넘어 남면(용산면), 고읍(관산읍) 등지로 퇴각하였다. 그러나 토벌군의 신식 무기의 위력에 밀려 퇴각했던 농민군은 13일부터 14일 사이에 다시 재집결하여 수만의 군세를 이루어 장흥부를 재차 포위하였다.”로 14일을 재집결하는 날로 해석하였다.

우윤 교수는 <오하기문>의 기록을 인용하여 “이규태는 달아났던 벽사역 찰방 김일원을 앞세우고, 12일 강진 병영에 도착했다. 이때 북상하려던 농민군은 관군과 일본군이 남하함에 따라 방향을 바꾸어 장흥에 집결하였다. 엄청나게 그 수가 불어난 농민군은 남문밖과 건산리 뒷산 모정등(현 장흥고등학교 뒷산)에 진을 치고 있다가 관군과 일차 접전하고 퇴각하였다. 다음 날 새벽 수만 명의 농민군이 다시 성 밑으로 집결하여 일대 접전을 벌였으나 관군의 신식무기에 밀려 퇴각하였다.”로 하여 남문밖과 건산 전투의 날짜를 특정하지 않고, 일차 접전으로 처리하면서 “다음 날 새벽

수만 명의 농민군이 다시 성 밑으로 집결하여 일대 접전을 벌였으나 관군의 신식무기에 밀려 퇴각하였다.”고 하여 다음 날이 언제인지를 특정할 수 없다. 15일의 전투 상황은 <순무선봉진등록> 12월 21일조의 교도중대장과 통위영 중우참령관의 보고를 인용하여 석대혈전을 묘사하고 있다.

최현식 선생은 “통위대 교장 황수옥이 이끄는 30명과 일본군 1중대 1소대는 당일 능주를 지나 다음 12일 밤늦게 장흥에 도착하여 13일 새벽에 남문 밖에 진을 치고 있던 동학농민군 수천 명과 접전하였다. 이 싸움에서 동학농민군은 20여명의 희생자를 내고 퇴주하였다. 그런데 12월 15일 12시경 동학농민군 수만 명이 대거 진격해와 장흥부성을 포위하려는 때에 ‘강진으로부터 백목 중위가 일본군 60명과 교도대 약 30명을 이끌고 나타났다.’일본군 백목(白木) 중위 부대와 교도대가 뜻밖에 밀어닥쳤다.”로 하여 14일을 그냥 넘어간다. 또한 이때 강진에서 군사를 이끌고 장흥으로 들어온 부대는 백목성태랑(白木誠太郎)이 지휘하는 부대가 아니라 <동학당정토약기>에 의해 삼미아일(森尾雅一)이 지휘하는 19대대 2중대와 교도중대장 이진호가 지휘하는 교도중대 본부 병력이다.

표영삼 선생은 “장흥 지역 전투는 13일에 막이 오른 것이다. 뒤이어 15일에는 석대벌 전투, 17일에는 옥산촌(玉山村) 전투로 이어지면서 일본군의 야만적 살인행위가 시작되었다.”로 하여 14일을 그냥 넘어간다.

그러나 14일의 <19대대 숙박표>에서는 남소사랑(南小四郎)은 “支1능주滯, 支2장진滯, 支장흥滯戰.”이라 하여 14일에 장흥에서 전투가 있었음을 표시하고 오히려 15일에는 “支1능주滯, 支2장흥.”라고만 표시하여 전투 상황을 표시하지 않고, 14일에 강진에 있었던 삼미아일(森尾雅一)이 지휘하는 2중대가 15일에는 장흥에 있었음을 표시하고 있다. 그리고 <동학당정토약기>에서 “3개 지대 중 우측 지대(2중대)는 강진에서 비도와 싸우느라 약간 늦었고,<sup>29)</sup> 장흥의 적은 좌측지대(松木正保의 1중대)와 중로지대(黑石光正의 3중대, 白木誠太郎의 대대본부 소속)가 이들을 소탕하였다. 그러나 강진에서의 격전은 결국 장흥의 적 격퇴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고 하면서 “7, 8, 9일 3일간(음력: 1894년 12월 12일, 13일, 14일)은 매일 싸웠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왜 남소사랑(南小四郎)은 <순무선봉진등록>이 전한 12월 15일(양력: 1월 10일)은 매일 싸우지 않았다고 했을까? 12일(양력: 1월 7일)과 13일(양력: 1월 8일)에는 오전과 오후에 전투를 치렀음을 이미 앞에서 증명했다. 한 나절의 전투가 아닌 것이다. 14일(양력 1월 9일)은 다른 장소가 아닌 석대들에서 온 종일 싸워 농

29) <우선봉일기> 1월 2일조에 “강진현감의 첩보에 “금월 초 7일 갑자기 동학도들한테 성이 함락을 당할 때 도륙과 분탕질을 한 사유는 이미 동네에 촛불처럼 드러났습니다. 12월 14일 경군이 도착한 후 흉도 비류가 동쪽으로 숨고 서쪽으로 달아나 혹은 산중으로 잠복하고 촌락에서 증적을 감춰 모이고 흩어짐이 일정하지 않아 정황을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에서 말한 경군은 이진호가 지휘하는 교도중대이다. 당시 교도중대장 이진호는 일본군 19대대 2중대장 삼미아일(森尾雅一)을 따라 12월 14일 강진에서 농민군을 물리친다.

민군을 크게 패전시켜 재기가 불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15일(양력: 1월 10일) 오전에는 안심하고 강진에서 장흥으로 행군하여 온 우측지대(2중대)와 교도중대장이 지휘하는 교도중대와 함께 연일 전투의 피로를 달래기 위해 달콤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오시(午時: 오전 11~오후 1시)경에 다시 장흥농민군에게 기습을 당해 어리둥절하다 4시간 정도인 한나절에 걸쳐 간신히 농민군을 자올재 밖으로 내몰았기 때문에 15일(양력: 1월 10일)은 매일 싸웠다고 하지 않은 것 같다.

문제가 된 석대혈전을 언제 시작하였는가의 해답은 여기에 있다. 장흥 유생들이 한결같이 석대혈전의 날짜를 14일로 기록하고 있음이 옳다. 결론지어 말하면 석대혈전은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치러 친다. 남소사랑(南小四郎)이 “7, 8, 9일 3일간(음력: 1894년 12월 12일, 13일, 14일)은 매일 싸웠다.”고 한 9일(음력 14일)에 석대혈전이 시작된 것이다.

<순무선봉진등록> 12월 21일조의 석대혈전에 관한 두 기록에서 먼저 교도중대장이진호의 보고는 15일의 석대혈전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동학당정토약기>에서 “3개 지대 중 우측지대(2중대)는 강진에서 비도와 싸우느라 약간 늦었고, 장흥의 적은 좌측지대(松木正保의 1중대)와 중로지대(黑石光正, 白木誠太郎)가 이들을 소탕하였다.”에서 보듯이 14일 석대혈전이 시작할 때 우측지대(2중대)와 교도중대장은 강진에서 싸우느라 14일에는 장흥에 오지 않았음이 <19대대 숙박표>에서 “支2강진滯”가 증명해 주고, <우선봉일기> 1월 2일조의 강진현감의 첩보가 이를 보완해 준다.

14일 석대혈전이 시작되어 좌측지대(松木正保의 1중대)와 중로지대(黑石光正, 白木誠太郎)가 이미 상당히 농민군을 소탕한 뒤 삼미아일(森尾雅一)의 2중대와 교도중대장이 직접 지휘하는 교도중대 병력은 강진의 농민군을 14일 소탕하고, 14일을 강진에서 체류한 다음 15일 장흥으로 들어온 것이다.

14일 일대 혈전을 벌여 패전한 농민군이 그대로 물러나지 않고 농민군을 수습하여 재차 15일 석대들에서 혈전을 벌일 때 강진에서 백목(白木) 중위가 아닌 삼미아일(森尾雅一)의 2중대와 교도중대장이 장흥으로 들어와 15일 오시(午時: 오전 11시~오후 1시) 경에 벌어진 전투에 참여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통위영 중우참령관이 황수옥의 보고에 기초하여 작성한 <순무선봉진등록> 12월 21일조의 “15일 오시(午時: 오전 11~오후 1시) 경에 적도 수 만 명이 다시 모여 사방으로 에워쌀 때에 일본 병사와 교도소의 군대가 뜻밖에 들어와 힘을 합쳐 진군하여 200여 명을 총살하고, 나머지 무리는 전세가 다하고 힘이 다하여 끝내 도망갔습니다.”와 잘 연결된다.

15일의 전투가 오시(午時: 오전 11~오후 1시) 경에 벌어졌다는 것을 구체화시키면 교도중대장의 보고인 “15일 장흥읍(長興邑)에 도착하여 (중략) 부대를 주둔하고 다리를 잠시 쉴 때에 뜻하지 않게 비류 수 삼만 명이 남으로는 높은 봉우리 밑에서 부터 북으로는 뒷산기슭의 주봉(主峰)에 이르기까지 산과 들에 가득하여”와 연결된다. 14일 강진의 농민군을 토벌하고 곧바로 장흥으로 오지 않고, 14일을 강진에서

유숙한 2중대와 교도중대는 아침에 일찍 장흥으로 출발하여 오전 중에 장흥에 도착하여 부대를 주둔하고 다리를 잠시 쉴 때에 뜻하지 않게 비류 수 삼만 명이 남으로 높은 봉우리 밑에서부터 북으로는 뒷산기슭의 주봉(主峰)에 이르기까지 산과 들에 가득한 상황이 14일에 이어 다시 재현된 것이다.

14일의 석대혈전으로 피곤하여 송목정보(松木正保)의 1중대나 흑석광정(黑石光正)의 3중대나 백목성태랑(白木誠太郎)의 대대본부 소속의 중로(中路)부대는 15일 오전을 휴식으로 보내고 있었다. 이때 14일 강진에서 전투를 치루고, 15일 아침 장흥으로 행군해온 삼미아일(森尾雅一)의 부대와 이진호의 교도중대도 장흥에 도착하여 막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때 뜻하지 않게 비류 수 삼만 명이 남으로는 높은 봉우리 밑에서부터 북으로는 뒷산기슭의 주봉(主峰)에 이르기까지 산과 들에 가득한 상황에 이른 것이다. <임태희추기>에서 날짜는 14일로 적고 있지만 “왕사(王師)가 편안히 있을 때 적병은 성을 둘러싸고 있었다.”의 상황이 15일의 상황인 것이다.

14일 석대혈전에서 농민군을 희생하지 못할 정도로 격퇴시켰다고 생각하여 안심하고, 15일 오전을 휴식으로 보내고 있을 때 농민군은 재차 장녕성을 탈환하기 위해 기습공격을 감행한 것이다.

조양촌 전투에서 보듯이 일본군 기록이나 관군기록에는 농민군에게 당한 사건은 전공(戰功)과 관련이 있어 잘 기록을 하지 않듯이 일촉즉발의 상황이 도래했지만 강진에서 합류한 2중대와 교도중대가 있어 크게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이다.

때문에 남소사랑(南小四郎)은 2중대와 교도중대가 14일 석대혈전에 참전하지 않고, 오히려 15일 장흥으로 들어온 것이 전화위복이 되어 “그러나 강진에서의 격전은 결국 장흥의 적 격퇴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라고 평가한 것이다. 만일 14일 강진에서 농민군을 격퇴하지 않았다면 15일 재차 벌인 석대혈전에 강진의 농민군도 결합하였다면 큰 화를 당할 뻔 했다는 말로 들린다.

15일에 벌인 석대혈전도 결과는 한일연합군이 크게 이겼지만 오전의 기습공격에 크게 놀랐던 모양이다. 교도중대장의 “20리 되는 자오현(自吾峴: 자울재)까지 추격하자 이 때 해는 서산에 걸려 있고 북풍 찬바람은 불어오고 병사들은 굶주린 기색이었습니다.”는 오시(午時: 오전 11~오후 1시)경에 기습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한일연합군은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했을 것이다. 전투를 벌려 자울재까지 추격했을 때는 해가 서산에 걸려 있었다고 했으니 약 4시간 이상을 전투를 하였고, 병사들은 굶주린 기색이었다고 했으니 지칠 대로 지쳤다는 것이다.

석대에서 자울재까지는 10리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교도중대장은 4시간의 사투 끝에 겨우 농민군을 10리도 몰아내지 못했다고 보고하면 그들의 전공(戰功)에 허물이 되기 때문에 20리 되는 자오현(자울재)까지 추격했다고 과장하여 보고를 했다.

자울재에서 더 이상 농민군을 추격하지 못하고 회군 할 때의 묘사를 보면 “남쪽을 바라보니 깊은 계곡이 구불구불 이어져있고, 대숲이 빼곡히 들어서 있어 잘못될 염려가 있을듯하여 즉시 본 진영으로 회군하였습니다.”라고 하여 자울재 아래 용산면

어산 방향으로 이어지는 길이 좁고 구불구불하여 전후가 잘 살피지 않는데다 석대혈전에서 농민군에게 큰 타격을 입힌 대숲의 매복 공격을 혹 오히려 자기들이 당할까 봐 두려움에 회군을 한 것이다.

한일연합군의 자울재에서 회군은 장흥농민군에게 다시 한번 부대를 수습할 기회를 만들어 주어 다음의 옥산촌 전투를 갖게 만든다.

연 이틀의 석대혈전의 패전으로 인해 많은 인명의 사상자가 나고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판단이 들어 외지에서 합류한 농민군은 이때 대거 장흥을 빠져나간다. 장흥 전투에 장흥외의 타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농민군으로는 당연히 강진이 가장 많고, 보성과 해남, 영암 등의 농민군이 12월 4일 벽사역부터 12월 10일 병영성을 함락하는 사이에 대거 장흥농민군으로 합류한다.

조직적으로는 12월 1일 장평면 사창에서 합류한 금구의 김방서 부대, 화순의 김수근 부대, 능주의 조종순 부대는 장흥전투 이전부터 장흥농민군과 운명을 같이 하다 석대혈전 패전 때 눈물을 머금고 향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11월 21일 기포한 응치의 농민군도 이때 응치방향으로 상당수가 퇴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선봉일기>에서 문공진이 보성에서 체포된 날짜가 12월 15일이고, 영목안민(鈴木安民) 중대장이 지휘하는 부산수비대의 전황보고인 <동학당토벌공보>에서 1월 11일(음력: 12월 16일)에 응치면 오류촌(五柳村)이 토벌 당하고, 12일(음력: 12월 17일)에는 “지난날 장흥부근의 전투에서 패한 많은 동학도가 당 군(보성군) 소관의 각처에 숨어 있어서 중대는 당분간 당지(보성)에 체재하여 잔당정벌을 결정하고 오로지 사방을 수색시켰다.”고 했다. 그리고 13일(음력: 12월 18일)은 응치면 보춘동(普春洞)이 부산수비대에 의해 토벌 당한다.

3만 여명이 모인 석대혈전에 과연 외지에서 장흥으로 모여든 농민군의 그 외연은 얼마나 넓은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기록이 앞에서 자주 인용한 <동학사> 4권 입사출생(入死出生)편과 <우선봉일기>에 있다.

전주 도인 김동진(金東鎭)은 장흥접전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중도에서 경군을 만나 쫓기어 달아나다 보성 우산강(牛山江)에 몸을 던져 수 십리 동안을 흘러 내려가다가 다행히 여울물에 걸려 나왔다.(동학사 4권)

전주 도인 김동진이 장흥의 접전에 참여했다는 <동학사>의 기록은 훗날 저자 오지영이 장흥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전주의 김동진의 증언을 바탕으로 기록하였기 때문에 틀림없는 사실이다. 11월 23일 삼례전투 패배 후 농민군은 전주로 퇴각한다. 바로 이때 전주로 들어간 농민군을 토벌하기 위해 11월 24일부터 일본군 후비보병 19대대 대대본부와 2중대 3중대와 경군을 통합하여 운영한다. 한일연합군은 11월 24~29일까지 전주를 중심으로 인근의 무주, 금구, 태인, 장수, 정읍, 천원(川原)

등을 토벌한다. 아마 이때 전주 도인 김동진(金東鎭)이 이방언 장군을 따라 12월 1일 장흥으로 남하한 것으로 보인다. 전주에서 김동진이 이방언 장군을 따라 남하할 때 어디 한 두 명이 따라 왔겠는가?

또한 <우선봉일기> 12월 23일조에 “회령면 통수(統首)의 보고에 ‘본 면 각 마을에 타지에서 도주해온 자로 본래 무안에 거주하는 접주 박치경(朴致京), 접주 박채현(朴采玄), 접사(接司) 임학(林學) 위협에 놀려 복종한 자 김몽길(金夢吉) 등 합네 놈을 결박하여 상부로 보냈습니다.’고 했다.”에서처럼 무안의 농민군이 장흥에서 체포되었다.

회령면 통수는 타지에서 도주해온 자라고 했지만 이들은 이규태가 무안으로 토벌을 하러간 12월 11일 이후에 장흥으로 도주해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들은 아마도 장흥전투가 승전하고 있을 때 한편으로는 무안의 토벌을 피하고 한편으로는 장흥의 승전의 소식을 듣고 합세하기 위해 왔다가 장흥전투의 패배 후 무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회령면에서 은신하다가 체포되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무안군의 농민군이 상당히 조직적으로 장흥전투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천도교 장흥교구에서 작성한 <갑오동학혁명혈사>의 마지막 부분에서 무안군 고막원 접전기(接戰記) 등을 기록해 두지 않았나 모른다.

이상은 우리나라 동학농민혁명사에서 대미를 장식하는 동학농민혁명 최후전투 또는 최후격전지라 불리는 장흥전투의 핵심인 석대혈전의 기존문헌을 모두 모아서 이를 검토하였다.

필자가 석대혈전을 결론지어 말하기를 12월 15일 하루에 벌어진 전투가 아니라 14일에서 15일에 걸쳐 이틀간 벌어진 전투이고, 가장 많은 피로 얼룩진 혈전(血戰)을 벌인 전투를 하루도 아닌 이틀에 걸쳐 수행하였다고 했다. 그 이전 12일과 13일에도 오전 오후 각기 두 차례의 총 4회의 전투에서 패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4일과 15일에도 한일연합군과 전투를 벌인 저력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아무리 깊이 사려를 해봐도 뜻이 미치지 못하니 안타까울 뿐이다.

끝으로 일본군의 포상기록인 “동학당 정토 공로자에 대한 논공 건의의 건”에 나오는 1중대의 하사관이하 57명의 아래 전공조서 도표에서 유앵동 전투를 먼저 표시하고 다음에 장흥전투 2회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 전공조서에 나온 장흥전투 2회는 12일 아침의 조양촌전투나 12일 저녁의 건산전투와 13일 동트기 전의 남문밖 전투도 아닌 14일 온종일의 석대혈전과 15일 오후의 석대혈전과 자울재 등의 전투라고 단언한다.

일본군의 장흥지역의 전투상보 목록에는 조양촌부근전투, 유앵동부근전투, 장흥부(長興府)전투, 장흥인근전투, 옥산촌부근전투라는 지명이 나오지만 1중대가 전공을 올려 상훈을 받는 전투는 유앵동전투 1회, 장흥전투 2회로 일본군 입장에서는 가장 치열한 전투였고, 전공도 많은 전투가 13일 오후의 부산면 유앵동 전투와 14일과

15일에 벌인 석대혈전인 장흥전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한다.

## 6-7. 12월 16일 옥산촌 전투

일본군의 전투상보 목록에도 나와 있는 옥산촌 전투를 기술함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옥산촌 전투가 벌어진 날짜를 일본군은 12월 16일로 적고 있고, 교도중대장 이진호는 17일로 적고 있는 점이다. 옥산촌 전투는 여러 정황으로 보아 석대혈전처럼 이틀에 걸쳐 치른 전투는 아니라고 본다. 이미 농민군은 석대혈전에서 크게 패전을 하여 옥산촌을 근거지로 하여 이틀간 전투를 벌일 여력이 없고, 일본군이 연일 패전한 4~5천명의 농민군을 상대로 이틀에 걸쳐 전투를 벌려야 하는 수준은 절대 아니다.

필자는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 <19대대 숙박표>를 따라 옥산촌 전투는 12월 17일 아니라 12월 16일에 벌어졌다고 본다. 이미 한일연합군이 14일 온종일 석대혈전에서 농민군을 대패시켜 안심하고 잔당토벌을 미루고 있다가 15일 오전에 휴식을 취하는 도중 오시(午時: 오전 11~오후 1시)경에 기습을 당한 사례가 있어 농민군에게 잔당을 수습하는 틈을 주지 않기 위해 16일 하루 휴식을 취하지 않고, 고읍면에 농민군이 모여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한일연합군은 곧바로 공격을 취한 것 같다.

자울재를 넘어 남면을 거쳐 솔치재에서 정황을 파악한 뒤 대내장(竹川場: 죽청이 아니라 현재 죽교(竹橋)라고 부르는 부근)의 하천을 사이에 두고 일단은 옥산촌에 진을 치고 있는 농민군과 대치하다 죽교를 넘어 옥산촌으로 진격하여 전투를 벌인 것 같다.

이 옥산촌 전투도 농민군의 저항이 대단하여 한일연합군은 단숨에 격퇴시키지 못하고, 밤이 가까워 때까지 전투를 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 최소한 4~5시간의 전투 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표영삼 선생이 채록한 “관산읍에 사는 손동옥(孫東玉)의 증언에 따르면 ‘동학군과 일본군은 고읍천(古邑川)을 사이에 두고 3~4시간 싸우다가 동학군이 패했다. 총소리에 놀란 옥산 주민들은 뒷산으로 피신하여 온 산이 백산이 되었다. 일본군은 이들에게 총격을 퍼부어 무고한 주민들이 많이 사살되었다.’”를 보면 솔치재를 넘어 오는 한일연합군을 발견한 농민군이 옥산촌에서 앉아서 한일연합군을 기다리지 않고, 고읍천 앞까지 진격하여 고읍천을 넘어오지 못하게 대포 등을 쏘며 저항하다가 끝내 옥산촌으로 밀려 천관산 기슭인 금성당(金城堂) 능선을 요새로 잡아 전투를 벌이다 패전한 것 같다.

이때 패전하여 도주하는 농민군을 5리쯤 뒤쫓다가 그때 마침 눈바람이 크게 일어나고 또 황혼으로 밤이 가까워 즉시 회군하였다고 했다. 여기서 농민군이 도주한 방향은 강진군 칠량면으로 넘어가는 방향과 방촌으로 넘어가는 두 방향과 천산관 등지의 사방으로 도주를 하였을 것인데, 유독 5리쯤 쫓아간 방향은 아마 방촌 방향일 것

이다. 그 이유는 옥산촌 전투를 이끈 사람은 이인환<sup>30)</sup>으로 그의 휘하에 있는 대흥면의 농민군은 당연히 방촌 방향으로 도주할 것인데, 많은 농민군이 방촌 방향으로 달아나자 한때 뒤쫓았을 것이다.

<순무선봉진등록>의 “황혼으로 밤이 가까워 즉시 회군하여 진영을 쉬게 하였습니다.”에서 회군하여 진영에서 쉰 곳은 장흥읍으로 추정할 필요가 없다. 다음 날 17일 바로 일본군 2중대와 3중대가 대흥면으로 진격을 하기 때문에 장흥읍으로 갔다가 다시 대흥면으로 나갈 수는 없는 것이다.

- <동학당토벌공보>: 제18대대의 교도중대는 죽천동(竹川洞)부근에서 3, 4백의 적을 만나 이를 격파하였고, 경성의 한국 병사 100명도 동 대의 뒤를 쫓아 광양에서 순천 낙안을 거쳐 당 군에 왔다가 이미 오늘 능주를 향하여 출발하였다.

위의 부산수비대의 영목안민(鈴木安民)의 보고서에 “제18대대의 교도중대”는 백목성태랑(白木誠太郎)을 수행하는 교도중대를 말하고, “경성의 한국 병사 100명도 동대의 뒤를 쫓아 광양에서 순천 낙안을 거쳐 당 군에 왔다가 이미 오늘 능주를 향하여 출발하였다.”는 기록은 다소 혼란스럽다. 여기서 경성의 한국 병사는 당연히 일본군 1중대를 수행한 통위영 병사로 “광양에서 순천 낙안을 거쳐 당 군에 왔다”는 장차 20일 오게 될 이두황군의 행로이기 때문에 잘못되었다. “당 군에 왔다가 이미 오늘 능주를 향하여 출발하였다.”는 그 동안 장흥전투에서 가장 많은 공훈을 세운 1중대를 따라 일단은 통위영 병사도 능주로 갔다는 말인데, 12월 11일 처음 나주에서 1중대를 따라 나설 때는 30명이었는데, 영목안민(鈴木安民)의 보고내용이 맞다면 통위영의 부대는 그 동안에 증원이 되었다는 말이다.

옥산촌 전투를 벌인 부대는 장흥전투에서 가장 많은 공훈을 세운 송목정보(松木正保)의 1중대가 아니라 삼미아일(森尾雅一)이 지휘하는 2중대와 교도중대장 이진호 병력의 우측지대와 백목성태랑(白木誠太郎)이 지휘하는 대대본부 소속부대와 그를 수행한 교도중대 병력의 중로지대로 앞에서 한일연합군 계산 방식을 따르면 대략 일본군 250(2중대 150명, 대대본부 소속 100명)여명과 교도중대 180(중대장 인솔 150명, 白木을 수행한 부대 30명)여명으로 총 430여명으로 추산된다.

끝으로 이렇게 많은 한일연합군과 12월 16일 옥산촌에서 전투를 벌인 주력부대는 고읍접주 김학삼(金學三)과 대흥대접주 이인환(李仁煥)이 지휘하는 부대이다. 김학삼(金學三)은 1852년 출생하였다. 본관은 김해 김씨 공간공파(恭簡公派)로 족보명은 상휴(相休), 字는 학삼(學三), 號는 모성당(慕聖堂)이다. 또한 이방언 장군과는 내중당숙질 사이이다. 옥산전투에서 패전한 후 처가인 방촌에 피신해 있다가 체포되어 12월 26일 장흥 벽사역에서 43세의 나이로 처형당한다.

30) <우선봉일기>에서 한때 이인환의 부인을 체포하여 그의 행적을 묻자 옥산촌 전투에서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자 관군은 이인환의 시체를 찾기 위해 옥산촌으로 나간 일이 있다.

## 6-8. 12월 17일 마지막 전투인 대흥면 월정전투

- <19대대 숙박표> 12월 17일: 支1능주滯, 支2대흥면(大興面), 支2대흥면(제3중대를 합함).

- <장흥군향토지>: 패전한 동학군은 건산리 모정고지에 진을 치고 관군과 대치하던 중 부산방면에서의 관군의 증원부대의 내습으로 더 고전할 수밖에 없게 되자 석대와 모정의 패잔 동학군은 용산 자울재에 집결하여 군세를 정비하고 관군과 결전했으나 역시 패전하여 대덕 월정에 집결하고 다시 관군을 요격하였으나 기진역갈(氣盡力竭)하여 패도하였다고 전해온다.

- <대덕읍지> 529쪽: 1895년 1월. 전 해에 봉기한 동학농민혁명군이 석대혈전에서 패하자 퇴각을 해 남쪽인 용산 관산에서 소규모 접전을 하였으나 패하자 마지막으로 월정마을에 진을 쳤다. 이름하여 이곳을 진터깨라 한다.

그 동안 학계에서는 고읍면의 옥산촌 전투를 장흥전투에서 마지막 전투라고 결론 내렸다. 때문에 <장흥군향토지>가 전한 “석대와 모정의 패잔 동학군은 용산 자울재에 집결하여 군세를 정비하고 관군과 결전했으나 역시 패전하여 대덕 월정에 집결하고 다시 관군을 요격하였으나 기진역갈(氣盡力竭)하여 패도하였다고 전해온다.”는 말은 무시당했다.

16일 고읍면 옥산촌 전투에서 패배한 농민군은 사방으로 흩어질 때 대흥면 농민군은 한일연합군의 5리 정도의 추격을 당하면서도 다행히 섬멸되지 않았다. 대흥면 농민군은 장흥동학농민군 중에서도 최강을 자랑하는 부대이다. 11월 21일 구교철이 웅치면에서 기포하자마자 장흥부사가 병영군과 합세하여 토벌을 감행할 때 곤욕을 치루기도 했지만 11월 25일 이인환이 대흥면에서 출정 기포하여 회령면에 당도한 후로는 장흥부의 수성군과 병영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차례로 함락당하는 수모를 안겨준 부대이다. 이러한 대흥면의 이인환 부대가 주축이 되어 대흥면의 안 동네인 월정리(月亭里)에 진을 치고 마지막으로 한일연합군과 전투를 벌였다.

이 대흥면 월정리의 마지막 전투는 도피하여 숨어 있는 농민군을 토벌한 것이 아니라 천태산과 대흥면에서 강진군 대구면으로 넘어가는 지체재를 요새로 삼아 확실하게 진을 치고 대항한 곳이다. 이인환 부대가 월정리에서 진을 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일본군은 이를 토벌하기 위해 15일 석대혈전을 벌일 때 강진에서 장흥으로 들어온 부대인 후비보병 19대대 삼미아일(森尾雅一)이 지휘하는 2중대의 병력과 교도중대장 이진호의 교도중대 병력이 16일 고읍면에서 장흥읍으로 철수하지 않고 주

둔하다가 바로 대흥면으로 투입된 것이다.

일본군은 이인환 부대의 막강함을 알아서인지 흑석광정(黑石光正)이 지휘하는 3중대까지를 합하여 전투에 투입한 것이다. 흑석광정(黑石光正)의 3중대는 12월 12일 유치면 조양촌 전투에서 농민군을 패전시킨 다음 안심하고 아침을 먹다가 농민군의 기습을 받아 한바탕 곤욕을 치른 후에 장흥에 주둔하여 그 동안 중로(中路)지대라는 이름으로 장흥전투를 벌이지만 <19대대 숙박표>에서 본래의 표시인 支3(3중대)이란 본래의 표시가 이때 다시 나타난다. 3중대는 이때 강진군 대구면에서 지체재를 넘어 월정으로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2중대에는 교도중대장 이진호가 포함되어 있고, 3중대에는 처음부터 교도중대 병력 30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월정전투에 투입된 한일연합군은 고읍면의 옥산촌 전투에 투입된 병력보다 많은 것으로 계산된다.

일본군 한 중대 병력을 150명으로 잡아 300명의 일본군과 교도중대장 산하 150명의 병력과 3중대를 수행하는 교도중대의 병력 30명을 합해 180명의 경군의 병력의 계산되어 월정전투에 투입된 한일연합군은 총 480명 정도가 투입된 것으로 계산된다. 이렇게 많은 부대가 장흥의 대흥면과 강진의 대구면 양쪽에서 협공을 하는 바람에 이인환의 부대도 <장흥군향토지>가 전하는 말처럼 기진역갈(氣盡力竭)하여 패도를 하고 만다.

12월 17일 대흥면 월정리에 진을 치고 마지막 항전을 벌였던 농민군의 수는 정확하게 헤아릴 수 없지만 <우선봉일기> 12월 24일조의 남소사랑(南小四郎)의 지휘서신에 “덕도(德島)에 적도 5~6백명 달아나 들어갔다고 한다. 가서 추격하여 토벌이 가능한가?”로 보아 덕도(德島) 한 곳에만 피신해 있던 농민군이 5~600명이었으니, 이로써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대흥면 월정리 전투를 마지막으로 장흥농민군은 더 이상 조직적으로 항전을 벌이지 못하고, 덕도(德島)와 천관산, 천태산 등지로 피신을 하고, 일부는 회진면의 선자도에서<sup>31)</sup> 배를 타고 외부로 빠져나간다.

16일 고읍면 옥산촌에서 패전한 후 농민군이 대흥면 월정리에 진을 칠 때 들어간 많은 물자를 주변 마을에서 조달하는 과정에서 강제적인 탈취가 많았다는 구전이 전해지고, 진을 쳤던 장소를 월정리 사람들은 지금도 진터깨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아 확실히 전투가 있었던 곳이다. 때문에 장흥동학농민혁명사에서 마지막 전투는 대흥면 월정전투로 정리한다.

## 7. 여동학과 어린동학의 활약

31) 당시의 회진의 포구는 선자도에 있었다. 회령진 만호진의 함선도 선자도에 기지를 두고 정박하였다. 선자도에서 배를 타고 외부로 빠져나간 사람중에는 전 국회의원 김옥두 할아버지 형제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1990년 1월에 발간된 <장흥군지>는 1975년 4월 발간된 <장흥군향토지>의 동학 기사를 그대로 옮기면서 “이때 이소사(李召史)란 여인이 앞장서서 싸워 동학군의 사기를 진작시켜 큰 전과를 거두었다고 당시 일본의 조일신문(朝日新聞)에 기록돼 있으나 여타 동학관계기록이 없어 안타깝다. 확인된다면 3.1운동 때의 유관순처럼 한국 여성운동의 선구자로 부상될 것이다.”라는 여동학 이소사(李召史)의 활약상을 처음으로 세상에 전했다.

1990년 5월 남풍출판사에서 발행된 <역사와 현장> 1권 181~182쪽에서 송기숙 교수는 「장흥지역 동학농민전쟁 관계구전조사」에서 “당시 일본 조일신문에 장흥에서 이소사라는 여자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짚막하게 보도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여러 사람에게 물어봐도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 소사란 과부를 높여 부르는 존칭이니, 그가 이가(李哥)라면 이방언 장군의 집안 여자가 아닐까 싶으나 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 여성사에서 중용한 의미를 지니는 일일 것이다.”라고 마무리했다.

여동학 이소사의 존재를 세상에 가장 먼저 알린 문헌은 이두황의 <우선봉일기> 1895년 1월 1일조에서 남소사랑(南小四郎)에게 보낸 아래의 답신이다.

둘째, 거과 체포자(李召史) 나주로 호송이 가능하냐고 했는데, 이 역시 그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백성(民)이 처형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교령이 오고 있을 때는 민인이 체포하여 바친 여동학 1명을 소모관 백낙중(白樂中)이 받았습니다. 소모관에게 넘어가 매를 맞는 문초를 당해 살과 가죽이 진창이 되어 있으며, 교령을 받았을 때는 기운과 호흡이 헐떡거리며 생명이 얼마 남지 않는 모양입니다. 조금 늦추는 것을 용인하여 이에 안정되면 여동학(女東學)을 본부로 압송하겠습니다.

<우선봉일기> 1월 1일조에 이소사(李召史)로 밝혀진 여동학이 처음 나오지만 일기의 내용으로 보아 남소사랑(南小四郎)이 이두황에게 여동학 압송을 지시한 서신을 보낸 날짜는 12월 27일 오전 8시이므로 이소사는 이미 12월 26일 이전에 체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 농민군이 체포되면 당일 또는 2~3일 내로 처형되었는데, 1월 1일 현재까지 5일 이상 처형을 하지 않고 그것도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거물만 압송하는 나주압송 대상으로 분류된 것으로 보아 이소사는 대단한 인물임에 틀림없다. 여기서 이소사의 체포는 이미 12월 26일 이전에 있었지만 이두황이 일본군 19대대장 남소사랑(南小四郎)에게 이소사의 체포사실을 보고한 기록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소모관 백낙중의 진영에서 체포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남소사랑(南小四郎)은 12월 27일 아침 나주에서 이두황에게 지휘서신을 보내 이소사의 나주압송을 지시한다. 이처럼 남소사랑(南小四郎)이 장흥에 주재하지 않고 나주에 있으면서도 장흥의 상황을 훤히 알고 있다. 그 이유는 일본군은 전보(電報)라는 통신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시 장흥에 주둔하고 있던 영목안민(鈴

木安民)의 부산수비대에서 나주의 남소사랑(南小四郎)에게 이소사의 체포 첩보를 전달한 것 같다.

<우선봉일기>에는 여동학 이소사에 관한 기록이 위의 기록 외에도 다음과 같이 출전한다.

- 1월 1일: 양호도순무우선봉(兩湖都巡撫右先鋒)은 장흥에서 체포한 죄인 여동학 1명을 호송하는 일에 대해 명령을 내리니 장흥부 민병에게 나주로 압송하도록 하였는바, 경유하는 각처는 각별히 호송하는데 혹 막히는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헤아려 주라고 했다.

- 1월 3일: 양영(兩營)에 보낸 첩보에 장흥 민인(民人)들이 체포한 여동학(이소사)이 꺾꺾 웃으며 신이부인(神異夫人)이라 칭하며, 요상한 말을 외우며 쏟아내고 있습니다. 혹 어리석은 사람의 하나이거나 대요물인 바로 금일 초하루에 나주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 대대로 보냈습니다.

- 1월 4일: 남소사랑(南小四郎)이 보낸 서신에 첫째, 병정 100명이 금일 나주 도착했다. 그 밀보(密報)를 역시 수령했다. 둘째, 여동학을 금일 오후에 수령했다. 셋째, 소모관 백낙중을 빨리 잡아 나주로 급송하라. 넷째, 여동학 이소사의 남편을 급히 나주로 보내 그 처자를 간병하게 하라고 했다.

- 1월 4일: 남소사랑(南小四郎)에게 보낸 답신에 여동학 이소사(李召史)의 남편을 급히 기동시켜 나주로 보내 그 처자의 간병을 하게 하라는 교령을 받들기 위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40리나 되는 곳으로 사람을 보내 데려오라고 했으나 조금 늦어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오는 즉시 기동시켜 보내겠으니 헤아려 주십시오.

- 1월 7일: 여동학 이소사(李召史)의 남편 김양문(金良文)을 그 동안 4번이나 찾았고, 지금 결단하여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이에 기동하여 보내겠다는 연유를 보고 드립니다. 연일 크게 평안하시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앞에서 출전했지만 이소사(李召史)의 열전(列傳)을 통해 그 동안 수집된 자료를 이하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설명하겠다. 보통 성씨(姓氏)아래 소사(召史)를 붙였을 때 과부(寡婦)를 점잖게 일컫는 호칭으로 많이 사용되나 꼭 과부에게만 붙이는 호칭이 아니다. 필자가 2006년 <장흥동학농민혁명사료집>을 편찬할 때, 이 문구의 원문 “女東學李召史之夫金良文”을 “여동학 이소사의 시중드는 사람 김양문”으로 해석했는데, 그때는 홍계훈이 작성한 1차기포 문서인 <양호초토등록(兩湖招討騰錄)>에 전주 접주인 “허내원(許乃元)의 처 이소사(李召史)”가 있다는 정보 때문에 전주의 이소사

와 장흥의 이소사를 분간하기가 어려워 일단 장흥의 이소사를 과부로 보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이제 필자가 <양호초토등록>을 입수하여 확인한 결과 “허내원(許乃元)의 처 이소사(李召史), 정국찬(鄭國贊)의 처 김소사(金召史), 김영조(金永兆)·이보일(李甫一) 등은 처음 사교(邪教)에 물들었다가 곧 귀화하였다고 합니다.”에 의거하여 전주의 이소사와 장흥의 이소사는 다른 인물임을 확인했다. 또한 <양호초토등록>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의 부인에게도 소사(召史)라는 칭호를 붙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이제 본서에서는 이소사가 과부가 아닌 김양문(金良文)의 처로 수정한다.

남소사랑(南小四郎)은 여동학 이소사의 기록을 더욱 풍부하게 해준 사람이다. 그가 <동학당정토약기>에서 전한 이소사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 또 장흥 전투의 틈을 타서 부사를 죽인 것은 여자(이소사)라는 소문이 있었다. 그런데 그 여자 동학은 사실 미친 사람이었는데, 동학도들이 옹립해서 천사로 만들어 이용한 것이다.

- 또 그 미친 여자는 좌측지대에 소속되어 순회하던 소모관 백낙중(伯樂中)이란 자가 붙잡아 민병으로 하여금 엄하게 규문하게 하였다. 그 전부터 조선에서의 처벌이 매우 엄중하다고는 들었지만, 이 여자를 고문하는 것을 보고 정말로 놀랐다. 양쪽 허벅지의 살을 모두 잘라내어, 그 한 쪽은 살을 아주 잘라내서 뼈만 남고 또 다른 한 쪽은 피부와 살이 금방 떨어져 나갈 것처럼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여자가 압송되어 나주성에 도착했을 무렵에는 거의 죽은 송장 같았다.

- 미친 여자(이소사)는 최동자와 같은 날 도착했다. 상처 부위가 썩어 문드러져서 악취가 코를 찌르고 대소변은 앉은 채 나오는 대로 내버려두었으며 입은 것이라고는 흰옷 한 벌 뿐으로, 그 참담한 꼴은 사람들로 하여금 무의식중에 무참한 감을 느끼게 하였다. 문명한 모든 나라에서는 부녀자에 대해서는 비록 죄수라 해도 대우 면에 있어서 얼마간은 관대하므로, 나주에 도착한 뒤 그 여자를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하였다. 여러 가지 심문한 끝에 그 여자가 정신착란자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당시 봉건적인 조선사회에서 여동학 이소사가 장흥전투에 단순히 참가한 것이 아니라 말을 타고 마상 지휘를 한 여장부라는 것과 그 미모가 증출하여 한 성(城)을 기울게 하는 경성지색(傾城之色)의 꽃다운 22세의 미인이라는 것만으로도 일본신문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했다. <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 22권 499쪽과 23권 183쪽에 영인되어 있는 이소사의 일본신문 기사는 다음과 같다.

- <국민신문> 1895년 3월 5일: 동학당에 여장부가 있다. 동학당의 무리 중에 한 명의 미인이 있는데, 나이는 꽃다운 22세로 용모는 빼어나기가 경성지색(傾城之色)의 미인이라 하고, 이름은 이소사(李召史)라 한다. 오랫동안 동학도로 활동하였으며, 말을 타고 장흥부가 불타고 함락될 때 그녀는 말위에서 지휘를 하였다고 한다. 일찍이 꿈에 천신(天神)이 나타나 오래된 제기(祭器)를 주었다고 하여 동학도가 모두 존경하는 신녀(神女)가 되었다. 그러나 장흥전투의 패배로 관군에 체포되어 지금은 장흥의 철장 안에 있다고 한다. 어쩌면 작년의 신동(神童)<sup>32)</sup>의 일과 같은 것일까?(사료총서 22권 499쪽)

- <대판조일신문> 4월 7일: 여동학. 장흥부근의 동학도 무리에는 한 명의 여자가 있어 추천되어 수령(首領)이 되었다. 우리 병사가 잡아서 심문했는데, 완전히 미치광이가 되었다. 동학도가 귀신을 애기하고 신(神)을 말하는 것을 이용하여 천사(天使) 혹은 천녀(天女)라 칭하여 그로써 어리석은 백성을 선동하였다.(사료총서 23권 183쪽)

남소사랑(南小四郎)과 일본신문은 이소사를 미친 여자로 치부했지만 이소사는 체포되어 백낙중에게 넘어가자마다 당당하게 처형을 원하는 여장부였다. 때문에 소모관 백낙중에게 넘어가 매를 맞는 문초를 당해 살과 가죽이 진창이 되어 있어 이두황이 남소사랑(南小四郎)의 나주로 압송 교령을 받았을 때는 기운과 호흡이 헐떡거리며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을 정도로 모진 고문을 받았다.

이두황은 1894년 12월 30일 해시(亥時: 오후 9시~11시) 경에 남소사랑(南小四郎)의 지휘서신을 수령하여 1895년 1월 1일 오전에는 지금 상태로는 보내기 어렵다고 답신을 하였다가 오후에 다시 이소사를 나주로 압송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 호흡이 헐떡거리며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던 이소사가 “결결 웃으며 신이부인(神異夫人)이라 칭하며, 요상한 말을 외우며 쏟아내고 있습니다. 혹 어리석은 사람의 하나이거나 대요물인 바로 금일 초하루에 나주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대대로 보냈습니다.”라는 이두황이 1월 3일자에 순무영(巡撫營)으로 보낸 첩보에 의해 확인할 수 있듯이 갑자기 소생하였기 때문이다.

“결결 웃으며 신이부인(神異夫人)이라 칭하며, 요상한 말을 외우며 쏟아내고 있습니다.”라는 투의 말은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묵살하고, 일본군이나 관군이나 정부의 모든 기록이 동학도를 주문이나 외우는 어리석은 집단으로 곤장 매도하여 잘 표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크게 개의하지 않아도 되는 말이다. 호흡이 헐떡거리며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판단했던 이소사가 갑자기 소생하였기 때문에 놀라 이두황은 이소사를 대요물이라고 표현했던 것이지만 그녀의 정신력이 대단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32) 최신동, 최동자, 최동린으로도 불린다.

1월 2일경 이소사를 인수한 일본군은 이소사를 곤장 처형하지 않고 조사를 하기 위해 장흥에서 소모관에게 몹시 맞아 몸이 상한 이소사를 병간호시키기 위해 두 차례나 장흥으로 “여동학 이소사의 남편을 급히 나주로 보내 간병하게 하라.”고 지시한다. 이두황의 답변에서 단지 이소사가 살고 있는 위치를 어림할 수 있는 단서가 나온다. 장흥읍에서 40리 되는 거리라는 것이다.

필자는 “박현양 부사의 순절”편에서 여동학 이소사의 거처가 장흥부에서 40리라는 <우선봉일기>의 기록으로 보아 아마 같은 남쪽인 이인환과 이소사는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거리에 있기에 혹 이소사가 김재계 선생이 전한 <갑오년 동학이야기>에 나오는 “고읍면 송현리 등지에서는 시녀(侍女)가 나고”에서의 고읍면 송현리의 시녀가 이소사가 아닌지 의심하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때문에 장영성을 함락할 당시 이인환과 이소사는 같은 소속으로 전투 중에서는 서로가 지근거리에 있었다고 보면 <동학당정토약기>에서 “부사의 목을 내친 사람을 여동학(이소사)이라는 소문이 있다.”고 한 말이 맞아들어 이인환의 앞에서 박현양 부사의 목을 직접 친 사람은 여동학 이소사이고, 이렇게 하여 빼앗은 장흥부의 인부와 병부는 이인환에게 건너졌을 것이라는 상황을 쉽게 재현할 수 있다.

남소사랑(南小四郎)은 이소사가 모진 고문에 의해 정신이 착란 되고 생명이 위태로워 나주에서 일본군 군의관으로 하여금 치료를 하게하고, 또한 병간호를 할 사람이 필요하여 그의 남편을 나주로 보내라는 지시를 내린 이유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소사를 소생시켜 그녀가 부사를 직접 죽였는지 그리고 장흥동학농민혁명 지도부와 관계 등을 수사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그러나 이두황은 끝내 이소사의 남편 김양문을 찾지 못한 것 같다. 남소사랑(南小四郎)은 “상처 부위가 썩어 문드러져서 악취가 코를 찌르고 대소변은 앓은 채 나오는 대로 내버려두었으며 입은 것이라고는 흰옷 한 벌 뿐”인 이소사를 회생시키기 위해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한 후 “여러 가지 심문한 끝에 그 여자가 정신착란자라는 것을 확인하였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소사는 불굴의 의지력으로 살아남아 일본군의 많은 심문을 받는다. 이소사는 심문을 받을 때 온전한 정신은 분명히 아닐 것이고, 당연히 고통을 이겨내며 흐트러지는 정신을 놓지 않기 위해 <동경대전>과 <용담유사> 등의 동학 경문을 외웠을 것인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경문 외우는 소리는 일본군에게는 그저 미친 여자가 중얼거리는 소리로 들렸을 것이다. 때문에 남소사랑(南小四郎)이 정신착란자로 치부해 버린 것이다.

남소사랑(南小四郎)은 병영성의 서병무 병마절도사를 나주로 불러 조사한 후 서병무도 쉽게 정신착란자로 단정하였듯이 상처 부위가 썩어 문드러져서 악취가 코를 찌르는 이소사가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데다 무어라 일본인으로서는 알 수 없는 경문을 외우고 있으니, 미친 여자로 보는 것은 당연하다. 설령 나주에서 심한 정신착락을 일으켰더라도 처음부터 이소사를 미친 여자로 보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선봉일기>나 <동학당정토약기>는 물론 이인환, 최신동, 문공진, 이득춘을 처형한 후 나주목사 민중렬이 작성하여 상부로 올린 <첩보존안>에도 이소사의 생사는 전하지 않는다. 필자는 이소사가 나주에서 모진 고문의 후유증을 이겨내지 못하고, 병사했을 것으로 본다.

아무튼 이러한 불가사의 한 미모의 22세 인물이 장흥전투에 말을 타고 전투를 지휘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소사는 달리 평가해야 할 인물이다. 소모관 백낙중에게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당한 후 나주 일본군 진영으로 압송되어 일본군은 병을 치료해 주면서 병간호를 시켜줄 남편을 찾으면서까지 일단은 그녀의 목숨을 유지시켜 조사를 하려고 했다. 이 때문에 일본신문은 장흥의 여동학 이소사를 여장부, 경성지색(傾城之色)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보도를 한 것이다. 앞으로 장흥동학농민혁명사에서 이소사를 유관순열사보다 항일운동의 선배로 여성운동의 선구자로 반드시 자리매김시켜야 할 인물이다.

최동자(崔童子)는 전하는 이름이 많다. 최동(崔童), 최동린(崔東麟), 최신동(崔神童)이 모두 최동자(崔童子)이다.

천도교장흥교구의 <갑오동학혁명혈사>에서는 “최동린(崔東麟) 일명 최동(崔童): 氏は 장흥군 대덕면 연지리에서 출생하여 13세 소아로 군중을 지휘하여 장흥군 남문 밖 석대혈전에서 수만 군중을 총지휘하다가 전사하다.”로 기록하고 있다.

이두황의 <우선봉일기>에는 최동자에 관한 기록이 없다. 경군의 기록으로는 유일하게 <사료총서> 17권 「각진장졸성책(各陣將卒成冊)」의 최인록에 “崔童居長興名不知. 自日陣移送羅州日陣(최동 장흥에 거주하나 이름은 알 수 없음. 일본진영에서 나주 일본진영으로 이송)”으로 기록되어 있다.

「각진장졸성책(各陣將卒成冊)」은 이규태의 진영에서 작성한 기록이지만 이규태의 진영에서 체포하였다는 말도 없이 “自日陣移送羅州日陣(일본진영에서 나주 일본진영으로 이송)”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언제 어느 곳에서 어느 부대에 체포되었는가를 알 수 없다.

최동자의 체포는 두 가지로 추정되는데, 첫째 이규태 진영의 기록에서 발견된 점으로 보아 아마 이규태 휘하의 부대가 체포하여 일본군 진영으로 넘겼는데 일본군은 다시 “自日陣(현지의 일본군 진영)”에서 “移送羅州日陣(나주의 일본군 대대본부 진영으로 이송)”으로 넘긴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일본군이 직접 체포하여 나주의 대대본부로 이송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가능성은 일본군이 직접 체포하여 나주의 대대본부로 이송한 쪽이 더 높다.

이규태 진영에서 작성한 <순무선봉진등록> 12월 29일조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출전한다.

출진한 참모관 별군관의 첩보에 “해남에서 출발하여 40리를 가서 강진현에 도착하니

성 안팎의 민가가 모두 불에 타버렸으며, 놀라고 겁먹은 백성들의 실정은 매우 근심스럽고 참혹하였습니다. 이에 경내의 상황을 정탐하니 남면 칠량면 등에서 놓친 비류는 흑산골짜기에 숨어 있거나 흑 바다를 넘어 섬으로 들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강진현감이 각별히 수성소(守城所)를 설치하여 날마다 저들의 뒤를 쫓아 체포하는 것을 일로 삼고 있습니다. 점심을 먹은 후에 여기서 군대를 행군하여 장흥부 근처 마을 순지동(筍芝洞)에 도착하여 무사히 머물러 지냈고, 새벽에 그곳을 떠나서 장흥부에 들어가니 우선봉진이 이달 20일에 장흥부로 들어와 군대를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록은 이규태가 해남에서 남도의 사정을 알기 위해 참모관과 별군관을 출동시켜 해남 → 강진 → 장흥 → 보성 → 홍양 → 낙안으로 행군하여 첩보를 올리도록 하였는데, 강진에서 장흥부 순지마을에서 숙박한 후 새벽에 장흥부로 들어갔다는 보고이다. 이때 최동자가 비롯 나이는 어리지만 거물이기에 체포하였다면 이 보고에 최동자의 체포 소식이 전할 것인데 없다.

최동자를 체포한 부대는 바로 12월 24일부터 30일까지 장흥에 주둔한 영목안민(鈴木安民)의 부산수비대이다. 부산수비대의 총격에 다리가 맞아 체포되었기 때문에 이두황의 <우선봉일기>에는 출전하지 않고, 바로 <동학당정토약기>에 출전하는 것이다. 단 이규태 진영의 기록인 <각진장졸성책>에는 후에 전해진 첩보를 기록하였기 때문에 “名不知(이름을 알 수 없음)”라고 기록했을 것으로 본다.

다행히 남소사랑(南小四郎)의 <동학당정토약기>에서 최동자가 나주로 이송되어 온 날이 이소사와 같은 날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소사가 체포된 12월 26일 이후가 아닌가로 추정되며, 1월 1일 장흥에서 이소사와 함께 나주로 이송된 것이다. <동학당정토약기>가 전하는 최동자의 기록을 아래에서 살펴보자.

- 또 최동자(崔童子: 최동, 최동린, 최신동이라고도 함)라고 하는 자가 있었다. 역시 동학도들이 그를 우러러 받들어 신으로 모신 것이다. 이 자의 연령은 16~17세인데 노새를 타고 비도를 지휘하다가, 때마침 장흥에서 군에 의해 다리에 총을 맞고 일어설 수 없으므로 이도 역시 병원에 집어넣었다.

- 미친 여자(이소사)는 최동자와 같은 날 도착했다. (중략) 또 최동자는 의사의 주장으로 그 다리를 자르지 않고서는 도저히 치유될 가망이 없다고 하기에 발목을 잘랐는데, 정신이 착란 되어 감각이 둔해졌던 탓인지 뜻밖에도 그 큰 상처가 완치되었다.

<사료총서> 23권 183쪽 대판조일신문(大版朝日新聞) 1895년 4월 7일자에 이소사와 함께 최동자는 어린동학으로 제목을 뽑아 이소사 기사에 이어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나온다.

- 어린동학. 동도(東徒) 중에는 동자(童子) 한 사람이 있는데, 성은 최라고 했다. 동학 신도들은 그를 칭하여 선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최동자(崔童子)라 하여 그 순진 무구함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우롱하였다. 동학도의 인민을 선동하는 것은 매년 이와 같다.

대판조일신문(大版朝日新聞) 기사 내용은 일본인의 시각에서 매우 부정적으로 본 것으로 마치 순진한 어린애를 전장에서 선동꾼으로 이용한 것으로 매도하고 있다.

장흥동학농민혁명에서 어린 소년은 비단 최동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최동자와 같은 대흥면 연지리 출신인 김유선(金有善)은 15세의 나이로 참전하여 생환하였다. 약산면 해동리의 박백환(朴白煥)도 당시 15세의 나이로 참전하여 생환하였으며, 500~600명의 동학농민군을 구원한 소년 사공 윤성도(尹成道)도 당시 16세였다. 무엇이 이 어린 소년들을 전장으로 내몰았을까? 당시의 시대 상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최동자는 대흥면 연지리 출신으로 이인환과는 한 마을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타고 지휘하는 이소사와 함께 이인환의 옆에서 최동자는 나귀를 타고 전투를 지휘했다.

같은 날 천하 미모의 여동학과 어린 동학이 장흥에서 나주로 압송되어 오자 1월 4일 일본인은 통역을 대동하고 장흥으로 와서 동학도 성명성책의 결과를 등사하여 갖다는 <우선봉일기>의 내용으로 보아 일본군이 아닌 일본 신문기자가 장흥의 동학군 토벌을 취재하기 위해 통역을 대동하고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대판조일신문(大版每日新聞) 2월 9일자와 이륙신보(二六新報) 2월 10일자에 부산수비대의 장흥관련 기사가 실리고, 남소사랑(南小四郎)이 <동학당정토약기>에서 말한 것과 똑같은 장흥의 기사가 대판조일신문(大版朝日新聞) 4월 7일자의 “동학당토벌후기”에 실릴 수 있었던 것이다.

나주 일본군 병원에서 다리까지 절단한 최동자는 결국 살아남지 못하고, 을미년 3월 3일 나주에서 장흥의 이인환, 문공진, 이득춘과 함께 처형된다.

## 8. 마치면서

본고에서는 2차기포 후 장흥농민군이 장흥부의 외곽인 장평면 사창과 흑석장터에서 진을 쳐 장흥부사의 물리적 탄압을 피하면서 장흥의 북진세력과 긴밀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숙계(宿計)를 진행시켜 11월 21일 구교철의 웅치기포, 11월 25일 이인환의 대흥기포, 11월 말 홍양현 점령, 12월 1일 북진·현지세력의 사창 집결로 이른바 최후전투의 진영을 갖추어 12월 4일 벽사역 함락, 12월 5일 장흥부 함락, 12월 7일 강진현 함락, 12월 10일 병영성 함락까지 이른바 승리한 전투를 먼저 살펴보았

다. 또한 12월 12일부터 17일까지 한일연합군과 최후혈전을 벌이면서 패배한 전투까지를 비교적 상세히 살펴보았다. 이러한 대장정의 과정에서 장흥동학농민혁명의 지도부의 탁월한 지도역량과 장흥동학농민군의 기상과 혁명대의에 충실한 반외세 투쟁을 치열하게 살펴보았다.

본고를 기초할 때는 농민군 5~600명이 은신하여 모두 살아남은 덕도동학농민혁명사도 간략히 언급하려고 했으나 이미 지면이 넘쳐 포기하였다. 덕도동학농민혁명사에 대해 필자는 금년 6월 전남대 호남학연구원과 장흥문화원이 공동 주최하는 프로그램에서 200자 원고지 300매 분량으로 <덕도동학농민혁명小史>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일이 있다. 덕도동학농민혁명사는 내년말쯤 원고지 1,000매가 넘는 대작으로 발표하려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소년사공 윤성도의 활약 등을 본고에서는 크게 언급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

장흥의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한 인물, 사건과 장소 등은 강물처럼 넘쳐 나지만 우리는 그러한 것을 얼마나 알고 있었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가를 묻고 싶다. 지피지기(知彼知己)란 말이 있듯이 장흥의 동학농민혁명의 실체를 바로 알고,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는 몸에 맞는 옷처럼 향후 장흥동학농민혁명 역사콘텐츠가 개발되어야 함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역사콘텐츠 개발보다는 정확한 1차 사료 인식에 비중을 두었다. 이는 자칫 역사콘텐츠 개발이 사료에 기초하지 않고, 이야깃거리, 흥밋거리에 치중하여 잘못된 가공이 이루어진 사례를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공주 우금치전투를 방불케 하는 치열한 전투를 벌였고, 전국에서 가장 극심한 탄압을 당했던 장흥동학농민혁명이 사료부족으로 장흥동학 이야기는 변방에서 우짚는 새소리만도 못하였지만 이제는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가장 방대한 사료를 가진 곳이라고 자부한다. 때문에 역사콘텐츠 개발자원이 너무나 풍부한 곳이다. 자원이 풍부하다고 해서 곧 역사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역사콘텐츠 개발자원은 광물자원에 비교하여 말한다면 먼저 채광이 필요하고, 그 다음은 운반이 필요하며, 이물질들을 분류해내는 제련과정을 거쳐 제철을 이루듯이 1차 사료를 숙독하는 것이 바로 채광이라고 본다. 다음은 채광된 사료를 제련 장소로 옮겨 제련을 거쳐 제철을 만들어 내는 작업인데, 이물질을 걸러 내야할 제련과정에서 혹 다른 이물질이 삽입되는 과오가 범해져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앞서는 것은 한갓 기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나라의 역사콘텐츠 개발이 외형은 과대 포장되고, 내용은 불량가공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하는 말이고, 장흥에서도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역사 인식(염불)은 뒷전에 두고 이벤트(젓밥)에 치중하려는 경향을 감지했기 때문이다.

장흥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역사-문화탐방이라는 기행상품 개발에 앞서 유적지의 장소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작은 표지석이라도 먼저 세워놓고, 그러한 것들이 논의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문학, 예술, 역사, 언론 등에서 질 좋은 1차 가공품, 2차 가공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장흥동학농민혁명사에 대한 1차 사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지만

필자가 쓴 <장흥동학농민혁명 사료총서>만 하더라도 상하권 각각 500부밖에 발행되지 않아 사료제공이라는 측면에서는 인색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끝으로 오늘을 계기로 향후 훌륭한 장흥동학농민혁명 역사콘텐츠가 개발되기를 기원하면서 그 몫은 필자에게 주어진 과업이 아니라 여러분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 장흥군의 문화유적과 장흥동학역사문화콘텐츠

장모창(장흥군청 학예연구사)

## 머리말

장흥군은 전남의 남해안에 면하여 위치하며 郡域의 형장은 남북방향으로 길게 뻗어 있는 신장형이다. 군의 4극에서 극동은 동경 127°02' 14" 북위 34°50' 05" (장평면 진산리), 극서는 동경 126°47' 17", 북위 34°47' 30" (유치면 관동리), 극남은 동경 126°53' 00" 북위 34°25' 02" (대덕읍 웅암리), 극북은 동경 126°53' 00", 북위 34°52' 30" (유치면 운월리)로서, 동서간 14' 57", 남북간 27' 28"에 걸쳐 있다.

한반도 서남부의 중앙에 자리한 곳으로 전남의 3대강의 하나인 탐진강이 고을의 중심부를 가로질러 흐른다. 동쪽으로는 보성강의 상류가 흘러 득량만(得良灣)으로 연결되고 남쪽에는 강진만(康津灣)을 끼고 있다. 또한 제암산(帝岩山/778m), 억불산(億佛山/525m), 사자산(獅子山/545m), 천관산(天冠山/723m) 등 해발 500~700m의 산들을 중심으로 낮은 구릉과 평지로 이루어져 있다.<sup>33)</sup>

현재 군의 면적은 약 614km<sup>2</sup>에 이르는데, 과거 행정구역의 증감에 따라 다소의 증감은 있었다. 현재의 행정구역은 3읍 7면 293개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치면의 면적이 가장 넓다.

이 글에서는 장흥군에 현재 남아 있는 문화재를 종류별로 분류하고, 현재 지정관리하고 있는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 지정현황을 살펴보고 이들 문화재의 활용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장흥군 문화유적 활용현황 및 과제를 살펴보고 장흥에 남아 있는 동학 유적지의 활용 방안과 그에 따른 콘텐츠 개발 방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33) 이해준, 1989 「장흥군의 연혁」, 『장흥군의 문화유적』, 국립목포대박물관·장흥군, p 11

## 1. 장흥군의 역사적 연혁

선사시대의 장흥지역에 대한 특별한 자료기록은 남아 있지 않고 고고학적 조사로 점점 더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구석기 유적은 1997년 조선대학교박물관에서 실시한 보성강 상류지역에 대한 지표조사를 통해 알려지게 되었다. 지표조사를 통해 장평면 병동리 율곡, 우산리 우산, 봉림리 오산·봉림, 축내리, 부도리 등에서 구석기유적이 새롭게 확인되었다. 이후 장흥 ~ 장동간 국도 2호선의 신설 구간 내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해 장동면 북교리 신북유적이 알려지게 되었다. 신북구석기 유적은 후기 구석기 후반에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줌돌날몸돌, 새기개, 밀개, 대형자르개, 슴베찌르개, 창끝찌르개 등 약3만여 점의 석기들이 출토되었다. 특히 이곳 구석기문화층에서 간석기가 출토되었다는 점과 장흥관내에서 구석기유적이 발굴 조사된 최초의 예라는 데서 의미가 크다.<sup>34)</sup>

신석기시대 유적은 오복리 유물산포지A(바위그늘유적)에서 단사선문이 시문된 이중구연토기편 등이 출토되었다.<sup>35)</sup>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은 지석묘와 주거지, 유물산포지, 패총 등이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유적이 지석묘인데 총 243개군 2,251기가<sup>36)</sup> 분포하고 있으며, 지석묘는 대부분 강안을 끼는 평지나 해안에서 조금 떨어진 평지, 낮은 구릉 등에 위치하고 있으며 높은 지대에 위치하는 경우는 드물다. 대표적인 지석묘군으로는 방촌유물전시관 맞은편에 위치한 방촌리 지석묘군으로 한곳에 무려 93기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철기시대에서~삼국시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유적은 주거유적과 고분을 들 수 있다. 주거유적은 장흥댐 수몰지역내에서 발굴 조사된 부산면 지천리유적과 유치면 상방촌A유적, 갈두가 유적 등이 있다. 고분은 백제계 석실분으로 장흥읍 충열리, 유치면 신월리, 부산면 지천리 지동 등이 조사되었다.<sup>37)</sup>

오늘날 우리가 장흥군 연혁에 관하여 불확실하게나마 알 수 있는 것은 삼

34) 조선대박물관 2004 『동북아시아의 후기구석기문화와 신북유적-장흥 신북 구석기유적 발견 기념 국제학술회의-』 장흥군·장흥신북구석기유적보존회

35) 최성락·정영희·고용규·김영훈, 2004, 『장흥 오복리 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

36) 2004, 『장흥군의 문화유적 분포지도』에 조사된 자료 참고

37) 최성락·정영희·김병수·김세중, 2009, 『장흥 천관사』, 목포대학교박물관·장흥군, P11

국시대부터이다. 장흥지역 연혁에 관한 기록은 읍지를 제외한 총 4종에서 보인다. 1451년 정인지가 편찬한 『고려사 지리지』 ①와 1454년에 완성된 『세종실록지리지』 ②이고, 세 번째는 1481년 왕명에 의해 제작된 『동국여지승람』을 1485년 김종직 등이 개정해서 편찬한 『신증동국여지승람』 ③, 현종대에 간행된 것으로 보이는 『동국여지지』 ④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長興府本百濟烏次縣新羅景德王改名烏兒爲寶城郡領縣高麗改爲定安縣屬靈岩任內仁宗朝以恭睿太后任氏之鄉陞知長興府元宗六年又陞懷州牧忠宣王二年復降爲長興府後因倭僑徙內地別號定州’

② ‘本百濟烏次縣新羅改爲烏兒縣爲寶城郡領縣高麗改定安縣屬靈岩任內仁宗以恭睿太后任氏之鄉陞爲知長興府事元宗六年乙丑…又陞懷州牧忠宣王二年庚戌…復爲長興府麗孑因倭僑徙內地本朝太祖元年壬申築城于遂寧縣之中寧山以爲府治太宗十三年癸巳例爲都護府翌年以城隘又徙邑于遂寧縣古基築城別號定州’

③ ‘本百濟烏次縣新羅改爲烏兒爲寶城郡領縣高麗改定安屬靈巖郡仁宗以恭睿太后任氏之鄉改令名陞爲府元宗六年改懷州陞爲牧忠宣王二年復爲長興府後因倭寇僑徙內地本朝太祖元年築城遂寧縣之中寧山以爲治所太宗十三年例爲都護府明年以城隘又徙治于遂寧縣之古□’

④ ‘本百濟烏次縣新羅景德王時改名烏兒爲寶城郡領縣高麗初改爲定安縣尋省靈巖郡仁宗時陞爲長興府以恭睿太后任氏之鄉陞元宗時又陞懷州牧忠宣王時復爲長興府後因倭寇僑寓內郡恭築讓末築城中寧遂山還置’

4개의 기록이 거의 대동소이 한데 내용을 보면 본래 백제의 오차현 이었는데, 신라 때에 오아로 고쳐 보성군의 영현이 되었다. 고려 때에 정안으로 고쳐 영암군에 소속되었고, 인종 때에 공예태후 임씨의 고향이라 하여 지금의 이름(장흥)으로 고쳐 부로 승격시켰다. 원종 6년에 회주로 고쳐 목으로 올렸으며, 충선왕 2년에 다시 장흥부로 하였다. 후에 왜구로 말미암아 임시로 내지에 옮겼다가 조선 태조 원년에 수녕현의 중녕산에 성을 쌓아 다스리는 곳으로 하였다. 태종 13년에 규례에 따라 도호부로 하였고, 이듬해 성이 좁다하여 다시 수녕현의 옛 터로 다스리는 곳을 옮겼으며, 세조 때

에 비로소 진을 설치하였다는 기록이다.

그러나 백제 ~ 고려기에는 현재와는 전혀 다른 행정편제가 있어 장흥지역만도 4개의 현이 독립된 행정단위로 영역이 구분되어 있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전라도 57관이 갖춰지면서 비로소 이들은 장흥도호부의 관할 하에 들어가며, 1914년에 이르러서야 熊峙·會寧·泉浦面을 이웃한 보성군에 넘겨주면서 현재의 영역이 확정되었다. 이 탓으로 치소 중심의 연혁 이해는 현재의 장흥지역 전체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sup>38)</sup>

## 2. 장흥군의 문화유적과 활용현황

장흥군의 유구한 역사만큼 다른 전남의 21개 시군에 비해 많은 문화유적이 남아 있다. 선사시대에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장흥인의 삶과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많은 문화재가 남아 있다.

장흥군의 문화유적에 대한 전수조사는 1989년 <장흥군의 문화유적>이 맨 처음이며 이 조사는 연혁, 지리적 환경, 선사유적·고분, 불교유적, 유교유적, 관방유적·도요지, 민속자료, 전통건축, 천연기념물 등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조사 분류하였다.

이후 2004년 <장흥군의 문화유적 분포지도>이다. 이 분포지도는 장흥군의 문화유적을 기초로 하여 장흥지역을 읍면별로 전수 조사하여 작성한 보고서인데 총 조사 점수가 3,220여점에 이른다. 특히 선사유적이 조사된 문화재의 71%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이며, 지식묘 분포 수는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수가 남아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8) 이해준, 1989 「장흥군의 연혁」, 『장흥군의 문화유적』, 국립목포대박물관·장흥군, p 10

| 총 계 3,220 점      |       |     |                       |                  |       |
|------------------|-------|-----|-----------------------|------------------|-------|
| 유<br>교<br>유<br>적 | 소계    | 161 | 비<br>·<br>석<br>조<br>물 | 소계               | 134   |
|                  | 사·묘   | 134 |                       | 선정비              | 47    |
|                  | 서원(지) | 22  |                       | 기념비              | 6     |
|                  | 향교    | 1   |                       | 기타비석             | 75    |
|                  | 명현유적  | 2   |                       | 기타               | 6     |
|                  | 기타    | 2   |                       | 분                | 소계    |
| 불<br>교<br>유<br>적 | 소계    | 239 | 분<br>묘                | 고분               | 3     |
|                  | 사찰    | 9   |                       | 명묘               | 9     |
|                  | 사지    | 187 |                       | 선                | 소계    |
|                  | 석탑    | 12  | 사<br>유<br>적           | 지석묘              | 2,251 |
|                  | 불상    | 10  |                       | 선돌               | 25    |
|                  | 부도    | 14  |                       | 조개더미             | 5     |
|                  | 탑비    | 1   |                       | 말무덤              | 9     |
|                  | 기타석조물 | 1   |                       | 유물산포지            | 9     |
|                  | 기타    | 5   |                       | 터<br>·<br>유<br>지 | 소계    |
| 전<br>적<br>지      | 소계    | 21  | 지                     |                  | 51    |
|                  | 성지    | 12  | 공업지                   |                  | 43    |
|                  | 봉수    | 4   | 재배지                   |                  | 20    |
|                  | 기타    | 5   | 목장지                   |                  | 4     |
| 건<br>조<br>물      | 소계    | 67  | 역원지                   |                  | 13    |
|                  | 관아    | 4   | 창고지                   |                  | 11    |
|                  | 루·정   | 53  | 현향소부곡                 |                  | 22    |
|                  | 고가    | 4   | 당지                    |                  | 69    |
|                  | 기타    | 6   | 벽수                    |                  | 37    |
|                  |       |     | 염전                    |                  | 17    |

앞에서 살펴본 전수조사 외에도 각종 공사 시 실시하는 문화재 지표조사 및 학술조사를 통하여 매년 새로운 유적 및 유물들이 발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중 지정문화재는 2010년 10월 30일 현재 국가지정 문화재 18점, 도 지정 문화재가 54점, 군 향토문화재가 11점이 지정되어 보존관리 되고 있다. 다음 표에서 보는 것 같이 순천, 나주 다음으로 많은 수의 지정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 전남의 지정문화재 현황

(2009.9.7현재)

| 구분<br>시군별 | 총계    | 국가지정문화재 |    |     |    |               |    |           |                 |                | 지방지정문화재 |           |           |         |          |               |
|-----------|-------|---------|----|-----|----|---------------|----|-----------|-----------------|----------------|---------|-----------|-----------|---------|----------|---------------|
|           |       | 소계      | 국보 | 보물  | 사적 | 사적<br>및<br>명승 | 명승 | 천연<br>기념물 | 중요<br>무형<br>문화재 | 중요<br>민속<br>자료 | 소계      | 유형<br>문화재 | 무형<br>문화재 | 기념<br>물 | 민속<br>자료 | 문화<br>재<br>자료 |
| 계         | 1,052 | 335     | 20 | 156 | 40 | 3             | 9  | 57        | 14(2)           | 36             | 717     | 217       | 36(3)     | 192     | 40       | 232           |
| 목포        | 13    | 3       |    |     | 1  |               |    | 1         | 1               |                | 10      | 3         | 1(1)      | 3       |          | 3             |
| 여수        | 44    | 18      | 1  | 12  | 2  |               | 1  | 1         |                 | 1              | 26      | 5         | 3         | 5       | 2        | 11            |
| 순천        | 121   | 62      | 4  | 38  | 3  | 1             | 2  | 3         | 1               | 10             | 59      | 26        | 3         | 9       | 3        | 18            |
| 나주        | 79    | 25      |    | 12  | 7  |               |    |           | 2               | 4              | 54      | 14        | 1         | 16      | 4        | 19            |
| 광양        | 20    | 6       |    | 1   | 2  |               |    | 2         | 1               |                | 14      | 5         | 1         | 5       |          | 3             |
| 담양        | 61    | 12      |    | 6   | 1  |               | 1  | 3         | 1               |                | 49      | 11        | 3(1)      | 12      | 5        | 18            |
| 곡성        | 37    | 10      |    | 8   |    |               |    |           | 1(1)            | 1              | 27      | 8         | 1         | 3       | 1        | 14            |
| 구례        | 52    | 30      | 6  | 17  | 2  | 1             |    | 2         | 1               | 1              | 22      | 10        |           | 3       |          | 9             |
| 고흥        | 53    | 6       |    | 4   |    |               |    | 2         |                 |                | 47      | 11        | 2         | 23      |          | 11            |
| 보성        | 32    | 13      |    | 4   |    |               |    | 2         |                 | 7              | 19      | 9         | 1         | 1       | 2        | 6             |
| 화순        | 70    | 16      | 1  | 6   | 3  |               |    | 4         |                 | 2              | 54      | 18        | 1         | 16      | 1        | 18            |
| 장흥        | 70    | 17      | 2  | 9   | 1  |               |    | 3         | 1               | 1              | 53      | 25        |           | 9       | 6        | 13            |
| 강진        | 53    | 19      | 2  | 8   | 3  |               |    | 5         |                 | 1              | 34      | 14        | 3         | 9       | 2        | 6             |
| 해남        | 66    | 28      | 2  | 14  | 4  | 1             |    | 4         | 1               | 2              | 38      | 11        | 3(1)      | 13      | 1        | 10            |
| 영암        | 69    | 16      | 2  | 9   | 1  |               |    | 1         |                 | 3              | 53      | 9         |           | 21      | 8        | 15            |
| 무안        | 23    | 4       |    |     | 1  |               |    | 2         |                 | 1              | 19      | 2         | 2         | 4       | 3        | 8             |
| 함평        | 24    | 3       |    | 1   |    |               |    | 2         |                 |                | 21      | 5         | 1         | 8       |          | 7             |
| 영광        | 38    | 8       |    | 4   |    |               | 1  | 2         |                 | 1              | 30      | 8         | 1         | 9       | 2        | 10            |
| 장성        | 52    | 11      |    | 2   | 4  |               | 1  | 3         | 1               |                | 41      | 16        |           | 8       |          | 17            |
| 완도        | 20    | 11      |    |     | 2  |               | 2  | 7         |                 |                | 9       |           | 1         | 2       |          | 6             |
| 진도        | 36    | 12      |    | 1   | 2  |               | 1  | 5         | 3(1)            |                | 24      | 6         | 6         | 7       |          | 5             |
| 신안        | 19    | 5       |    |     | 1  |               |    | 3         |                 | 1              | 14      | 1         | 2         | 6       |          | 5             |

※( )안의 숫자는 무형문화재 1종목 2개시군 이상을 표시함

이 중 장흥을 대표할 만한 유적들을 살펴보면, 먼저 유교유적으로는 장흥향교(지방유형 재107호)를 비롯하여 50여 곳의 원사가 존재하여 문림고를 장흥의 이미지를 대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원사가 대원군의 사원철폐령 이후 다시 복원된 건물로 건축사적 가치는 크지 않으나 각 사원사우의 역사 문화적 의미는 크다고 하겠다.<sup>39)</sup>

불교유적으로는 총 239건이 조사가 되었는데 이 중 주목할 만한 점은 사지가 187곳으로 다른 어느 지역보다 더 많은 사지가 조사되어, 삼국시대에서 고려시대에 이르는 시기에 장흥 지역에 많은 사찰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많은 사지에 비해 현재 남아 있는 불교문화재는 43점(전적류 제외)정도 밖에 조사되지 않아 정밀조사 시 새로운 문화재의 발견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장흥의 도요지 또한 48개소<sup>40)</sup>로 초기 청자요지부터 조선후기 생활자기인 백자요지 까지 시대상을 알 수 있는 다양한 가마터가 존재 하여 지역 가마의 변천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이들 문화재 외에도 탐진강변을 중심으로 한 8개의 정자, 관방유적 등도 장흥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유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문화유적이 존재하지만 그에 대한 활용도는 매우 빈약한 편이다. 보림사와 방촌마을 정도가 관광지로서 활용되고 있을 뿐 다른 유적의 활용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앞으로는 이에 대한 문화콘텐츠개발 및 관광자원화 방안의 연구를 통하여 문화유적의 활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3. 장흥지역 동학의 역사 및 유적지

장흥 동학의 역사는 1862년 임술민란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민란의 계기는 전세와 잡세의 운영과정에서 야기된 모순으로 이를 혁파하기 위하여 봉기했던 것이다.<sup>41)</sup> 이런 임술민란을 계기로 농민의식이 성장하고 토대 모순에 대한 인식 전환이 되면서 장흥 동학이 다른 지역과 다르게 빠르게

39) 이해준, 1989 「장흥군의 연혁」, 『장흥군의 문화유적』, 국립목포대박물관·장흥군, p 328

40) 장흥 지역도요지 조사는 2002년 남도문화재 연구원의 『장흥 조선백자 도요지』에서 44기가 확인되었고 이후 2009년 목포대학교 박물관의 『장흥 대덕읍 도요지 정밀지표조사』에서 4기가 추가 확인되어 총 48기가 확인됨

41) 위의환, 2009, 『장흥 동학농민혁명 사료총서』, 장흥군·천도교장흥교당, p32

전파되었다.

장흥 지역 동학의 포교는 1864년 7월 7일 장흥군(현 보성군) 응치면 강산리의 박병락 부부가 처음 동학에 입교한 이후 1891년에는 이인환, 이방언 등이 교문에 입교하였고, 신도수가 수만에 달할 정도였다. 장흥 지역은 용반, 대흥, 고읍, 응치, 구교, 남상의 5개접으로 구성되었고, 1893년 보은취회에 수뇌부 수십 명이 참석하였으며, 1894년 3월 1차 농민전쟁 당시 이방언, 이인환, 강봉수 등이 기포하여 참여 하였고, 1894년 6월 20일 자라번지에 농민자치 기구인 집강소가 설치되어 장흥군의 행정을 농민이 직접 담당하였다.

2차 농민전쟁당시 이방언, 이사경 등이 중심이 되어 10,000여명이 참여하였고, 이들을 주축으로 하여 3만여 명의 농민군이 12월 4일 벽사역 전투, 12월 5일 장녕성 전투, 12월 7일 강진현 전투, 12월 9~10일 전라병영성 전투에 이르기 까지 계속되는 승전을 하였다. 그러나 일본군과 관군 진압군이 장흥으로 진격해오자, 일단 장흥으로 이동한 후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 장흥의 석대들에서 동학농민혁명 최후의 전투인 석대들 전투가 벌어져 2,000여명 이상의 농민군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12월 17일 자울재에 재집결하여 마지막 항쟁을 벌였지만 패하면서 장흥 동학농민혁명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다. 이후 일본군은 나주 초토영에 별도의 지휘부를 만들고 동학농민군의 지도부 체포와 농민군 색출 작업을 벌여 많은 농민군이 희생을 당하였다.

2차 장흥강진지역 농민전쟁은 동학의 지도부인 전봉준, 손개남 등이 체포되어 동학의 불씨가 거의 꺼져가는 상황 속에서 벌어진 점에서 장흥동학농민군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할 수 있다.<sup>42)</sup>

현재 장흥지역의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지는 2009년에 사적으로 지적된 장흥 석대들 전적지를 비롯하여 약 30여 개소에 이른다. 앞의 『장흥동학농민운동혁명사』에 제시된 37개소와 『장흥 동학농민혁명 사료집』에 제시된 20여개소를 검토하여 그 장소나 역사성을 감안하여 이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sup>43)</sup>

42) 신순철, 2009. 『장흥 동학농민혁명과 석대들 전적지』, 「장흥 석대들 사적의 보존과 활용」, p24

43) 신순철, 2009. 『장흥 동학농민혁명과 석대들 전적지』, 「장흥 석대들 사적의 보존과 활용」, p25

□ 장흥 동학농민혁명 유적지44)

| 유적지명        | 성격            | 위치             | 비고       |
|-------------|---------------|----------------|----------|
| 석대들 전투지     | 전투지           | 장흥읍 남외리 충열리 일원 | 사적 제498호 |
| 석대          | 전투지, 집결지      | 장흥읍 남외리 석대     | "        |
| 장흥읍성        | 전투지           | 장흥읍 동동리 등 4개리  |          |
| 도르쇠 들판      | 농민군 훈련지       | 용산면 접정리 2구 묵촌  |          |
| 자라번지 터      | 장흥집강소 터/전투지   | 부산면 금자리 효자마을   |          |
| 흑석장터        | 농민군 집결지       | 장평면 봉림리 장터     |          |
| 사창 터        | 농민군 주둔지       | 장평면 용강리 2구 창물  |          |
| 모정 등        | 농민군 주둔지이인환    | 장흥읍 건산리 2구     |          |
| 회령진성        | 농민군 점령지       | 회진면 회진리        |          |
| 용암산록        | 농민군 은신처       | 회진면 용암산        |          |
| 장대          | 농민군 처형지/관군 초련 | 장흥읍 양양리 서초등학교  |          |
| 벽사역터        | 농민군 처형지       | 장흥읍 축내리 제암장기든  |          |
| 무명농민군묘지 터   | 무명농민군묘지 터     | 장흥읍 충열리 동학탑 주변 |          |
| 무명농민군 묘역    | 무명농민군 묘지      | 장흥읍 공동묘지       |          |
| 자울재         | 농민군 퇴각로       | 용산면 어산리 1구     |          |
| 빈재          | 농민군 교통로       | 유치면과 부산면 경계    |          |
| 이방언 묘소      | 농민군 지도자       | 용산면 접정리 2구 묵촌  |          |
| 이사경 묘소      | 농민군 지도자       | 용계면 와리 지와물     |          |
| 관산 고읍       | 김학삼 근거지       | 관산면 고읍리        |          |
|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탑 | 농민군 추모탑       | 장흥읍 충열리 산8     |          |
| 평근당 터       | 장흥 관아 터       | 장흥읍 동동리 장원아파트  |          |
| 영희당         | 수성장졸 사당       | 장흥읍 예양리 78     | 사적제498호  |
| 수성장졸순절비     | 수성군 97명 순외비   | 장흥읍 예양리 78     |          |
| 사인점         | 농민군 주둔지       | 장흥읍 송암리 부근     |          |
| 옥산전투지       | 전투지           | 관산읍 옥산리 일원     |          |
| 김일원불망비      | 관군 공로자        | 장흥읍 예양리 78     |          |
| 이용태 애사비     | 장흥부사          | 장흥읍 교촌리 향교앞    |          |

44) 신순철, 2009. 『장흥 동학농민혁명과 석대들 전적지』, 「장흥 석대들 사적의 보존과 활용」, p25~26 표 재인용

## 4. 장흥동학역사 콘텐츠 현황 및 개발방향

### 1) 장흥동학역사 콘텐츠 현황

콘텐츠의 정의는 유무선 전기 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 부호, 음성,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해 처리 유통하는 각종 정보 또는 그 내용물을 통틀어 이르는 개념이다. 콘텐츠는 본래 문서·연설 등의 내용이나 목차 요지를 뜻하는 말이었다. 그러나 정보통신 기술이 빠르게 발달하면서 각종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디지털 정보나 그러한 내용물을 총칭하는 용어로 확장된 것이다.<sup>45)</sup>

장흥동학역사문화콘텐츠 현황은 학술자료집, 장흥 동학영상물제작, 장흥 동학 관련자 초상화 제작, 장흥 동학관련 기록화 제작 등이다. 먼저 장흥 동학을 연구하는 학술자료집을 들 수 있다. 대표적인 학술자료로는 1992년 송기숙·박맹수가 집필한 『장흥동학농민혁명사』, 1996년에 이상식·홍영기·박맹수교수가 집필한 『전남동학농민혁명사』, 1999년 장흥군에서 발행한 『영희당 사료집』, 2006년 장흥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에서 발간한 『장흥 동학농민혁명 사료집』, 2009년 위의환이 집필한 『장흥 동학농민혁명 사료총서』, 2009년 장흥군에서 발간한 『장흥 동학농민혁명 사료집』 등이 있다.

장흥 동학영상물 제작은 2009년 제115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대회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영상으로 제목은 “장흥동학농민혁명과 최후의 격전지 - 석대들”이었다. 장흥 지역 동학의 유적지 및 후손들의 증언을 기초로 하여 8분 분량으로 제작되었다. 이 영상은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제작하여 매우 의미가 있는 작업이었으며, 관련자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다.

장흥 동학 관련자 초상화 작업은 지역 화가인 조연희 선생님이 수고를 하셨는데 남도장군 이방언, 이사경, 김학삼 등 장흥 동학 지도자들의 초상화가 후손들의 얼굴을 참고로 하여 제작되었다. 초상화 제작 작업은 후손들에게 동학유족이라는 자부심을 심어 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동학관련 기록화 작업은 석대들 전투장면, 이방언 장군 행군장면, 소년 뱃사공 이야기 등이 제작되었는데, 처음으로 이지역의 동학 역사를 기록화로

45) 네이버 백과사전 검색자료

남겼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 작업이었다.

## 2) 장흥동학역사 콘텐츠 개발 방향

장흥 동학의 콘텐츠는 이제 막 걸음마를 떤 단계로 볼 수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콘텐츠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필자가 평소 생각한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학술자료집의 추가 발간이다. 학술자료집은 다른 어느 지역 보다도 많은 수량이 발간되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동학유적과 인물, 그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 녹취집의 미발간이다. 현재 장흥 동학유족회가 이종찬 회장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나 회원들이 연세가 많고, 그의 자식들이 관심이 없어 만약 현 세대가 돌아가시면 동학 당시에 대한 증언을 영영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는 장흥 동학관련 홈페이지 구축이다. 장흥 동학은 책자로는 많이 소개되어 있으나 청소년들이나 일반인들은 이런 자료를 쉽게 접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내용도 어려워, 알기 쉽게 자료를 찾고 접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하루 빨리 홈페이지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는 장흥 동학관련 스토리텔링 작업이다. 장흥 지역은 다른 타 지역과 비교하여 특색 있는 이야기 거리가 많다. 먼저 한국의 잔다르크로 연상할 수 있는 이소사 이야기, 소년장군 최동자(최동린)이야기, 소녀뱃사공 이야기 등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스토리텔링으로 개발한다면 장흥 동학만의 독특한 문화콘텐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는 장흥과 강진을 연계한 답사코스의 개발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장흥과 강진 지역은 동학의 지도자가 체포된 이후 동학의 불씨가 꺼져 가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 승전을 한다. 이는 타 지역과 차별되는 지점으로, 동학농민혁명이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끝났다는 일반적인 지식을 뒤엎는 중요한 유적으로 장흥 석대들 전적지, 벽사역터, 장대터, 무명농민군 묘지터, 병영 등을 연계한 답사코스를 개발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다섯째는 기록화작업의 확대 및 장흥동학 관련 애니메이션의 제작이다. 장흥 동학의 기록화 작업은 일부 시행되었으나 확대하여 더 많은 장면

을 기록으로 남긴다면, 장흥 동학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애니메이션 제작은 청소년 들이 동학에 대해 쉽게 알고 이해 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활용이 가능 하다고 생각된다.

여섯째 장흥 동학 캐릭터 개발이다. 스토리텔링 작업과 연계한 장흥 동학 캐릭터는 장흥 동학의 독특한 문화상품 개발로 이어져 장흥 동학을 알리게 될 것이며, 장흥 동학기념사업의 수입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결론

장흥 지역은 선사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약 3,220여점의 문화유산이 남아 있다. 지정 문화재 또한 전남에서 순천, 나주 다음으로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문화유산의 활용은 거의 미비한 실정으로, 앞으로는 이에 대한 문화콘텐츠개발 및 관광자원화 방안을 연구하여 문화유적의 활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장흥의 동학입교는 1864년을 시작으로 이미 1892년에는 신도수가 10,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1894년 1차 농민전쟁 당시 이방언 등이 기포하여 참여하였고 2차 농민전쟁 시에는 10,000여명이 참여하였다. 이들을 주축으로 타 지역 농민군들과 합세하여 벽사역전투, 장녕성전투, 강진현전투, 병영성전투 등을 승리하였지만, 아쉽게도 동학농민혁명 최후의 전투인 석대들에서 패전하면서 장흥 동학농민혁명은 대미를 장식하고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그러나 장흥, 강진지역의 동학농민혁명은 동학의 지도부가 체포된 이후에도 계속 승전을 하는 등 타 지역과는 확연하게 차별된다. 그래서 장흥, 강진에는 동학농민혁명이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끝났다는 일반적인 지식을 뒤엎는 중요한 유적이 약 30여개소가 존재한다.

장흥동학역사문화콘텐츠 개발 현황을 보면 학술자료집의 발간, 영상물 제작, 초상화제작, 기록화 작업 등이 이루어졌다.

앞에서 필자는 장흥동학역사문화콘텐츠 개발 방향에 대해 다음의 6가지를 제시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학술자료집(증언 녹취록)의 추가 발간, 장흥 동학관련 홈페이지 구축, 장흥 동학관련 스토리텔링 작업, 장흥과 강진을 연계한 답사코스의 개발, 장흥 동학기록화작업의 확대 및 장흥동

학 관련 애니메이션의 제작, 장흥 동학 캐릭터 개발이다.

앞에서 제시된 장흥동학역사문화콘텐츠 개발은 많은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 행정기관의 예산지원, 새로운 자료의 발굴 작업 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이다.

※ 참고문원

○ 단행본

- 『장흥군의 문화유적』, 국립목포대박물관·장흥군, 1989.
- 『장흥 지리지 읍지모음』, 장흥문화원, 1992..
- 송기숙·박맹수 『장흥동학농민혁명사』,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탑건설추진위원회, 1992
- 이상식·홍영기·박맹수 『전남동학농민혁명사』, 전라남도, 1996.
- 『영희당 사료집』, 장흥군, 1999.
- 『장흥 조선백자 도요지』, 전라남도·장흥군. (재)전남문화재연구원, 2002
- 『장흥 대덕읍 도요지 정밀지표조사보고서』, 장흥군.목포대학교박물관, 2009
- 조선대박물관 『동북아시아의 후기구석기문화와 신북유적-장흥 신북 구석기유적 발견 기념 국제학술회의』 장흥군·장흥신북구석기유적보존회, 2004년.
- 최성락·정영희·고용규·김영훈, 『장흥 오복리 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 2004.
- 『문화유적분포지도-전라남도 장흥』, 전라남도·장흥군·남도문화재연구원, 2004.
- 『장흥 동학농민혁명 사료집』,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2006.
- 청재가수의향토문집편찬위원회, 『향토학 백년 현장에서』, 장흥문화원, 2009.
- 위의환, 『장흥 동학농민혁명 사료총서』, 장흥군·천도교장흥교구

○ 논문

- 박맹수 「일사(日史)와 강진·장흥지역 동학농민혁명」, 『전남사학』 19호, 전남사학회, 2002
- 우윤, 「장흥·강진지역의 농민전쟁 전개와 역사적 성격」 『호남문화연구』 23호, 호남문화연구소, 1995.
- 신순철 「장흥 석대들 사적의 보존과 활용」, 『장흥동학농민혁명과 석대들 전적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09.
- 박준성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기념조형물의 현황과 조성방향」, 『장흥동학농민혁명과 석대들 전적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09.
- 박맹수 「장흥지방 동학농민군과 향촌사회의 동향」, 『장흥동학농민혁명과 석대들 전적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09.
- 김양식 「장흥 동학농민군의 재기병과 석대들 전투」, 『장흥동학농민혁명과 석대들 전적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09.
- 배항섭 「동학농민혁명사에서 장흥지역 동학농민혁명이 가지는 의미」, 『장흥동학농민혁명과 석대들 전적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09.

## 소년 뱃사공과 생명신화의 창조

- 고통이 지나면 노래가 남는다.(우즈베키스탄 격언)

임 동학 (시인, 한신대교수)

장흥 덕도의 소년 뱃사공 얘기를 듣는 순간, 문득 신동엽의 서사시 『금강』의 ‘後話<1>’에 나오는 ‘소년’이 떠올랐다. 밤 열한시 반 종로 5가네거리에서 동대문으로 가는 길을 묻던 소년이었다. 그와 동시에 김지하 시인의 ‘남조선 뱃노래’가 떠올랐다. 특히 ‘노를 젓는다, 배를 젓는다’는 것이 문명의 이동을 상징한다는 그의 지적이 불현 듯 가슴 한 구석을 뜨겁게 했다. 그러면서 책에서 접한 동학이 아닌, 처음으로 살아있는 동학을 만난다는 생각에 가벼운 흥분이 일었다.

참고로 나는 김지하 시인의 시 세계를 대상으로 석·박사 학위논문을 쓴 적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그의 문학과 사상을 크게 뒷받침하는 동학사상에 대해 나름대로 공부한 적이 있다. 또한 아직 출발단계에 불과하지만 동학의 사상이나 조직 원리를 작은 단체에나마 적용하려고 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비단 깔린 장바닥에 피어난 소리의 꽃 한송이’란 주제로 ‘네오 르네상스 문예운동 개막을 알리는 학술 세미나 및 제1회 시음 한 마당’을 가진 바 있다.

뜻밖에 그런 과정에서 대학 후배인 윤정현 시인의 연락을 받고, 또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 뜻있는 일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일종의 사명감 또는 신성한 부름 같은 것을 느꼈다. 거칠고 황량한 세월의 굽이굽이를 돌아 이제야말로 흥금을 터놓고 새로운 문예운동과 생명담론을 모색할 때가 된 것인가 하는 생각에 가벼운 흥분마저 일었다. 장흥이 단지 소설가 이청준, 송기숙, 한승원, 이승우 선생과 전기철, 이대흠 시인 등의 걸출한 현대 문학인을 낳은 땅만이 아니라 뭔가 부족하게 느꼈던 동학신화의 완결이자 동시에 새로운 생명신화의 탄생지가 될 거라는 예감이 물밀듯이 밀려 왔다.

## 1. 소년 뱃사공과 새로운 동학신화의 가능성

조지캠벨에 의하면 신화는 우선 우주의 신비성과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우주의 신비를 아는 것은 바로 인간의 신비를 아는 것이며, 이 엄청난 신비 앞에서 살아있음의 축복 또는 경이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신화는 우주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과학과 달리, 신비의 샘으로서 우주를 보여준다. 세 번째로 신화는 한 사회의 질서를 일으키고 그 질서를 유효케 하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 네 번째로 신화는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하는 교육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

그 실체가 완전히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덕도의 ‘소년 뱃사공’이 지난 엄청난 상징성을 한낱 역사물로 소모하거나 이른바 선부른 스토리텔링화로 문화상품화 하지 않으려면 바로 이러한 신화가 가진 힘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 신화는 그야말로 한낱 황당무계한 이야기나 미신적인 세계가 아니라,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한 풍부한 전통과 내면세계와 연결되어 있으며, 무엇보다도 삶과 현실을 조화시키기 위한 원형이 잠재되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신화 속에는 한 개인이나 집단의 모습살이에 규범이 될 만한 룰, 한 특정 문화권의 사람들 사이에 암묵적으로 공유되는 삶의 양식(ethos)이 들어 있는 것이다.

돌아보면, 지난 시절 동학혁명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엄혹한 시대상황과 맞물려 지나치게 투쟁적인 측면에 치우친 감이 없지 않다. 동학 100주년 즈음에 발표된 김남주의 시가 그렇고, 동학관련 소설들이 그렇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갑오농민전쟁이 가혹한 수탈과 억압에 조직적으로 맞선 거대한 운동이었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 동학의 투쟁성이나 전투성에만 집중하지, 동학사상이 가진 풍부함과 깊이에 대한 천착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느낌이다. 동학의 정신을 다양하게 조명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움직임이나 노력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즉 ‘소년 뱃사공’ 얘기는 한 초인적이고 영웅적인 ‘소년 뱃사공’이 단순히 ‘덕도’로 피신한 5백여 명의 동학농민군을 이웃 섬으로 무사히 피난시켰다는 것에 그칠 수 없다. 물론 그런 점들 역시 매우 소중한 대목이고 중심서사를 이루겠지만,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웃 마을에서는 동료와 자식, 아내와 형수가 동학농민군을 이끌던 장군이나 부모, 남편이나 시동생을 밀고하는 상황에서도 ‘덕도’에서는 그런 일이 왜 일어나지 않았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다시 말해, 그러한 기적 같은 일들이 예외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보국안민’이나 ‘척양척왜’와 같은 거대서사 때문만은 아니다. 또한 덕도라는 섬이 지닌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기반이나 지역적 환경 때문만은 아니다. 오히려 그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동학사상의 내면화로 인한 높은 도덕성과 실천성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질문해 봐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토벌과정에서 단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무사했던 수수께끼는 풀리지 않을 수 있다.

두 번째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소년 뱃사공’ 얘기는 그 소년 뱃사공이 밤을 도와 금당도, 평일도, 약산, 소랑도, 충도 등으로 동학군을 수도 없이 날랐다는 실증적인 차원에 그쳐선 안 된다. 비록 동학혁명이 최후 전투지인 장흥의 석대들 전투를 끝으로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지만, 그러나 서로 다른 섬으로 각기 흩어지는 것이 단지 피난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높은 상징성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끝이 곧 시작이라는, 동아시아의 종시적(終始的) 시간관의 관점에서 단순히 동학혁명이 그 순간으로 종결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관점을 부각시켜 가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영웅담 성격의 ‘소년 뱃사공’ 얘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남해안의 여러 섬들은 단지 섬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동학의 공간적 확산을 상징하며, 살아남은 그 5백여 명의 동학군은 외부적 투쟁 대신 동학사상의 내면화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동학혁명이 그 순간으로 종결된 것이 아니라는 해월과 증산의 사상과 활동으로 연결되었으며, 망명도생에 성공한 이들이 후일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동학사상을 실천하고 내면화했는가에 대한 상상력이 필요하다. 그 이후에도 소멸하지 않고 동학은 다양하게 변신을 거듭하며 주요한 역사적 국면마다 적극적으로 투쟁에 나섰으며, 그와 더불어 생활현장에서 높은 도덕성과 윤리를 보여줬기 때문이다.

## 2. ‘깨어나고 싶은 악몽’으로서 역사와 ‘소년 뱃사공’에 대한 해석학적

## 모험

제임스 조이스는 “역사는 내가 깨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악몽”이라고 했다. 개체적이고 실존적인 진실을 짓밟고 지나가는 역사의 무자비함 또는 잔인성에 대한 고발이자 저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역사의 악몽에서 깨어나는 것은 그 참혹함 속에서 그 대극에서 있는 생의 황홀함을 깨닫는 것이다. 그 악몽은 이대로는 안 된다는, 그래서 새로운 역사와 문화를 창조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각성으로 이어져야 한다. 역사의 비정함이나 무상함이 바로 놀랍고도 무섭기까지 한 생의 신비 또는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할 때 역사의 악몽은 도리어 축복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신동엽의 서사시 『금강』은 유명이든, 무명이든 무수한 동학군의 죽음과 희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야말로 ‘깨어나고 싶은 악몽’과도 같은 역사와 그 속에서 한낱 풀잎처럼 사라진 사람들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듯이 역사적 패악이나 실패는 동시에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반성과 각비(覺非)를 선물한다. 모든 문학과 예술은 괴롭고 아픈 역사를 외면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깊어지고 높아지는 정신의 기록이라 할 수 있다.

‘소년 뱃사공’을 하나의 신화로 승격시킬 때 명심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것이다. 역사의 악과 함께 인간의 선한 의지도 함께 성숙하며, 때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정신적 각성이 이뤄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역사적 사건을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에 부딪혀, 명제적이고 표상적인 진리 차원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신동엽의 『금강』이 한국 서사시 역사상 높은 성취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한계를 보이는 것은, 동학혁명이 가진 수직적 깊이를 수평적 확장으로 평면화 시켰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달리 말해, 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사회과학적인 접근은 사건 자체의 객관적 판단과 경험적 패턴을 이해하는데 분명 도움을 주고 또한 반드시 요청되는 일이다. 하지만 딱히 동학이 아니라 육이오, 사일구, 오일팔 등 크고 작은 한국 현대사들을 다룬 문학예술 작품들이 실패를 거듭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자칫 그것은 명제적이고 객관적인 진리의 차원에 머무를 수 있다. 특히 그것은 ‘모든 실재는 언어로 포착할 수 있다’는, 그래서

그것만이 오로지 참이자 실체라는 계몽주의적 서사에 그치기 싶다.

하지만 역사적 사건을 다루는데 있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해석은 객관적인 외면세계와 그 상호관계, 그리고 감각이나 그 도구적 확장에 의해 보여질 수 있는 관찰 가능한 표면과 패턴들을 기술하는 것에 그치기 쉽다. ‘나’ 이외는 그 어떤 경우에도 도저히 기술될 수 없는, 객관적인 <진리>가 아닌 주관적인 <진실>을 기술하는데 있어 사회과학적인 접근은 근본적으로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 모든 예술과 미학의 관심사인 나만의 의식, 주체성, 자기, 자기표현, 진실성, 진지성 등을 명제적이고 객관적인 진리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객관적 진리를 외면하거나, 주관적 진실만이 전부라는 것은 아니다. 그 외에도 모든 문화예술은 내면적인 ‘나’와 외부적 ‘세계’ 사이의 ‘우리’의 영역, 곧 윤리와 도덕, 세계관과 문화, 적절성과 공정성 등에 관계되는 상호주관적인 영역에 속하기도 한다. 즉 올바른 의미의 문학예술은 칸트의 『순수이성비판』, 『실천이성비판』, 『판단력 비판』이 보여주듯이 객관적인 (사회)과학과 도덕, 그리고 심미적 판단을 동시에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들은 결코 기계적인 조합이나 균형을 뜻하는 것일 수 없다. 모든 문학예술은 객관적이고 상호주관적인 요소를 포함하면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해야하는 운명’을 수락하면서 시작되는 것이기에 개체적 진실이나 진지성이 그 중심축에 서야한다.

그런 점에서 작고할 때까지 밥벌이보다는 하릴 없이 바다—동학군을 실어나는 바다쪽?—를 바라보았다는 그 소년 뱃사공의 침묵에 대한 깊은 의미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침묵은 아무 것도 말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침묵이지만, 또한 그것이 무수한 생각과 상상력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는 결코 침묵이 아니다. 생전의 구술과 기록, 자료들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미지수지만, 그것들에 상관없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소년 뱃사공’의 깊어진 내면에 대한 깊은 공감과 시대적 맥락을 잃지 않은 심층적인 해석학적 접근이 절실하다는 얘기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역사적 진리만이 전부는 아니다. 한 개인이 가진 진실성 역시 거대한 역사의 무게만큼 값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소년 뱃사공’이 이제야 역사의 전면에서 부각되려는 것은, 그러기에 결코 우연일 수 없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세계가 그 ‘소년 뱃사공’의 내면세계 깊숙이에 자리했을 삶

의 결과 현실인식, 진실성과 성실성이 주는 메시지와 상징성을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해석학적 모험과 도전을 시도하는 일종의 명령이자 자발적인 소명을 뜻한다고 할 것이다.

### 3. 신동엽의 『금강』의 소년 실종과 남녘땅 뱃노래

신동엽의 『금강』 ‘후화 <1>’에 나오는 ‘소년’은 ‘노동자의 홍수 속에 묻혀’ 어디론가 사라져 간다. 그러면서 ‘후화<2>’를 통해 ‘노동하고 돌아가는 밤’ ‘열한시의 합승’ 속이나 ‘서해안으로 뺨은 저녁노을의 들길’ 또는 ‘붉은 수수밭 사잇길에서’ ‘혹’ ‘입김’으로 ‘해후할지 몰라’라고 하며 긴 여운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그 소년은 가상인물인 ‘진아’와 ‘신하늬’ 사이에 태어난 또 다른 아들로써 고난의 역사를 잇는 자이자 새로운 혁명세계를 열어가는 주체로 설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다소 추상적이고 감상적인 결론으로 이어진 것은 단지 신동엽 시인의 개인적 한계일 수만은 없다. 비록 보잘 것 없고 하찮아 보이지만, 그 어디선가 무한하게 창조적으로 진화하고 있었을 한 인간의 심층 무의식 또는 영적 변환의 사례를 미처 만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그 자신이 시인이면서도 사학을 전공한 사회과학도였던 만큼, 자신도 모르게 한 개인의 내면에 대한 의미나 깊이의 추구 대신 독백적이고 자족적인 끝맺음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다소 성급할지 모르지만, ‘소년 뱃사공’의 얘기가 김지하의 ‘남녘땅 뱃노래’와 연결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각기 섬으로 퇴각하는 동학군을 토벌하기 위해 출몰한 일본군 군함들은 단지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과학 기술과 온갖 문명이 이른바 ‘남조선’으로 밀려오는 국면을 상징한다. 또한 그것은 가혹한 수탈과 억압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볼 때 새로운 문명과의 만남이자 전 인류적인 생명활동이 한반도로 집약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른바 서학에 맞서면서도 그것을 창조적으로 받아들이려 했던 동학사상의 위대성은 여기에서 비롯된다. 서양의 과학이나 문명을 다 수렴하되 그걸 창조적으로 쇄신하고 변용하여 사회혁명과 동시에 정신혁명을 일으키려 했다는 점은 여전히 높이 살만한 대목이다. 그러니까 ‘소년 뱃사공’의 배는

단순한 배가 아니다. 전 세계의 문명신들이 한반도로 이동해 한국 민중의 정신과 생활에 활동하면서, 다시 그것이 인내천(人乃天) 또는 수운의 시천(侍天)으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디 그 뿐인가. 일단 그렇게 시작된 동학은 자기 자신의 삶의 확장과 공동체적인 조직활동으로 이어지며, 무엇보다도 제 안에 모신 한울님을 사회적이고 우주적인 차원으로 확대시키는 이른바 양천주(養天主) 운동으로 꽃피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것은 일체의 생명파괴와 죽임을 넘어서는 살림, 삶의 회복을 위한 체천(體天) 운동으로 이어졌으며, 갑오 동학혁명과 같은 동세개벽(動世開闢)과 정세개벽(靖世開闢)의 십무천(十母天)의 실천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그야말로 ‘노를 젓는다, 배를 젓는다’는 것은 어떤 방향으로든 문명의 이동과 관계되어 있으며, 그 속에서 민중의 주체적이고 자각적인 생명운동이 ‘남녘땅 뱃노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그 ‘소년 뱃사공’의 행위는 단지 5백여 명의 동학군 잔당을 무사히 섬으로 대피시키는데 그칠 수 없다. 우선 그의 행위를 문명의 도전과 응전, 침략과 저항, 그리고 수렴과 확산이라는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또한 그 ‘소년 뱃사공’이 이용한 ‘풍선(風船)’의 의미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단적으로 당시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설계로 제조한 일본 군함과 비교해볼 때, 그의 돛단배는 그 기능과 성능 면에서 형편없을 게 분명하지만, 순전히 파도의 흐름과 바람 등 자연의 힘을 이용했다는 점은 오늘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단 한 명의 희생자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한 개인의 초월적이고 영웅적인 차원에서만 바라봐서는 안 될 것이다. 각자가 저마다의 한울님을 모시고 있는 존재라는, 동학사상의 고갱이와 연결시켜 봐야 한다. 또한 주민들이 동학군에게 밥과 잠자리, 심지어 옷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도 그냥 지나치면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일상성이 민중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자 또한 가장 거룩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일상성의 소중함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 4. 영성의 시대와 새로운 미학적 접근

흔히 21세기를 영성(靈性)의 시대라고 한다. 그에 따라 요가나 명상, 뇌

운동이나 템플스테이 체험 등 다양한 형태의 정신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서구와 달리 종교가 번성하고 있으며, 이는 그 방향성에 대한 시비를 떠나 또 다른 형태의 영성 갈망이 집단적으로 표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탈기독교 내지 탈종교를 지향하는 미국 등 서구인들이 보여주는 불교 등 동양종교에 대한 관심 역시 인간 내면의 초월 자유를 향한 영적 갈망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소년 뱃사공’의 서사화도 다분히 이런 시대적 맥락과 같이 해야 한다. 즉 ‘소년 뱃사공’의 얘기가 품고 있는 것들을 역사적이고 물질적인 지평에 한정할 수 없다. 그것들의 조건과 구축에 의존하면서도 바로 그것들로부터 자유롭고자 하는 갈망을 지닌 존재로서 ‘소년 뱃사공’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그가 유한하고 가시적인 존재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무한이 변화를 거듭하는 사물들과 사건들의 배후에 있는 형이상학적인 실재에 대한 갈망을 지닌 존재로 부각되어야 할 것이다.

그 구체적인 행위는 ‘소년 뱃사공’의 낚시질이다. 단지 그것은 실질적 물고기를 잡거나 동학의 후유증에 따른 심리적 충격에 의한 현실도피적인 행위가 아니라, 좁은 자기중심적인 자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깊은 바다로 상징되는 내면에서 참다운 영성을 건져 올리려 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참다운 영성은 다름 아닌 동학사상의 심화와 연결되어 있으며, 그 ‘소년 뱃사공’의 깊은 침묵이 철저한 자기부정과 세계부정을 통한 참다운 자기 긍정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바다에 낚시를 드리우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차원의 초월적 시각을 통한 현실의 폭넓은 이해와 지혜를 얻어야 하는 것이 ‘소년 뱃사공’의 신화가 지닌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대략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서 미학적인 차원에서 이 얘기를 다룰 때 억지로 감동을 쥐어짜는 서구의 영화 몽타주 기법이나 변증법적 접근을 철저히 피해야 할 것이다. 그야말로 아무런 준비 없이 느닷없이 눈물이 솟아 오르는, 영화 ‘워낭소리’에 등장하는 늙은 소의 흰 눈물 같은 감동과 동감의 서사물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그야말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동을 주기 위해선 스토리텔링 기법과 같은 기계적이고 직선적인 인과적 사고의 서사화가 아니라, 예측하지 못하는 어느 순간에 어떤 의미 있는 것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동시성적 사고의 서사화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사건

과 정신적인 사건이 분리되어 있거나, 원인과 결과에 따른 인과적 사고의 차원에서 '소년 뱃사공'의 얘기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함께 보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확충적이고 복층적인 차원의 미학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임동확 (林東確)

약력: 1959년 광주 출생. 전남대 국문학과 및 동대학원졸(석사). 서강대 국문학과 대학원 박사. 시집 『매장시편』을 펴내면서 작품 활동 시작. 이후 시집 『살아있는 날들의 비망록』 『운주사 가는 길』 『벽을 문으로』 『처음 사랑을 느꼈다』 『나는 오래전에도 여기 있었다』, 시화집 『내 애인은 왼손잡이』 5·18 20주년 기념 시선집 『꿈, 어떤 맑은 날』, 산문집 『들키고 싶은 비밀』, 시론집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이유』 등을 펴냈으며 영랑시문학상 우수상 수상. 현재 한신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겸임)로 있으며, 詩社 '시/장/통'대표와 '노나메기'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장흥동학 역사문화콘텐츠 개발방향 워크숍

2010. 11. 13

- 주최\_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주관\_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